



6

199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5. 6호

(루게 572)



◆◆◆◆◆◆◆◆◆◆

차 례

◆◆◆◆◆◆◆◆◆◆

장군님 오신 날은.....	4
장군님 기억속에 살자.....	4
걸출한 령장	5
명언	7
사랑의 그 품에	7
현판 《상원암》의 행운	8
백두산.....	10
장군님께서 아신단다.....	20
주체의 화신	21
그 말씀 명심하리.....	21
현실체험을 깊이하고 창작하도록 이끄시여	22
보내는 하루가 아쉬운것은.....	23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불멸의 서사시	24
아, 배고동소리	29
길이 빛나라, 보천보!.....	30
땃 떨어지는 소리.....	32
명제해설	33
매혹	34
사랑과 믿음의 노래	37
백두의 고향길	38
한 인간에 대한 추억.....	41
출근길에서의 느낌	4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49
구호해설	50
어머니의 부름	51
뜨거운 목소리	51
우리의 생	52
《사공령감》	53
대양의 향로	63
마를줄 모르는 샘물	68
부벽루	69
세월도 이 아픔 가질수 없다	70
인풍루	72

장군님 오신 날은

홍현양

오신 날은
장군님 오신 날은
우리의 가슴에
해가 뜨던 날

오신 날은 정이월
찬바람 흰눈도
장군님의 그 자욱에 녹아내리던
초소의 첫 봄날

어머니의 걸음도 닿지 못하는
여기 한끝 바다가초소에
해풍에 옷자락 날리시며
장군님 오신 날은
어머니 사랑이 찾아온 날

이날이 있어
총천 병사도 눈물이 많은줄 알았습니다
이날이 있어
어머니의 사랑이 하늘로 펼쳐졌습니다
손이 튼 아픔을 병사인 자신도 몰랐으나
처녀의 튼 손을 장군님만이 아프게 보셨습니다

약크림을 바르며
우리 손등에 더운것을 떨구며

어머니 무릎위에 두손을 맡깁니다
어린날 우리의 튼 손을 적시던
어머니의 다심한 눈물은
장군님의 이 사랑이였습니다

아 함께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에도
그 사랑이 있습니다
중대에 모신 **김정일** 장군님은
어머니조국의 모습
우리는 그 품에 안겨사는
조국의 딸들

사랑은 못버립니다
심장에 심으면 조국입니다
결전의 시각엔 총폭탄입니다
위대한 그 사랑은
오직 장군님만이 주십니다

아 오신 날은
처녀병사 우리에게
어머니사랑이 찾아온 날
한번 솟아 영원히 지지 않는
해가 솟은 날입니다
장군님 오신 날은
장군님 오신 날은

가사

장군님 기억속에 살자

김영숙

우리의 장군님 기억속에는
열여덟에 영웅된 전사도 있네
언제나 외우시는 이름들속엔
금폴의 미더운 광부도 있네
아, 청춘들아 그렇게 살자
김정일 장군님의 기억속에

우리의 장군님 기억속에는
청산별 농장원의 모습도 있네
언제나 못잊어 그려보시는

팔형제 용사들의 모습도 있네
아, 청춘들아 그렇게 살자
김정일 장군님의 기억속에

장군님 기억속에 사는 전사는
영원히 빛나는 삶을 누리네
세월이 흘러도 해가 바뀌어도
위훈의 별이 되어 빛을 뿌리네
아, 청춘들아 그렇게 살자
김정일 장군님의 기억속에



걸출한 령장

력사를 더듬어보면 명인도 많지 못했지만 문무를 겸비한 위인은 더욱 드물었다.

또 이름난 명장이나 군사가들의 경우에도 대체로는 군사사업의 어느 한 한정된 분야에서 자기의 특기와 재능을 보이었다. 그리하여 작전분야에서는 누구, 보병전에서는 누구, 탕크전에서는 누구, 해병전에서는 누구 하는 무훈담들이 전해지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다방면적인 군사적 예지와 슬기를 지니신 현대의 걸출한 령장이시다.

그이께서는 우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다.

예로부터 적을 잘 아는 장수는 백전백승하였다는 말이 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비범한 통찰력으로 적들의 움직임과 기도를 제때에 손금보듯 꿰뚫어보시고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십시오으로써 적들의 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셔버리게 하신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일찌기 적들의 심상치 않는 움직임을 사전에 꿰뚫어보시고 동서 해안방어에 주력하도록 하십시오 《경호함 56호》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침입사건을 비롯하여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의 거둬드는 해상침공책동에 단호한 징벌을 가하고 허장성세하던 적들을 굴복시킨 사실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지형학적, 축성학적 예지 또한 비상하시다.

1980년대초엽, 해안지대의 어느 자그마한 산에서 건설자들이 화강석을 캐내어 건재로 쓰고있었다. 지도에도 오르지 않은 작은 산은 점점 낮아져갔다.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되었다.

《그 고지를 없애면 4~5킬로미터 더 들어와서 방어해야 하기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일대에서는 일체 채석작업을 하지 말데 대한 지시를 주시었다.

이렇듯 그이께서는 산과 강이 많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하나의 작은 산도 군사적각도에서

보시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려가고계시었다.

친애하는 그이의 군사적 예지와 슬기는 특히 그이께서 지니신 신비로운 사격술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그이께서는 학창시절에 벌써 100미터밖의 소나무가지에 달아놓은 전등알들과 페니실린병들을 총탄 한알에 한개씩 박산내시여 쌍안경으로 지켜보던 학생들을 놀래우시었다.

그이의 사격술은 수십년간 화약내를 맡은 로병들과 군사일군들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것이다.

1968년 7월이였다.

그때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량강도안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시었다.

그러시던 그이께서 어느날 포평혁명사적지에 가셨다가 해산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신파군(오늘의 김정숙군) 신상리 민강읍이에서 차를 세우게 하시었다.

뒤따르던 차들도 차례로 멈춰섰다.

수행원들이 다 차에서 내리자 그이께서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고 말씀하시었다.

그런데 마침 어디선가 숲속에서 새들이 푸드득 날아올랐다. 그것을 본 한 수행원이 여기서 새잡이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으신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새잡이를 하자는것은 총을 쏘고싶다는 소리인데 왜 날짐승을 목표로 삼겠는가, 날짐승도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 나라에 깃을 펴고 사는데 잡으면 되겠는가. 그러지 말고 목표판을 세워놓고 권총사격경기를 해보자고 말씀하시었다.

수행원들모두가 환성을 올리였다.

그도 그럴것이 일행중에는 항일대전때부터 총쏘기에서만은 뒤자리를 모른다는 로투사들도 여럿이였고 해방직후부터 인민군대오에서 성장한 장령들도 몇명 되었다. 또 여러해동안 전문군사교육을 받은 새 세대 군사일군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니 그들모두가 이 사격경기야말로 자기의 사격술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다만 우려되는것은 날씨가 흐린데다 보슬비까지 내리는것이였다. 한 수행원이 하늘을 올려다

보며 날씨타발을 하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말씀하시였다.

《날씨타발을 하는것은 권총사격경기에서 락체를 맞을가봐 걱정되어 그러는것입니다. 날씨에는 상관하지 말고 권총사격경기를 합시다.》

모두가 달라붙어 대충 사격장을 꾸리고 목표판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여기서는 일정에 없던 권총사격경기가 벌어지게 되였다.

먼저 항일의 로투사들이 침착하게 사격을 하였다. 모두들 총탄 세알을 쏘아 27점 이상의 높은 성적을 받았다.

역시 로투사들이 다르다는 탄사들이 튀어나왔다.

한 로투사가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다음번사격에서는 꼭 30점을 맞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지금 나이에 그만한 성적이면 괜찮습니다. 백발백중하겠다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장령들이 쏘았는데 그들의 성적도 좋은 편이였다. 마지막차례는 젊은 일군들이였다.

그들은 단단히 마음먹고 사격을 하였으나 명중률이 월등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명중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대하여 구구히 변명들을 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군인이 갖추어야 할 품모에서 기본은 백발백중의 사격술입니다.

...

혁명의 무기를 잡은 병사는 언제나 원쑤의 심장만을 꿰뚫어야 합니다.

...

군사지휘관들은 원쑤를 눈앞에 두고 병사들에게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의 청인데 나도 한번 봐보겠다고 하시며 권총을 목표판에 겨냥하시였다.

이윽고 세방의 총성이 런던아 울렸다.

수행원들모두가 달려나가 목표판을 들여다보았다.

10점환의 중심부를 세알의 총탄이 뚫고나갔다.

그들은 모두 환성을 울리며 사격의 능수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러렸다.

이렇듯 령장의 슬기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에 기초하여 현대전쟁을 립체전쟁, 기계화전쟁, 기름전쟁, 앞전쟁으로 정식화하시고 그에 맞게 우리의 혁명무력을 무적의 전투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때로는 단 한수로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쥐락펴락하는 탁월한 지략을 펼치기도 하시였다.

해마다 모험적인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제단식으로 확대해온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은 1980년 3월에 무려 15만 4천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화약내를 질게 풍기였다.

적들의 《공격》서열은 어느덧 군사분계선인 최전방으로 향해지고있었다.

인민군대의 책임일군들은 적들의 공격태세에 대처하여 전군에 동원태세를 갖추게 하는 한편 조성된 정황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보고드리였다.

적정을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놈들이 최전방 가까이로 기여나오는 때를 같이하여 인민군부대들의 대기동을 단행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작전대앞에서 부대들의 기동을 지휘하시였다.

대기동은 즉시에 시작되어 번개처럼 끝났다.

뒤늦게야 이것을 알게 된 적들은 당장 무슨 일이 터지는줄 알고 눈이 화등잔만해져서 혼련비상으로부터 전투비상으로 이전하느라 복닥소동을 피웠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텔콘-4》전투비상이였다. 이렇게 하다보니 《팀스피리트80》합동군사연습의 모든 계획들은 제일 중요한 대목에서 뒤죽바죽이 되고말았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적들이 혼련비상으로부터 〈텔콘-4〉 전투비상으로 넘어간것은 우리가 진행한 기동연습을 공격 집단편성을 위한 부대기동으로 판정하였기때문인것 같습니다.》

사실 적들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비범한 군사적 지략과 담력 앞에서 완전히 넋을 잃었던것이다.

참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창조하시고 령활무쌍한 전법을 구현하시며 탁월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모든 정황을 능숙하게 처리해나가는 군사의 영재이시다.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를 핵으로 통일단결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녀은
오늘 우리 당이 일심단결이라고 부르는 통일단결을 낳은 위대한 전통으로 되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혁명투쟁을 전개한
바로 그때로부터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은 파쟁과 혼란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장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2)중에서

사랑의 그 품에

김 속

아기들이 안긴다
즐겁게 기쁘게

솔푸른 모란봉기슭
해빛 밝은 김정숙탁아소
아기를 안고 트랙에 들어서면
그리운 어머니님 달려나와
우리 아기 반겨주실듯

요람속에 안긴 우리 아기 얼굴에
꽃잎같은 웃음이 피어날 때
정깊은 그 손길로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는듯
가슴가득 어려오는 어머니님 영상

해빛도 유난히 정답던 해방의 봄날
백두의 풀물오른 그 손으로
한뼘두뼘 꽃수를 놓으신
애기베개, 애기옷 안고
탁아소 찾으셨던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 아기 안아주실듯

아이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항일의 눈보라 천만리 헤쳐오신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안겨주시며
그날의 자장가도 다시 들려주시며
봄빛가득, 해빛가득 뿌리시던
아, 그 사랑이여

귀여운 꽃봉오리

애지중지 키워서
나라의 보배동이
장군님 친위전사로 내세워주시던
그 품에서
어제는 내가 자랐고
오늘은 내 아기 자라나니

나의 꿈
나의 기쁨인
귀여운 우리 아기
그 품에 안기면
내 마음 든든해
티끌만한 시름도 없어

아, 그 얼마이라
김정숙어머님 뜻이 어린
이 트랙에서 첫걸음마 익히고
그 사랑어린 저 창가에서
키도 자라고
마음도 자란 우리 아기들

세상에 부럼없을 이 요람에서
내 사랑 우리 아기도
해님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려
불계만 불계만 피어나려니

아기들이 안긴다
위대한 사랑의 품에
우리의 미래가 안긴다

현판 《상원암》의 행문

묘향산 상원암은 천산폭포를 배경으로 하고 룡연폭포와 산주폭포를 앞에 드리운 기암절벽우에 자리잡고있는 절이다.

상원암은 묘향산에서도 가장 경치가 뛰어나곳
에 자리잡고있다.

그리하여 상원암에는 《향산제일암》이라는 현판까지 걸려있다.

고려말엽에 세워진 이 건물에는 또한 《상원암》이라고 쓴 현판도 걸려있다.

이 두 현판의 글은 19세기초 이름있는 서예가였던 김정희(1786~1856)의 글씨이다.

김정희는 리조시기 양봉래, 김생, 한석봉과 함께 4대명필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의 글씨는 웅건하면서도 박력있고 활달한 필치, 그리고 기발한 짜임새로 하여 만인이 높이 평가하는 명필이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추사체》라고 하는 새로운 서체로 이름을 날리며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70평생에 열개의 벼루들에 먹을 갈아서 구멍을 뚫었으며 붓을 천개나 닳아없애었다.》고 하였다.

현관 《상원암》과 《향산제일암》의 필적은 상원동 룡연폭포, 계류반석에 양봉래가 쓴 《신선굴택운하동천》(구름안개 피어나는 이곳은 신선이 사는 경지로다)과 더불어 묘향산의 자랑으로 되고 있다.

현판 《상원암》의 필법은 기운과 기백이 넘쳐
흘러 상원동의 폭포들처럼 살아 파도치는 듯하다.

한때는 이 현판이 어느 다른곳에 있었는데 글
체가 욕심이 나서 보현사에서 옮겨다 달았다는
설도 있다.

그만큼 현판 《상원암》은 매우 귀중한 문화재인데 현재 몇점밖에 남지 않은 추사 김정희의 서예작품으로서 더없는 보배로 여겨지고있다.

그런데 이런 보물이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저 묘향산력사박물관의 연구자들 몇사람만이
추사 김정희의 서예작품이라는것을 알고있었을
뿐 그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여기지 않았고있던

것이다.

오늘은 이 보물이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겠다고 찾아오고있다.

어떻게 되어 그 현판이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까?

몇해전 어느날이었다.

유럽 어느 한 나라의 동방연구가가 묘향산에 찾아왔었다.

그는 향산호텔에 러장을 풀자마자 상원암부터 찾았는데 다짜고짜로 그 사람은 현관 《상원암》과 《향산제일암》을 이쪽저쪽에서 여러 각도로 사지를 찍는 것이었다.

숨도 돌리지 않고 너무도 극성스레 사진을 찍는 바람에 안내원은 어안이 빗뚱해졌다.

안내원은 좀 쉬면서 상원암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천천히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말하였으나 그 사람은 들은체도 하지 않았다. 마치 조금만 있으면 그 현관이 없어질것만 같아 안절부절 못해하는 사람같았다.

그는 한시간나마 정신없이 사진을 찍어대더니
무슨 큰 보물이라도 얻은듯 그제야 얼굴에 싱글
벙글 웃음을 띄우고 바위에 걸터앉아 다리섬을
하는것이였다.

안내원은 하도 이상하여 그 동방연구가에게 이렇게 물었다.

《연구사선생은 저 현판을 보시고 왜 그렇게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십니까?》

그제야 그 손님은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았다.

《저는 사실 동방학전문가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예작품수집가라고 해야 옳을것입니다. 동방학을 연구하면서 불인 취미인데 온 심신이 늘 거기에 가있으니까요. 저는 동방의 서예작품이라면 오금을 못칩니다.》

그 사람은 동방의 서예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다. 우리 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서예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서예에 대해 많은것을 알고 있었는데 양사언, 김생, 한석봉은 물론 김정희의 추사체에 대한 지식도 매우 해박하였다.

그는 추사체에 대하여 조선의 옛 문헌들에서

많은 글을 읽었으나 실지로 추사체로 쓴 서예작품은 한편도 보지 못했던것이다.

《선생은 어떻게 현판 〈상원암〉과 〈향산제일암〉이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라는것을 알았습니까?》

안내원은 의문이 생겨서 손님에게 또 물었다.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덕분입니다.》

손님은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안내원은 또다시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지난 2월에 저는 우리 나라 수도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진전시회〉에 가본적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의 현명한 령도로 날에 날마다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조선에 대해서 동방학전문가인 저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있답니다. 저는 그 사진전시회에 가서 내가 그렇게도 안타깝게 찾던 귀중한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예수집가인 저로서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그이께서 묘향산 상원암을 찾으시여 찍으신 사진을 본것이 제일 기뻛습니다.

추사체로 쓴 서예작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는 저는 경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의 영상뒤에 배경으로 찍힌 〈상원암〉이라는 현판이 처음 보는 서체여서 그것이 추사체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회과학원에 알아보니 그것이 글썄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추사체작품을 찾게 된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도 이런 진귀한 보물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해주신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어 하루도 더 지체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길로 인차 달려왔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담은 편지를 올렸다고 하였다.

안내원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해 봄날, 묘향산 상원동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상원암을 찾으시여 옛건물을 돌아보시더니 그앞에서 사진을 찍으시었다.

사진사는 경애하는 그이의 거룩한 영상과 배경인 옛 건물이 잘 조화가 되게 구도를 잡으려고 사진기렌즈를 조절하였다.

그때 그이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리었다.

《사진사동무, 이 사진은 〈상원암〉이라는 현판이 잘 나타나게 찍어야 합니다.》

그러시고는 그 글씨가 잘 보이도록 몇걸음 옆으로 비켜서시는것이였다.

사진사는 그이의 말씀대로 구도를 다시 잡았다.

그가 사진기렌즈를 들여다보는 순간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 배경에 있는 현판 〈상원암〉과 〈향산제일암〉이라는 글밭에서 보석처럼 찬란한 빛발이 뿜어나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의 참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진사와 일꾼들은 그저 신기한 현상에만 놀라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후 전국각지에서 오는 등산가들과 세계 5대륙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손님들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적내용을 듣고는 모두 현판 《상원암》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나라 서예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판을 보시고도 그의 고전적 가치를 대번에 헤아리시고 귀중한 문화재를 세계만방에 널리 소개하고 자랑하시려는 경애하는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숭고한 뜻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언젠가는 중국에서 한 서예가가 왔는데 그는 조선을 방문하였던 자기의 한 친구가 현판 《상원암》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였다.

일본의 서예가는 조선수공예품전시회에 갔다가 거기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상원암앞에서 찍으신 사진을 보고 달려왔다고 하였다.

현판 《상원암》을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이 추사체서예작품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빛나는 예지에 의하여 현판 《상원암》과 《향산제일암》은 몇점 안되는 추사체서예작품으로서 세계에 널리 소개되게 되었다고 한다.

백두산

조기천

(전 호에서 이음)

제 4 장

1

우등불이 밤을 태운다-
 무쇠같이 장백을 내려누르는
 캄캄한 밀림의 밤을!
 끝없이 몰아 죄여드는 모진 어둠
 머리속에도 흑막이 드리운듯-
 허나 불길은 솟고
 불꽃은 튀고
 솟아서는 태우고 죽고
 죽고는 또 솟거니
 이름모를 결사의 싸움이
 이 밀림속에 벌어진듯
 빨찌산 우등불-
 어느때 한번 사람이
 그 불길에 두손을 죄었다면
 어찌 줄달음치는 피속에서
 생을 읊조리는
 그 기쁨이 식어질수 있으랴!
 어느때 한번 사람이
 그 불꽃튀는 소리 들었다면
 어찌 그 소리소리
 마음의 줄을 울리며
 희망과 신념을 길이 일으키지 않으랴!
 빨찌산 우등불-
 그것은 집이었고 밤이었다
 그것은 달콤한 잠자리였고
 그것은 래일의 투쟁-
 하물며 《토벌》의 절망을 헤치고
 사지를 육박으로 지났으니
 그것은 승리의 상징
 야반의 노도속
 반짝이는 구원의 등대!

2

초병들도 긴 하품에
 눈시울이 아파질무렵
 빨찌산부대 깊은 잠 들다

이슬속 고달픈 이 잠자리
 몇날만에 발켜게 되였는고?
 어제날의 상처 아직도 저리지만
 나흘째나 굶주렸지만
 또 앞날의 길 즐편하지만
 이밤엔 우등불이 불거니
 깊은 잠 안식의 잠
 그런데 한분만이 잠 못들고
 우등불옆에 비스듬히 앉아
 밤가는줄 모르네-
 이런 밤엔 그이는 책을 보았다-.
 봄날의 아지랑인양
 희망이 멀리서 어른거리고
 기쁨이 마음을 한끝 부릴 때도
 그이는 책을 보았다
 불안의 구름장이 가슴가에 낮게 떠돌고
 어느 구석에선가 절망이 머리들 때도
 그이는 책을 보았다-
 그러면 새 힘을 얻고 목적을 보았다
 혁대를 남비에 꿰이는 냄새
 주린 창자를 놀라게 할 때도
 이 책을 보았고
 먼 옛날 그이의 어린 시절이 흘러간
 어느때나 그리운 고향의 옛집-
 다복술에 덮인 뒤산밀
 그 쓰러져가던 옛집이
 세월과 망각을 헤치고 또렷이 떠오를 때도
 또 어느 봄날 부엌에서
 미음드레 가리며 한숨짓던
 수심에 어린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의 쪽문을 열고 들어설 때도
 그이는 책을 보았다-
 그러면 새 힘을 얻고 목적을 보았다
 이밤에도 글줄을 뚫으며
 월-월- 걸어가는 생각
 《우리 비록 적지만
 우리 비록 굶으며 피흘리지만
 인민이 우리를 받들거던
 또 북에 있는 자유의 나라 정의의 나라
 신세의 성벽을 영원히 뺨치며
 불의와 침략을 우리 물리치거던
 백일하에 빛나 빛나는

창조의 휘황한 성진이
 누리에 퍼지며 장백에 비치노니
 우리의 신념은 크나큰 화염이 되어
 캄캄한 조국의 땅 밝히리라!
 내 이렇게 마음조려 기다리는
 식량부대도 돌아오리!
 철호의 소식도 내 들으리!》
 밤새도록 어둠과 싸우던 우등불도
 휴전인양 수그러졌는데
 오로지 그옆에 앉았던 한분만이
 가볍게 일어서며-
 《어! 날이 밝는구나!》
 동편하늘은
 새벽을 이룩이룩 걸어이고
 쉽사리도 일어선다, 일어선다!

3

그렇게 기다리던 식량부대
 아침에야 돌아왔다-
 얻은것이란 소 두마리뿐
 나물죽 생각만도
 두 가슴을 찢는듯 파내리거니
 대장도 알기전에
 소잡을 차림 서둘렀다-
 썩-썩- 칼도 갈고
 모닥불도 푸-푸 피우고
 대장이 왔을 때는
 모여든 빨찌산들 눈살에
 소 두마리도 어둥지둥
 정신부터 잃은듯-
 목재소 일본소로는
 살도 푸둥 굴레도 호함졌다
 《소는 어디서 가져왔소?》
 대장이 묻는 말
 《삼발골 목재소어구에서...》
 소대장 순선의 대답
 대장은 굴레를 보았다-
 동전을 단 굴레
 수놓은 굴레... 아낙네의 숨씨
 독특한 코뚜레-민족의 이색-
 어김없이 일본소는 아니다
 《동무들!
 우리 빨찌산들이
 어느때부터 마적이 되였는가?
 어느때부터
 평민의 재산을 로략했는가?
 이 굴레를 보라-
 이 소는 조선농민의 소다
 저 소는 중국농민의 소다》
 이렇게 김대장이 말했다
 이것은 소를 돌려보내라는 명령

이것은 산채를 캐여
 아침 하라는 명령
 빨찌산들이 산채를 듯보며
 산조하듯 퍼졌을 때
 살진 소 두마리
 가담가담 물을 뜯으며
 산등 타고 마을로 내려간다
 어떤 화를 지날지도 모르며
 또 어떤 불행 있을지도 모르며...

4

빙-둘러선 빨찌산들...
 그앞에 말없이 선 김대장...
 머리에 휘도는 싸늘한 기운
 가울서리 내리듯
 아침해발도 눈치채고
 밀림으로 삼가 기여드는듯-
 《늑가 소를 죽였는가?》
 대장이 낮게 묻는다
 《...》- 군중은 잠잠
 《늑가 소를 죽였는가?》
 낮고도 열구는 목소리
 그래도 대답은 없었다
 높다란 침묵이 잉-
 빨찌산들 고개를 친다
 《대장동무!
 내가 죽였습니다...》
 한걸음 나서며 말하는
 청년빨찌산 최석준
 《네가?》
 빨찌산들이 놀란다
 싸움에서도 대담한
 첩후로도 이름있는 석준이...
 더없는 전우라던 석준이
 《네가 어찌?》
 빨찌산들이 더 분해한다
 새파랗게 고민에 질린
 땅에 수그러진 그의 낮-
 《대장도 우리도
 나흘째나 굶게 되니...》
 그러나 군중속에서 누군지-
 《응, 변명을 하는구나!》
 또 누군지-
 《너는 명령을 거역했다!》
 소대장 순선이 주먹을 들며-
 《너는 왜놈들을 도와준다!》
 석준이 번쩍 머리 들며-
 《왜놈들을 도와준다고?》
 《그렇다!》
 《내가?》
 《그렇다. 네가!》

《아니 내가
왜놈들을 도와준다고?》
《그렇다 네가! 네가!》
《그렇다면...》
잘각-총재우는 소리
《자, 나는 죽어 마땅하니...》
석준이 총박죽을 내민다
《기척!》-대장의 호령소리
철판으로 밀림을 들부시는듯
빨찌산들은 선자리에 붙은듯
오로지 무거운 침묵만
파악 뚜껑인듯 내려누르고-

5

《가마속의 물은 끓다가도 없어진다-
원천이 없거니-
허나 내물은 대하를 이룬다
동무들!
우리는 대하가 되려나 바다가 되려나
우리의 근간도 민중속에
우리의 힘도 민중속에 있다!
민중과 혈연을 한가지한
빨찌산임을 우리 잊었는가
우리 이것을 잊고
어찌 대사를 이루랴!
민중과의 분리-
이것은 우리의 멸망
이것을 왜놈들이 꾀한다
우리 이것을 모르고
어찌 대사를 이루랴!》
기척해 선 빨찌산들
쩌렁-가슴을 가르고
치밀어솟는 의분!
《이제도 죄책을 모르겠는가?》
석준에게 대장이 하는 말
《압니다!》 석준의 대답
첫서리 맞은 풀-
그것도 이것보다는 생생하리...
《나는 죄책을 잘 압니다》
석준의 떨리는 목소리...
재가 내여들은 입술...
허나 이제도 처벌의 고개
어떻게 석준이 그 고개 넘으려나!
빨찌산들은 잘 안다
오직 한가지뿐-
《총살》!
폭풍우전 짧은 순간...
침묵... 침묵... 침묵...
《임자를 찾아 소값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대장이 돌아선다

새파랗던 석준의 낮에
몇줄기 붉은 빛
빨찌산들의 낮에도
해발이 비친다
어떠한 커다란 총직과 신념이
빨찌산들의 가슴에 드러누워
툭-툭 어리광치듯
심장을 쥐어박는다

6

빨찌산부대 열흘만에
동남으로 길떠났다
산촌사람들도 승벽내여
식량도 결메올리고
부상된 전사도 치료하고
소대장을 몇십리 보내여
《토벌대》도 홀려가고-
허지만 밤마다 밤마다
대장은 잠 못들더니
어느날인가 약재 끓어진
로동복 입은 중로인이 왔을 때
작은 지도 대장의 손에 쥐웠더니
그 이튿날아침
동남으로 길떠났다
동남의 길-
앞에는 고개 뒤에 또 고개
골짜기도 많고 멀기도 하련만
어느 뉘가 피롭다 하랴!
어느 뉘가 뒤서자 하랴!
앞으로! 앞으로!
승냥이도 추위에 얼어죽는 때
빨찌산들이 이 길을 그리었다-
그러면 새 움이 마음속에 자라났다
나날이 주름이 모지름할 때도
빨찌산들이 이 길을 그리었다-
그러면 큰 날거리 가슴속에 자라났다
돌아갈 길이 잡초에 막히고
마음 한바닥에 채만 무질 때도
빨찌산들이 이 길을 그리었다-
그러면 희망의 모닥불이
앞길을 가리켰다
동남의 길-
자나깨나 그리던 이 길
죽어도 한번은 가겠다면
살아서 살아서 못간다면
죽어서라도 기어코 가겠다면
조국으로 가는 길, 싸움의 길-
빨찌산들이 길떠났다
동남으로 길떠났다
앞으로! 앞으로!
오오! 앞에는

압록강! 압록강!

제 5 장

1

총소리 난지도 이속할제
추격의 마지막 총소리-
철호 걸음 멈춘다
심장이 악쓰며 미지의 길 달리고
목에서도 재불이 날리고-
그런데 온 삶은 청각에 울랐거니
달빛아래 휘늘어진 수림속
나무들만 우중충-
사방은 죽은듯...
그때에야 꺼안은 소년을
땅우에 삼가 내리우며-
《영남아! 영남아!》
철호 낮게 부르짖는다
달빛에 해썩한 소년의 낮
피로운 잠꼬대인양 가느다란 신음...
가슴에서 흐르는 피
저고리설 적신다...
웃소매 꿰어 상처 싸매며-
《영남아! 우리 가자!
우리 술개골로 가자!》
허나 소년은 눈감고 말이 없다
어머니 앓는 애를 안아일으키듯
철호 소년을 안고 일어선다

2

이밤은 불운의 밤-
이밤에 마지막 보고 가지고
철호와 영남이 압록강 건너려다
일본수비대의 추격에 들었다
이밤은 불행의 밤-
그러나 이 살판치는 불행을
한사람만 알고있으니
영남이는 정신없어 모르고
철호만 그 불행을 한아름 가득안고
허둥-지둥-
밤길로 동북으로 나간다
술개골로 가려고...
영남이를 살리려고...
밤길-
밤길에도 산속에 밤길...
뒤에는 감옥과 죽음을 두고
앞에선 이름도 모를 위험이
고양이같이 모퉁이 지키는데
죽어가는 소년을 안고
터지는 가슴을 녹젓히며

한걸음, 두걸음
걸음마다 애끓어지는
산속의 밤길, 철호의 길!
이 나라의 맘있는 길손들이여
몇번이나 그대 이런 밤길 걸었느냐?
그대 정녕코 철호의 길 모를리 없거늘
맘속에라도 이곳에 오라-
이곳에 와서 철호를 도와주라
손톱까지 적시는 땀
철호 몰래 씻어주라!
고통의 밤길, 이 밤길
어느 년들 그 이름이나 알리오만
그러나 이 나라에 열리고야말
그 생의 대로에 련하여지리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3

몇리나 걸었는지도 모른다
몇시나 걸었는지도 모른다
오로지 하나의 생각뿐-
술개골로 빨리 가자!
영남이를 살리자!
새벽을 잡아서
화전골 첫 어구에 들어섰을 때
영남이 정신 차렸다
그의 첫말-
《보고를... 보고를...》
그담 물을 달라고
철호는 물얻으려 달려가고
소나무밑 이름모를 봄풀우에
반듯이 누워있는 소년-
그 크다란 불타는 두눈 부릅뜨고
검푸른 하늘 노려보다가
벌떡 일어나며
두주먹 높이 들며-
《끝까지 싸우라!
조선독립 만세!》
높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총에 맞은 갈매기
바위에 떨어져 부닥쳐도
꺾어진 나래를 퍼덕이며
생과 투쟁에 부른다
그렇게 마지막 부르짖은 소년
다시 스르르 모으로 쓰러진다
입술로 두줄기 피 흘려서
풀잎에 맺힌 밤이슬에 섞인다...
눈동자에 구름장이 얼른...
바람이 우수수-
소나무를 흔든다...

4

철호 무덤을 판다
 소나무밑에 영남의 무덤을...
 파다가는 한숨쉬고
 한숨쉬고는 또 파고...
 어찌 이곳에 그를 묻을줄 알았으리-
 그 생을 즐기던 소년을
 이 나라의 강물인양 그 맑은 마음을
 그 조국애에 꿰던 심장을!
 철호 무덤을 판다-
 소나무밑에 전우의 무덤을
 《잠자라 동무야!
 우리들이 우리들이
 원썩 갇으리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누런 흙에 점점이 떨어진다
 장백의 높고낮은 고개고개에
 이 무덤이 첫 무덤 아닌줄이야
 우리 어찌 모르랴!
 침략의 피 서린 밤이
 이 나라에 칭칭 걸치였거니
 새날을 위해 싸우다 죽은이
 헤여보라 몇만이나 되는고?
 어느 고개 어느 골짜기에
 어느 나무 어느 돌밑에
 이름도 없이 그들이 묻히었노?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베이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곁에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5

오솔길
 샘터로 올라가는 오솔길
 아침안개 휘휘 밭길에 감기는 오솔길-
 꽃분이 물 길으러 올라간다
 올라가노라면 돌담불-
 순사 왔던 그날밤
 등사기 감추어둔 돌담불...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곳을 지날 때면
 밤길 떠난 철호의 모습 떠오르니...
 《시방은 어느곳에 계신지?
 떠나신후 소식조차 없으니
 무사히나 일하십니까?》
 웨 그의 모습이
 날 갈수록 더 그리워질가?
 웨 이리도 가슴이 안타까울가?

떠지는 걸음걸이...
 무엇인지 맘속에 무겁게 처매운

6

돌담불을 지나면 샘치바위
 진달래꽃에 불그스레한-
 그밑에는 샘터...
 밤새 떨어진 꽃이 샘물을 덮었다
 꽃분이 주저앉아
 두손으로 꽃잎 거둔다
 한줌 거두어 돌우에 놓고
 두줌 거두어 돌우에 놓고...
 산란하고 들뜨는 마음
 (만날수는 있을가?)
 샘물을 바라보는 처녀의 생각
 거울같은 물속에서
 어글어글한 두눈
 수심을 날날이 말하는듯-
 《에그! 내 무슨 생각울!》
 낮을 붉히는 처녀
 세번째줌 거두어 돌우에 놓으려다
 처녀 놀라 멈춘다-
 바위옆에 그가 섰어라!
 《철호!》-처녀의 부르짖음
 놀라움과 기쁨에 섞인
 쥐였던 꽃봉치 우수수 떨어져
 샘물을 다시 덮는다...
 그러나 기진하고 어이없는 철호의 낮
 꽃분의 숨결을 막는다-
 《무슨 일예?》
 《간밤에 영남이 죽었수...》
 《영남이? 아이구 기차기두!...》
 처녀의 심장옆에서
 무거운 아픔이
 꿈틀 돌아눕는다
 또 돌아눕는다...
 한시후에 철호 떠나고
 꽃분이라도 길 떠났다
 H 시로 간다고
 전에없이 꽃팔러 간다고
 진달래꽃 한입 이고
 몇몇해 정성껏 자래우던
 샘터 진달래도 모조리 뜯어
 한떨기도 남기지 않고...

제 6 장

1

이 나라 북변의 장강-
 칠백리 압록강 푸른 물에

저녁해 비졌는데
 황혼을 담아실고
 폐목이 내린다 폐목이 내린다
 뉘의 눈물겨운 이야기
 폐목우의 초막에 깃들었느냐?
 뉘의 한많은 평생 모닥불에 타서
 한줄기 연기로 없어지느냐?
 《물피리 불며 울며 구울러갈제
 강 건너 천리길을 이미 떠난 몸
 재 넘어 구름 따라 끝없이 간다
 에헹 에헤요 끝없이 가요》
 웨 저 노래 저다지 슬프단말가
 이 땅의 청청 밀림 찍어내거니
 그 노래 어이 슬프지 않으랴!
 이 나라의 집집은
 대들보 터지고 기둥이 썩어져도
 그 미끈한 만년대목으로는
 놈들이 춤추고 노래부를 집을 세우고
 놈들이 향락의 향연 베풀거니
 그 노래 어이 슬프지 않으리!

2

황혼도 깊어지고
 물결도 차지고
 서늘한 밤바람
 강가에 감돌아들무렵
 강건너 바위밑에서 휘-익-
 휘파람소리 나더니
 폐목에서도 모닥불이 번뜩번뜩
 내려가던 폐목이 돌아간다 돌아간다
 머리는 저편 강가에
 꼬리는 이편 강가에-
 삼시간에 이루어진 폐목다리
 초막에서 나온 두사람
 나는듯 이편으로 달아온다
 한사람은 폐목군
 다른 사람은 철호
 그담 강 저편 바위밑에서
 군인들이 달아나온다
 달아나와선 폐목으로
 압록강을 건너온다-
 빨찌산부대 압록강을 건너온다
 산밑에 그들이 숨었을 때
 그 폐목다리도 간데 없고
 출렁-치절썩-
 찬물결만 강가에 깨여지는데
 멀리선-
 《띄우리라 띄우리라
 배를 무어 띄우리라
 폐를 무어 띄우리라!》

빨찌산들이 압록강을 건너왔다-
 왜적이 짓밟은 이 땅에
 살아서 살곳 없고
 죽어서 누울곳 없고
 모두다 잃고 빼앗겼으니
 물어보자 동포여!
 가슴꺼지는 한숨으로
 이 강 건너 이방의 거친 땅에
 거지의 서러운 첫걸음 옮기던 그날-
 그날부터 몇몇해 지났느뇨?
 강우에 밤안개 젖은 안개 떠돈다-
 이 강 넘은 백성의 한숨이나 아닌가
 물줄기는 솟아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이 강 넘은 백성의 눈물이나 아닌가
 오오-압록강! 압록강!
 허나 오늘밤엔 그대 날뛰라
 격랑을 일으켜
 황-황- 강산을 울리라
 이 나라의 빨찌산들이
 해방전의 불길을 뿌리려
 그대를 넘어왔다-
 애국의 심장을 태워 앞길 밝히며
 의지를 갈아 창검으로 높이 들고
 이 나라의 렬사들이
 조국땅에 넘어섰다
 압록강! 압록강!
 격랑을 치여들고
 황-황- 강산을 울리라!
 거창한 가슴을 한껏 들먹이며
 와-와- 격전을 부르짖으랴!

4

콜짜기에 끼여누운 H 시에
 밤 열시...
 고로에 먼지 찬 하루나절 지났다고
 시민들도 잠자리에 들고
 서로 다투고 서로 속이던
 가가들도 문 걸어닫고
 늦도록 료리집에서 야지리지던
 매춘부의 웃음도 끊어지고
 소경의 굶아빠진 눈자위같이
 그 창문도 어둑해지고
 거리를 휩쓸며
 《구사쁘요이또또》 부르던놈도
 이층집 문을 차며
 《요보야로!》 욕하다 들어가버리고...
 밤 열시...
 영림창 뒤통
 빈민굴 어느 구석에선가

폐목에 치여죽었다는 사나이들
 거적에 싸서 방구석에 놓고
 온 저녁 목놓아울던 너인의 사설도 끊치고
 오뉴월 복어인양 벌거숭이애들
 뼈만 남은 젊은이들
 꼬부라진 늙은이들-
 모두다 웅크리고 노그라져
 쿨-쿨- 잡들어버린
 밤 열시...

5

밤 열시
 거리엔 인적이 끊치고
 전등만 누렇게 흐르고-
 주채소 교변순사도
 꺼덕꺼덕 조을고있을 때
 어디선가 남녀 두사람
 주채소 문간에 나타났다-
 너인은 사나이를 끌고
 사나이는 너인에게 끌리우고
 《이연석 들어가자!》
 너인의 짜증내는 소리
 《하... 어... 찌... 라... 고...》
 사나이의 허까부라진 소리
 《웬일이야!》 순사 골낸다
 들어선 남녀를 흘기며
 《나리님 저놈이 술값을...》
 《허... 내 우스워서...
 허허허...나리님두 우습지?》
 《이놈 어딘줄 알고 웃어?
 내앞에서 감히 웃어?》
 순사 단결음에 다가서며
 주먹을 쳐들자
 그놈의 가슴에 총부리 대인다
 소리도 못치고 두눈 뒤집고
 순사 방구석에 까무러칠제
 너인은(그는 술개팔 꽃분이)
 전신줄을 끊고
 사나이는(그는 정치공작원 철호)
 문 열고 손짓한다
 문 열고 손짓하자-
 바로 곁에서 신호의 총성
 잠든 시가를 깨뜨린다
 그담 련이어 나는 총소리 총소리...
 우편국에서도 총소리
 은행에서도 영림창에서도
 어지러운 점선을 그으는
 따-따-따-따- 기관총소리
 쿵~쿵- 폭탄치는 소리!

6

적은 반항도 못하고
 죽고 도망치고
 류치장 지붕에선
 삼단같은 불길이 일어난다
 이곳저곳 관사에서도
 왜놈들 집에서
 반역자들 집에서
 불길이 일어난다
 캄캄한 하늘을 산산이 옥물어찢어
 쪼박쪼박 태워버리며
 불길이 일더니
 만세소리 터진다
 침에는 몇곳에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늘리우고 짓밟힌 이 거리에
 반항의 함성 뒤울리거니
 암담한 이 거리에 투쟁의 불길 세차거니
 흰옷 입은 무리 쏟아나온다-
 머리벗은 로인도 발벗은 너인도
 벌거숭이애들도
 절망이 잦아든 이 거리에
 별천지의 화원인양 화해에
 불꽃이 나뭇기고
 재생의 열망을 휘꺾어올리며
 화광이 춤추는데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
 높이 올라서 칼 쥔고 웨치는 김대장-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쑤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만세소리 집도 거리도 떨치고
 화염을 따라 오르고올라
 이 나라의 컴컴한 야공을
 뒤흔든다 뒤울린다!

7

휘황한 불빛이 온 거리에 차흐르는데
 떨어지는 불꽃을 밟으며
 혁명가 드높이 부르며
 빨찌산부대 거리를 떠난다
 그들을 전송하는 이고장 사람들-
 기막힌 이 거리에
 한줄기 생의 빛 가져왔으니
 《잘 가라 영웅들이여
 어느때나 승리하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면

또 검은 거리, 눈물의 거리
 그러기에 울음으로 전송하누나-
 《잘 가라 영웅들이여
 언제나 다시 만나리!》
 뺨에서 흐르는 눈물
 불빛에 피방울인듯
 허지만 빨찌산들의 부르짖음-
 《잘 있으라 동포여
 싸우라 동포여!
 우리 다시 만나자
 해방연에 독립연에 다시 만나자!》
 휘황한 불빛에 싸워
 빨찌산들이 어둠을 직차며 뚫으며
 처억처억 앞으로 나간다
 싸움의 길로-
 처억-
 처억-
 처억-

제 7 장

1

밤은 밑바닥도 없이 깊어가는데
 높은 산 깊은 골 지나
 빨찌산들이 압록에 이르다
 뜻깊고 한많은 이 물결을
 빨찌산들이 또다시 건느려다
 그러나 이 길은
 가슴터지는 추방의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 복수의 길-
 허기에 압록도 기쁘게 중얼거리며
 뽕목을 몰아 강가에 불이고는
 밤을 헤치며 늑실늑실
 대해로 흘러흐르누나
 빨찌산들이
 뽕목다리 놓으려 할제
 어디선가 총소리, 불의의 총소리
 산비탈 어둠속에서
 미친듯 짙는 기관총소리-
 이것은 《토벌대》의 추격!
 앞에는 밤안개 자욱한 대하
 뒤에는 적군-
 《포위?》 《포위!》- 번개치는 생각-
 누군지 왈각 물에 뛰어든다
 또 누군지 뛰어든다
 《땅-땅-》
 번쩍 싸창을 드는 김대장-
 《명령을 들으라!》
 아무 기적도 안내는 변절자 두놈-
 어둠과 물결은
 수지의 두 시체 삼켜버렸다

2

철호를 후위대장으로 삼고
 전군은 항전을 베풀어
 반격전이 밤을 달구는데
 한 분대 데리고
 뽕목에 뛰어오른 김대장!
 탄환은 죽음의 비명을 지르며
 물결우에 여기저기 박히는데
 하나씩-둘씩
 뽕목을 이어놓는 김대장!
 결사의 몇분이 지나자
 뽕목이 건너간다
 구원의 저편으로 뽕목이 건너간다
 후위대를 방패로 삼아
 안개속에 본대 강 건넌을제
 적은 머리들어
 어두운 산비탈은
 억척한 분화구같이 철화를 내어뿜는데
 본대 내리우는 탄막에 숨어
 퇴진하는 후위대의 마지막 전사-
 그는 철호!
 그의 옆엔 최석준-
 사격하며 뽕목에 오른다
 바로 그때-
 철호 말없이 넘어진다
 어디선가 뽕-엥(철호의 생각)
 《무슨 소리 나는가?
 왜 이리도 어두워지는가?》
 철호 그만 정신 잃는다...
 ...

3

몇보앞 안개속에서
 발악의 돌격소리 날제
 철호 다시 정신차리고
 온 삶을 한팔에 쏙겨
 수류탄을 뿌린다-
 팡-놈들의 아우성...
 또 뿌린다
 팡-놈들의 아우성...
 폭발에 끊어진 뽕목
 쭈욱 량편으로 갈라진다
 그제야 철호 석준이를 보았다-
 부러진 총가목을 틀어진채
 뽕목우에 쓰러진 석준이를...
 그옆엔 뒤어진 왜놈들의 시체
 철호 마지막 힘 다잡고서
 석준이를 안고 일어선다-
 몇걸음 앞으로...
 그만 거꾸러진다

또다시 일어났을 때도
전우의 시체 안고
몇걸음 앞으로...
서슴없이 내걸는다
허다가 철호 그만 우뚝 선다-
불의의 류란이
전사의 심장을 꿰었다...
《아하!》 우뚝 섰다가
앞으로 거꾸러져...
창- 처절씩-
물결이 두 전사를 감춘다
압록강 찬 물결이...

4

실망한 적도
머스히 사격을 멈추고
폐목도 강가에 불을무렵
강변에서 너자의 부르는 소리
《철-호- 석-준-이-》
꽃분의 목소리였다
《철-호- 철-호-》
분명히 김대장의 목소리
하나... 대답은 없었다
물결만 분풀이하듯이
폐목을 창-창- 걷어차며
날뛰다 몸부림친다
《철-호- 석-준-이-》
처녀의 애타는 부르짖음
그래도... 대답은 없었다...
압록강만 한가슴 두드리며
어둠속에서
황- 처절씩- 황-

5

산마루 바위에 선 빨찌산들-
김대장이 서고
순선이도 서고
꽃분이도 서고
전사들도 모두 서고...
누구누구 이 대렬에 없느냐?
누구의 자리 비었느냐?
철호 없었다!
석준이 없었다!
《토벌대》의 총소리 은은한
컴컴한 조국땅을
분노에 타는 두눈으로
빨찌산들이 바라본다
《동무들!》
김대장의 떨리는 목소리-
《몇몇해 우리 이방에서 싸우다가

새도 날뜰 없는 수비망을 무찌르고
오늘밤 조국땅에서
원썹을 우리 족쳤다
피마르는 동포에게
살고있는 이 나라의 기개를
우리 떳떳이 보였다
그러나 동무들!
적은 아직도 강하다
때문에 우리 오늘밤
압록강을 두번다시 건너게 되었고
우리의 전우들을
철호와 석준이를
시체도 못찾고
한많은 이 압록강 물결에
영영 묻게 되지 않았는가?》
김대장의 목메인 말끝
누군지 주먹으로 눈물 씻는다
꽃분이 느껴우는 소리...

6

《그러나 동무들!》
대장의 말소리 강철을 울린다
《우리 비록
작은 거리를 쳤지만
그 거리에 일으킨 불길은
죽어가는 민족의 가슴에
투쟁의 불꽃을 떨구었다!
우리 비록
오늘은 한 거리를 치고 가지만
우리 기어코 오리라!
조선아! 조선아!》
김대장이 맹세의 칼 높이 든다
전사들도 삼대같이 총을 든다
《조선아! 우리 오리라!
인민이 살아있거든
우리의 힘은 크다!
또 우리뿐이 아니다!
피압박민족의 구호자
쏘련이 세기의 앞장에 섰고
우주에 새 룰리 세우니
정의의 검이
침략의 목우에 내려지리라!
불의를 소탕하리라!
우리 애국의 기개를 살려
해방투쟁의 불길을 높이리라
빨찌산들아!
결사의 혈전을 위하여
사격-》
레총소리 산하를 떨친다
《빨찌산들아!
우리 선렬의 령을 위하여

사격-》
 례총소리 산하를 떨친다
 《조선아! 조선아!
 너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너의 민주 행복을 위하여
 사격 사격-》
 례총소리 산하를 떨친다!
 삼천리를 떨친다!

맺음시

동방의 즐기즐거를
 선죽인양 한줄에 걸어쥐고
 만리창공에 백발을 휘날리며
 아득한 태고로부터
 이 나라 풍상의 나날을 날날이 곱어
 천산성악아, 백두산아!
 오늘은 이 땅에 날이 밝아
 오늘은 너의 천지에 채운이 서리우고
 오늘은 너의 머리우에
 창창한 대공이 열렸거니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
 어떻게 떨어졌던 태양이
 이 나라에 솟았느냐?
 떨어졌던 태양이 다시 솟는 그때
 네 누구를 맞이했느냐?

×

세기의 백발을 휘날리며
 백두산은 대답한다
 《여봐라!
 내 말하노니 들으라!
 두만강 물결이
 포격에 솟아 구름을 헤치고
 준령에 올라선 항일빨찌산-
 치명의 철화를 왜적에게 내뿜을 때
 떨어졌던 태양이
 이 나라에 다시 솟았다!
 내 머리 황홀한 흰빛에 휩싸이고
 내 가슴속 갈피에서
 푸른 기류 회오리쳐일제
 내 그때-
 동서에서 침략을 뒤부신
 온 누리에 빛을 준
 포연탄우를 지나온
 쏘베트군대를 맞이했다
 내 그때
 이 나라 백성이 그렇게 그리던
 나의 참된 아들-
 나의 량심이고 나의 의지인
 나의 신념이고 나의 희망인

나의 빨찌산
 김대장을 맞이했다
 순선이도 꽃분이도 맞이했다
 내 그때-
 골짜기와 골짜기, 집과 집
 거리와 거리, 광장과 광장들이
 서로 얹히고 뭉치며 부들켜안고
 뛰고 춤추고 울고 노래부를제
 자유의 기발, 만세소리, 환호소리로
 넘치는 감격, 타오르는 애국의 백열로
 하이얀 바다같이 뒤끓어흐를제
 나도 만고에 없은 큰 숨으로
 놀리웠던 허파에 대기를 한껏 들이그어
 이 땅의 해방을 부르짖었다!
 나의 영생을 부르짖었다!》

×

그러면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
 오늘은 무엇을 보느냐 ?
 오늘은 누구를 보느냐 ?
 세기의 백발을 휘날리며
 백두산은 대답한다-
 《오늘은
 무력무력 굴복에서 솟는
 창조의 타는 로력을 본다
 풍작에 우거진 자유의 전야를 본다
 력사의 대로에 거세게 올라선
 비약의 나래를 펼친
 민주의 복조선을 본다
 오늘은
 독립의 터를 닦는 인민을 본다
 민전의 선두에 선 김대장을 본다
 천선의 정성이 어엿한
 쏘베트의 손길을 본다
 오늘은
 푸른 리념을 함빡 건어안고
 빛나는 민주 미래를 받들며
 자라자라나는 인민의 바위-
 모란봉을 본다!
 또 저 삼각산밑에서
 반동의 무리 뒤엎겨 옥썰거리어도
 테로의 미친 눈이 백주에 희번덕이여도
 민전의 싱싱한 웨침에
 남산 송백도 더 푸르려 빛나는것을
 내 오늘 력력히 본다!》

×

백두산은 이렇게 말하면서
 의분을 못참는듯

장군봉에서 한줄기 회오리바람을 휘잡아들어
 채광이 어린 천지에 내려뿌린다
 허자 천지는 한가슴을 뒤집어내치며
 하늘을 삼킬듯 격파를 일으켜
 바위를 치며 절벽을 들부신다!
 천심을 울린다 지축을 떨친다!
 세기의 백발을 추켜들고
 북으로 찬란한 우랄산을 바라보며
 곤륜산 히마라야산넘에
 인생의 중국도 살펴보며
 증오에 찬 추상을
 태평양 거친 물과 부사산에 던지며
 백두는 웨친다-
 《너, 세계야 들으리!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리라!
 내 천만년 깎아세운 철벽의 의지로

내 세세로 모은 힘 가다듬어
 온갖 불의를 죽쳐부시고
 내 나라를
 민주의 나라를 세우리라!
 내 뿌리와 같이 깊으게
 내 바위와 같이 튼튼케
 내 절정과 같이 높으게
 내 천지와 같이 빛나게
 세우리라-
 자유의 나라!
 독립의 나라!
 인민의 나라!》
 백두산은 이렇게 웨친다!
 백성은 이렇게 웨친다!

-끝-

장군님께서 아신단다

리영희

어서 교문으로 들어서라
 웃음꽃 함뿔 날리는 아이들아
 아버지장군님께서 그 이름 달아주신
 《문정환고등학교》
 첫 신입생들아

아직은 너희들 다는 모르리
 축복속에 들어서는 이 교문이며
 이제 마주하게 될 책걸상들에
 동지 위해 청춘을 바친
 영웅의 어떤 숨결이 흐르는줄

누구도 다는 몰랐단다
 고향의 어머니도
 모교의 스승들도
 다는 알수 없었던 영웅의 속깊은 마음
 아버지장군님께서만 먼저 알고계시었던다

아, 총포소리 없는 오늘날에
 우리 정환이가 잘 싸웠다고
 동지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군인이라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오래도록 창밖을 내다보신 **김정일** 장군님

남을 위해 자신을 다 바쳐가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피워낸 꽃이어서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내 조국의 참모습이어서
 그 이름 온 나라가 다 알라고
 그처럼 모두가 빛나게 살라고
 90년대에 빛나는 금별의 영웅으로
 시대와 조국 앞에 내세워주셨거니

영웅의 그 넋을 가슴마다 안고
 장군님만을 해님처럼 따라 피여날 꽃송이들아
 하늘땅 뒤집히고 열백번 변해도
 장군님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길에서
 우리모두 영웅이 되자, 위훈을 수놓아가자

어서 가슴펴고 들어서라
 활개치며 걷는 걸음걸음
 영웅의 고결한 넋을 이어갈
 맹세다지는 아이들아
 너희들 모습은 서로 달라도
 하나같이 문정환영웅으로 보이는구나

아, 대순에서 대가 나오듯
 영웅의 학교에서
 너희들과 함께
 수백수천의 영웅이 자라리라는것을
 장군님께서 믿고계신단다
 벌써 다 알고계신단다!

(함주군 동원고등학교 교원)

주체의 화신

아이자이아 쿼오 모리슨

주체위업의 계승자

김정일 원수

당신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화신이지여라

가장 존귀하신

김정일 원수

당신은 우리 모두의
운명의 총체이지여라

혁명의 길우에서

당신은

위대한 령도자

향도자

위대한 철학가지시여라

일심단결을 이룩하신분

당신은 우리의 억센 기둥

우리 당신께 운명을 의탁하기에

결코 넘어지지 않노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지여

사회정치적진보를 이룩하신분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절대로 주저하지 않노라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노라

위대한 사상리론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조국통일을 위한 10대강령과

민족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비결의 열쇠

당신은 높이 드시였어라

당신의 고귀한 품모

당신의 빛나는 예지

우리의 힘과 용기 되고

우리의 지친 걸음

억세게 떠밀어주시였어라

우리 배고플 때

당신은 량식을 주시고

시련의 바람 불어올 때면

당신은 방패되어 막아주시였어라

당신은 로련한 선장되시여

우리의 함선을 암초에서 구원해주시였어라

우리의 영명한 향도성

아 **김정일** 원수

당신은 주체의 위대한 화신이지여라

(필자는 가나시민임)

그 말씀 명심하리

프레드 아그보블리

우리의 위대한 스승 **김정일** 동지

당신의 말씀 예지로 빛나네

극악한 일제놈들에게 공포를 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분

가렬한 항일전의 총소리를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시였어라

당신은 조선의 위대한 아들

만민의 존경을 받으시는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

과학적혁명리론으로 체계화하시였어라

당신은 언제나 우리의 위대한 스승

생활의 지침 삶의 밝은 진리로

언제나 우리 앞길 밝혀주는

당신의 고귀한 사상 우리 따르네

당신은 위대한 정치가

다른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여도

인간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꽃피우신분

당신은 위대한 건축가

당신의 손길아래 조선은 천지개벽 이룩했네

대기념비적건축물을 자랑하는 나라로

광복거리와 통일거리 빛나는

평양은 세계혁명의 수도로 되었나니

아 조선은 진정 인민의 낙원이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원수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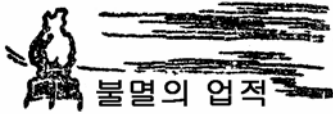
당신은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당신의 고귀한 말씀은 우리의 지침

그 말씀 명심하고 우리 싸워나가리

(필자는 가나혁명수호위원회 아크라시

7구역 비서임)



현실체험을 깊이하고 창작하도록 이끄시여

최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시고 현실체험을 깊이하고 창작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들어가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가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전진운동과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세계를 뜨겁게 느낄수 있으며 그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찾아내어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습니다.》

현실체험을 깊이있게 하고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문제는 지난 기간 그이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가르쳐주신것으로서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더없이 귀중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깊이하지 않고 시를 창작하다보니 허공에 뜬 작품들이 나오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시인들이 시를 창작하는 경우에도 시대를 외면하고 허공에 뜬 시를 쓰는 현상이 적지 않다고 하시면서 작가들이 표현을 하나 해도 인민적이고 진실한 표현을 할대신 《태양》이요 《하늘》이 요 하는것과 같은것을 망탕 쓰고있는데 이런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문학작품은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담아야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똑똑히 인식시키고 참다운 삶과 투쟁의 길을 가르쳐줄수 있다. 때문에 창작가들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을 쓰기 위하여서는 표현 하나를 하여도 생활적이고 알맞는 어휘를 얻어내어 하여야 한다.

그런데 창작된 일부 시, 가사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어떤 시, 가사들은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없이 추상적으로 반영하고있었다. 그런 가사들이 노래로 되어 불리워지거나 시로 되어 읊어진다면 근로자들은 매우 실망할것이다.

시나 가사는 함축된 형상속에 심오한 사상을 담아야 한다. 작품의 사상이 생활에 바탕을 두고 생활속에서 흘러나와야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생활과 동떨어져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생활이 있어야 예술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깊이 알고 풍부하게 그려야 작품의 철학적 깊이가 보장될수 있다. 이처럼 창작작품에 사람들

의 보람찬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하는 문제는 더없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전호숙의 나의 노래》를 비롯하여 좋은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었다고 하시면서 《전호숙의 나의 노래》 가사에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생동하고 생활적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전시가요 《전호숙의 나의 노래》를 비롯하여 많은 노래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담고있는것들이었다. 이 노래들에는 현란한 시어도 없고 요란한 수식사도 없지만 사랑하는 조국과 생활에 대한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조국해방전쟁의 포연이 가셔진지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런 노래들을 잊지 않고 즐겨부르며 거기에서 삶에 대한 희열과 투쟁에 대한 신심을 얻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노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와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도 좋은 노래들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노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가 좋기때문에 자신께서는 이 노래를 자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었다.

노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가 이처럼 높이 평가된것도 이 노래가 소박하고 진실한 생활적언어로 당과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군대의 고상한 사상감정을 생동한 현실과의 유기적연관속에서 진실하고 깊이있게 노래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작가들이 현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를뿐아니라 생활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기때문에 허공에 뜬 빈소리밖에 할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생활에 발을 붙이지 못한 추상성은 죽음과 같다고 지적하시었다.

작가의 창작적재능도 결국 현실에 대한 다방면적이며 심도있고 폭넓은 체험과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축적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재능이 있어보이던 적지 않은 작가들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창작적재능이 꽃피지 않고 이렇다할 작품을 써내지 못하는것은 중요하게 현실과

떨어져 책상머리에 앉아서 순수 탁상문학을 하는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생활과 현실을 떠난 작가는 창작적로쇠가 일찍 오며 열정도 식어지고 환상이 나래치지 않으며 재능도 무디게 되는 법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만 보아도 시인들과 작곡가들은 전선과 후방에서 뜨거운 열정을 안고 심장을 불태우며 가사를 쓰고 곡을 지었기 때문에 《전호숙의 나의 노래》, 《샘물터에서》, 《아무도 몰라》를 비롯한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명가사, 명곡들이 수많이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일부 시인들과 작곡가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면 서 그들을 위한 가사와 음악을 창작하겠다는 자세와 립장을 바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보니 진실로 생활적이며 통속적인 대중가요를 많이 창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서 생활감정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반영한 생활적인 대중가요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필요하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은 로동속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현실을 깊이 파악하고 좋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만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히 리해할 수 있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충성심과 그들의 념원과 지향, 불굴의 의지를 깊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탁상우에서는 배울 수 없고 익힐 수도 없는 다방면적인 새롭고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실로 현실이야말로 작가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풍만하게 꽃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인 것이다.

들끓는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민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인간생활과 생활현상을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을 말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 인민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정확히 알고 느끼며 새롭고 보다 의의있는 문제를 찾아내어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보내는 하루가 아쉬운것은

조영식

날마다 출퇴근길 오갈 때마다
정겹게 바라보는 조선컴퓨터센터
류다른 보호색유리집이 자랑스럽구나

이 세상 행복의 전부를
여기서 다 받아안은 그날이 있어
생각만해도 아, 생각만해도
가슴뭉클 젖어드는 저 집

저기 보이는 긴 계단
정문앞 등성이 포석길우엔
나를 앞세우고 걸으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발자욱 력력하고

천리혜안의 예지로
천하를 굽어보시는 지략으로

문명의 새 력사 펼쳐주신 그이

언제나 내 가슴 깊은곳엔
행복으로 솟구치던 그날의 눈물
일군으로 키워주신 감사의 눈물
보답의 맹세 되어 샘처럼 고여있나니

한밤을 천밤으로 새우면
그 은혜 다 갚고
하루를 백날로 일하면
이 전사의 삶을 빛낼수 있을것인가

아,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
어려울 때에도 새 힘이 솟아
즐기찬 생활의 하루하루도
아쉬운 순간처럼 여겨지는 마음이어라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불멸의 서사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두고-

방연승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해방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창작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혁명시인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해방후 수령형상문학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작품으로 오늘도 그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백두산의 위인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위대성과 조국광복의 업적, 백두의 혈통을 이룩하신 업적을 영웅서사시적화폭으로 빛나게 전개하여 노래하고있다. 작품은 이것으로 하여 겨레와 인민에게 **김일성** 민족성원된 궁지와 자부심, 또 한분의 백두위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드팀없이 관철하고야말 투지를 가다듬게 하고있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것처럼 해방후 수령형상 문학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획기적인 작용을 하였을뿐아니라 오늘도 다함없는 생명력을 힘있게 파시하고있는 사상예술적요인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대원수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의 일단을 새형의 우리 식 장편서사시로 빛나게 아로새김으로써 작품이 주체의 사상체계가 짙어찬 사상주제적 내용을 고도로 양양되고 승화된 시의 용융한 흐름으로 펼쳐보인 그 찬연한 위용과 커다란 감화력을 떨치고있는데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수령형상창작에서 보다 새로운 성과를 가져와야 할 목적으로부터 이 작품이 이룩한 높은 사상예술성에서 특징적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찾아보려고 한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사상예술적특성에서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서사시로 하여금 주체의 사상체계가 짙어찬 작품으로 되게 한 심원한 사상미학적구상을 세우고 창작발적으로 구현할수 있는 철학적이고도 참신한 종자를 심어놓는데 기초하여 문학적인 엷음새를 여

어낸것이다.

그것은 작품이 일본제국주의식민지 기반하에서 신음하는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피어린 투쟁을 벌리어 조국광복을 이룩해주신 은인은 누구이시며 해방된 나라를 인민을 위한 완전자주독립국가로 일떠세우고 무궁한 번영으로 이끌어주실 영명한 인민의 수령은 누구이신가 하는 심각하고도 절실한 초미의 물음을 제기하고 가슴 후련하고도 심원한 형상적해답을 준데서 확인할수 있다.

진정 겨레와 인민의 운명을 오랜 력사의 질곡과 비극적수난에서 구원하고 조선을 인민의 자주독립국가건설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운명의 종국적해결과 그 승리를 생각할수 없었다.

시인은 이것을 온 심신으로 체험하고 통감하고 체득하였다. 시인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확고한 신념으로 심어주며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백두의 위인으로서의 **김일성** 장군님의 위대성을 긍정하는것을 자기 작품의 사상미학적리상으로 삼고있다.

작품의 사상미학적리상과 그 실현에서 조종의 산 백두산과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에 관한 시인의 고도로 양양된 사상미학적미여부는 작품의 성과를 담보한 확고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백두산과 시인의 담화-그 주정적인 토로, 《보천보 해볼》과 그에 대한 주정적인 토로가 바로 다름아닌 작품의 종자를 형성하는 규정적인 핵으로 되고있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어려있어 백두산을 주체혁명의 《영원한 활화산》으로 보고 노래 한 여기에 서사시 《백두산》에서 터져나오는 용암과도 같은 사상미학적주장을 예술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시의 집약적인 상징과 승화를 보장한 사상미학적발견이 있다.

백두산에 대한 시인의 미감은 한갓 자연의 웅장함과 숭엄함에 대한 감수만이 아니다. 시인은 백두산을 우리 민족, 우리 인민과 그 유구한 력사의 상징으로, 체현자로, 목격자로 노래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것은 백두산을 주체적미감의 견지에서 보고 노래하고있는것이며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의 위대성과 백두산의 위용을 밀착관계에서 그리고있는것이다.

혁명의 수령으로서의 **김일성** 장군님의 위대성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항일혁명전통, 조국광복의
업적과 결합됨으로써만 조선의 백두산이 비로소
누리에 빛을 뿌리며 자기의 위용을 펼칠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여기에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지
향과의 관계속에서 미를 감수하는 시인의 미관의
참다운 본질이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을 인민의 태양으로 모
신 궁지와 자랑을 떠나 백두산의 위용을 자랑떨
칠수 있게 하는 영원한 광원을 생각할수 없다고
보고 노래하는 여기에 주체성과의 관계속에서 대
상에 대한 정서를 느끼는 시인의 미감의 참다운
인민적 본질이 있다.

이것으로 하여 시인은 백두산의 숭엄하고 장엄한
형상과의 밀착관계속에서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
을 백두산의 위인으로, 백두산의 천출명장으로
인상깊게 노래할수 있었으며 백두산을 주체혁명의
시원을 상징하는 성산으로 격동적으로 노래할
수 있었으며 주체의 위대한 태양을 모신 조선의
궁지와 자랑을 의인화된 백두산의 주정으로 누리
를 향하여 장엄하게 선언할수 있었다.

그것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만고의 영웅이시
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이름만 들
어도》 《삼도왜적이 치며는》 《백두산 호랑이》
로, 《백두산 두메에서 우러러 떠드는》 백두의
주인공으로 칭송하며 노래하고있는데서 알수 있
다.

또한 확대받고 억압받던 겨레의 가슴에 자주의
넋과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그들을 혁명의 주
체로 이끌어나가는 무장투쟁과 지하정치조직사업
을 끊임없이 벌려 마침내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김일성 장군님을 두고 조종의 산 백두산과 시인이
나누는 담화가 그것을 말하여준다. 말하자면 장
편서사시의 극적이면서도 간결하며 중점적이면서
도 세부적인 얹음새와 그 대하의 흐름을 타고 분
출하는 머리시와 맺음시의 주정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
어떻게 떨어졌던 태양이
이 나라에 솟았느냐?
떨어졌던 태양이 다시 솟는 그때
네 누구를 맞이했느냐?
...
《...
내 그때
이 나라 백성이 그렇게 그리던
나의 참된 아들-
나의 랑심이고 나의 의지인
나의 신념이고 나의 희망인
나의 빨찌산
김대장을 맞이했다
...》

(맺음시에서)

백두산의 위인이신 **김일성** 장군님이 바로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우러러 흠모하며 받드는 인민의
생명의 모체-랑심, 의지, 신념, 희망-즉 생명의
원천인것으로 하여 오직 **김일성** 장군님의 존함을
떠나서 우리 겨레와 인민의 궁지의 자부심, 행복
과 번영을 생각할수 없다. 진정 위대한 존함을
떠나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자주시대를 불러온
세기의 령마루에 솟아올라 세계만방에 자주정신
의 광망을 뿌리는 인민조선으로 빛나는것을 생각
할수 없다. 이것이 서사시 《백두산》의 뜻깊은
철학적인 사상을 관통하는 주정이며 그 분출이
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지핀 혁명의 불길, 원썩왜
놈들의 머리우에 불을 지른 치솟는 혁명의 불길
은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로선과 서강회의결정을
구현한 주체의 화불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피신 보천보의 불길은 숨
막히는 암흑천지에서 신음하는 인민에게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된 자각
을 가지고 손에다 무장을 들고 싸우는 항일유격
대를 따라 일떠서 일제침략자들과 필사적으로 싸
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깨우쳐주는 주
체적인 혁명투쟁의 화불이었으며 일제의 불가피
한 멸망상과 반드시 도래할 광복된 조선의 멀지
않은 앞날을 내다보게 하는 승리의 화불이었다.
보천보의 화불속에 알맹이져있는 서사시 《백두
산》의 이 종자는 작품의 사상예술적구상과 사상
미학적리상을 뜻깊고 참신하게 펼쳐보이는 생활
의 사상적알맹이로서 서사시의 문학적인 대를 형
성하여 작품의 중추적인 얹음새를 담보하는 바탕
으로 되고있다.

철호의 국내공작에로의 파견, 술개골에서의 두
번에 걸치는 지하공작과 철수작전만이 보천보전
투에 직접 이어지는 선행된 사슬과 매듭으로만
되고 있는것이 아니다. 홍산골전투, 사령부 우등
불가의 밤장면, 소사건 등 사령관동지를 직접 모
신 선은 보천보의 전투를 보여주는 얹음새의 조
직에서 사령관동지의 령도를 보여주는 철호선보
다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맞물리
게 된다.

보천보전투를 위한 철호선이 보천보전투의 준
비과정을 사건적으로 물리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
면 홍산골전투, 우등불가장면, 소사건 등 장군님
을 직접 모신 선은 어떤 간고하고도 엄중한 투쟁
로정을 거쳐 보천보전투가 준비되고 실현되었는
가 하는 력사적로정과 그 필연성을 보여주며 뜻
깊은 사상적알맹이를 전제와 축적이 있게 부각하
는 측면이 더 강하다. 홍산골전투는 단순한 전투
가 아니 다. 그것은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로선, 력
사적인 서강회의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솔부
대를 국경연안 장백일대로 진출시키고 대부대
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준비를 위하여 유인매복전

을 벌림으로써 국내공작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혁명의 사령부를 찾아 날뛰는 적들을 혼비백산케 만드는 신출귀몰한 전투를 수없이 벌리신 사령관동지의 전략전술적의도를 통쾌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전투이다.

사령관동지께서 숙영의 밤에 책을 보시며 국내 공작원소식과 식량공작나간 전사들을 기다리시기도 하시며 새로운 작전적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우등불가장면, 소사건 등 이 모은것은 **《이민위천》**의 정치리념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며 대원들을 상하일치, 군민일치 사상으로 교양하시는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극성이 넘치게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 장면들도 기본사건인 보천보전투와 무관계한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주체사상과 **《이민위천》**의 정치리념으로 무장시키며 친부모형제간의 혈연적 관계를 이루는 군민일치, 상하일치 사상으로 끊임없이 교양함으로써 무장대오가 필승불패의 대오로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지는 모습과 조선인민혁명군의 성격과 사명을 뚜렷이 부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경에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 로선과 서강회의방침의 빛나는 구현인 보천보전투의 대승리를 보여줄수 있었던것이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적구상과 미학적리상, 종자는 더 말할것 없고 그 실현을 담보하는 기초적인 문학적이야기, 읽음새조직을 보아도 모두 한결같이 주체사상체계로 짝 찬 형상적인것으로 빛나고있다. 여기에 우리가 서사시 **《백두산》**의 사상에술적성과에서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경험의 하나가 있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사상에술적특성에서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것은 다음으로 서사시로 하여금 주체의 사상체계가 짝 들어찬 작품으로 되게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을 다면적이면서도 바탕적인 면모가 살아나게 감명깊게 그리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성격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으로서의 위대성을 사상리론의 영재, 혁명의 영재로서의 위대성과 밀착시켜 그림으로써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의 태양, 인민의 수령으로서의 그이의 위대성을 깊이 그리고있는것이다.

서사시의 제 1 장 서두에 나오는 홍산골전투장면은 얼마나 극적이고 통쾌한것인가. 우리는 고도로 집약되고 간결하고 선명한 이 시적화폭을 통하여 조국광복을 위하여 바치신 **김일성**장군님의 담대한 지략과 탁월한 령군술을 한눈에 보게 되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인상깊은 생활화폭으로 간직하게 된다.

보천보전투장면에서의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도 이것을 뜻깊게 확인할수 있다.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감쪽같이 뚫고 대부대를 이끄시고 국내의 요충지 보천보에 진출하시어

적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준 백두의 위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형상을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 강철의 령장으로 극성이 넘치게 그리고있을뿐아니라 겨레와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힘, 조국광복의 힘-제 힘을 믿고 일어나 원수와 필사적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혁명의 위대한 정치적수령으로 감동깊게 그리고있다. 서사시가 절정에 치달으며 폭발적인 감명을 조성하면서 시적으로 승화되게 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유명한 력사적인 연설을 시화한 빛나는 화폭을 상기하면 누구나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백두의 위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신 공지와 자부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슴뜨겁게 간직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주체사상, **《이민위천》**의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무장투쟁에 구현해나가는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을 극성이 넘치는 시로 감명깊게 체험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성격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다음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을 그이의 위대한 인간성과의 밀착관계속에서 그림으로써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 지켜주시는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위대한 덕성을 그이의 모든 위대성의 근본바탕으로 인상깊게 그리고있는것이다.

대원들이 깊은 잠에 든 숙영의 밤에도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운명을 한품에 안으시고 조국광복의 위대한 작전적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새날을 맞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 군민관계를 해친 소사건을 두고 자타가 **《총살》**감이라고 자인하고 가슴조이는 팽팽한 긴장, 폭풍우전의 침묵을 깨뜨리며 **《임자를 찾아 소값을 주라!》**고 명령하고 돌아서시는 사령관동지의 눈물겨웁게 우리르게 되는 그 자애로운 아버지 모습, 사랑하는 전사들의 영웅적희생을 두고 가슴 찢기는 아픔에 목메이시며 결사의 혈전으로 전대오를 불려 일으키시며 **《빨찌산들아! 우리 선렬의 령을 위하여 사격-》** 구령을 친히 내리시는 정치적생명의 아버지로서의 사령관동지의 다함없는 사랑의 모습, 이 모든 자애넘치신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의 위대한 화신으로서의 아버지모습은 참으로 잊을수 없는, 끝없는 충격을 자아낸다. 우리는 그 모든 화폭에서 사상과 령도의 위대한 영재로서의 모습을 볼뿐아니라 인민을 한품에 안아 그들에게 참된 생명력으로 되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백두의 위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성을 가슴뜨겁게 체험하게 된다.

바로 철호, 석준이, 영남이, 꽃분이의 실례에서 확인할수 있는바와 같이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령도하고 령도받는 관계만이 아닌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내리고 그에 보답하는 충성과 효성이 따르는 혈연적관계이다. 백두의 위인, 천출명장이시며 혁명의 자애로운 품

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과 혈육의 호상관계 속에서만이 수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참다운 항일혁명투사들이 생겨난다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준 여기에 또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성격형상창조에서 이룩한 서사시의 특징적인 성과의 하나가 있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사상에술적특성에서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것은 또한 이 작품이 주체의 사상체계가 짙 들어찬 작품의 내용에 맞게 수령을 형상한 장편서사시의 본보기형태로 가장 발전된 단계에 혁신적으로 올라서게 한것이다.

그러면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일반적으로는 사실주의적서사시발전에서, 특수적으로는 사실주의적영웅서사시발전에서 이룩한 혁신적인 사상에술적성과로 하여 형태상에 남긴 새로운 독창적인 흔적은 무엇이며 여기에서 특징적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내용과 형식의 모든 측면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우리 식 서사시로 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영웅서사시문학형태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문학 형태가 먼 과거에 기원을 두고 오랜 발전로정을 걸어왔으며 사회주의적문학발전의 단계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생활력을 가지고 발전하였으며 미래를 가진 문학형태로 널리 활용되었고 작가들과 평론가들의 주목을 끌어왔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단계에 와서 영웅서사시형태에 대한 몇가지 특징적인 징표가 하나의 정설처럼 설정되어 되풀이되어왔다.

그것을 보면 세가지 특징적인 징표로 말할수 있다. 그 하나가 현대영웅서사시 창조자들이 대상을 인민대중의 묘사시점으로 보고 다룬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력사발전의 견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과거를 취급한다는것이며 또 하나는 찬미가의 주되는 대상은 다름아닌 인민이며 그의 영웅적인물이라는것이다. 그리고 영웅서사시는 보통 영웅적인물, 사건, 업적을 전민족적, 전인민적 감정으로 칭송하며 찬미하는 전개된 용적을 가진 서사시적문학형태로 간주하여왔다. 이런 기성견해와 그런 창작성과들과 대비하여보면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가장 현대적으로 발전된 우리 식 서사시형태의 혁신적개척을 의미하는 본보기로 빛난다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형태적모습에서 특징적인것은 찬미가의 주되는 대상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주체혁명위업을 이끄시는 인민의 최고뇌수이시며 생명의 모체, 령도와 단결의 중심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그 이를

우러러 따르며 받드는 인민대중과 주체형의 혁명투사들로 되고있는데 있다. 여기에선 주인공으로는 단순히 인민과 그의 개별적 영웅적 인물로 되고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맡아 안고 풀어나가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되고있

으며

인민과 영웅적인물도 수령의 품속에서 주체사상을 체득한 자주적인 인민, 주체형의 영웅으로 등장한다. 여기에선 또한 인민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그리는 주체에서도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수령이 이룩한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조국광복의 업적을 생활현상의 범위로 설정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현대와 미래의 만년초석의 주제로 질적으로 높이 올라서며 또한 인민적인 묘사시점도 자주적인 주체의 묘사시점으로 가장 발전된 경지로 제고되고 있다.

이것은 장편서사시로 하여금 인민의 수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는 문학형태로서 종전의 그 어떤 영웅서사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발전된 경지에 혁신적으로 올려세웠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동시에 인간관계에서도 종전의 영웅서사시와는 달리 질적으로 가장 발전된 인간관계-수령과 인민, 혁명전사들 사이의 혈연관계와 그 불패의 생활력을 주체의 묘사시점으로

그리며 칭송함으로써 자주적인 주체의 력사적운동의 본질,합법칙성을 폭넓고 깊이 밝히는 혁명적대작형태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말한다.

자주적인 주체의 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추동력과 합법칙성을 성격중심으로 밝히는 구조상특징을 가진 서사시문학형태로서 수령, 인민, 전사의 혈연적관계가 서사시적구조를 형성하는데서 기본 대를 이루는 특성을 나타내고있는 여기에 혁명적 수령관으로 관통되는 장편서사시다운 그 형태상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장편서사시다운 형태상 모습에서 나타내고있는 본질적인 특징의 또 하나는 시적묘사대상인 주체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노래하며 칭송하는 시인-설화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높아진것으로 하여, 특히 위대한 수령을 모신 고도로 양양된 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관통된 주정이 인물, 사건, 생활묘사에 맥맥히 굵이치게 함으로써 종전의 영웅서사시창작에서 나타내고있던 두가지 편향을 극복한 본보기를 실물로 보여준데 있다. 종전에 설화적인데로 기울 어지던 낡은 면모와 영웅적인물의 성격과 업적의 생활묘사를 홀시하고 주정화일면에 기울어지던 편향을 가진, 말하자면 수령의 위대한 형상과 주체형의 인간의 영웅적형상, 인민의 집단적영웅주의, 애국주의를 성격적으로 뚜렷한 표상이 떠오르게 부각하는 서사시적바탕과 성격묘사가 강하면서도 그 어느 종전의 영웅서사시보다 시대, 인간,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된 시문학형태로 된 데 있다. 이것은 백두산이 시인에 의하여 파악되고 창발적으로 실현된 필연성의 결실이다. 력사상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위대성, 세계사적업적, 혁명의 첫세대들에 대한 시인-설화자의 태도와 립장은 리상적인 찬미대상에 대한 매혹과 존경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혈연적의식

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수령의 위대성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기념비적성격형상으로 영원히 전하여야 할 자각된 책임감과 매혹된 그것에 대한 억제할수 없는 고도로 양양된 주정으로 직접 공감의 뉴대를 호소적으로 표명해야 할 불타는 충격으로 하여 서사성이 강하면서 동시에 서정성이 강한 장편서사시를 개척해야 하였다. 이것을 빛나는 본보기로 실현한 작품이 바로 장편서사시 《백두산》이다.

우리는 서사성과 서정성을 경탄할만큼 밀착시킴으로써 장편서사시의 형태상 본성에 맞게 그 위력을 비상이 강화한 탐구적인 성과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사성과 서정성의 바탕을 이루는 아주 극적이고도 중점적이며 아주 간결명백하면서도 격동적이며 극히 선이 굵고도 세부적인 문학적인 이야기, 아주 단출하면서도 탄력있는 얹음새를 엮어낸 높은 기교, 서사적인 묘사를 증시하면서도 그 서사적묘사가 성격중심의 화폭을 그려냄에 있어서 세부를 인상적으로 주며 반드시 주정이 짙은 필체로 꿰여지게 하며 인물과 시인의 주정이 터져나올 바탕과 계기로 전환되게 하는 시화의 묘리를 살리게 구사된 성공적인 경험 등에 깊은 주목을 돌리는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시인이 감정조직의 논리를 따르는 묘사시점으로 정황과 인물을 성격적으로 그려냄에 있어서 인물과 설화자의 주정을 보다 전면에 드러내는 서사시적묘사와 뜻깊은 주정적정서-서정성을 살리는것을 본성으로 하는 시화의 요구를 실천적으로 인식하고 창작발적으로 구현할줄 안 높은 기량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서사시적묘사와 관련하여 또한 영웅적본색을 다양한 색조와 음조의 교차와 교체속에서 변화와 조화를 보장하면서 뚜렷이 부각함으로써 서사시의 형상적위력을 강화하고있는 시인의 높은 솜씨에 대해서도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작품은 장편서사시의 형태상 본성에 맞게 영웅적이고 숭고한것이 주류를 이루게 하면서 영웅적인것의 헌신적이며 자기 희생적이며 락관적인 본질과 생활, 자체의 다양한 본색대로 아름다운것, 비극적인것, 낭만적인것을 안반침하고있다. 하여 작품은 기쁨과 눈물, 환희와 슬픔, 간고함과 필승의 락관, 장엄함과 처량함이 조화롭게 교차, 교체되기도 하며 마침내 영웅적이고 숭고하고 낭만적인것을 부각하는 하나의 거세찬 정서의 흐름과 음조를 이루어 정서의 립체적이며 복합적인 교향의 조화로움으로 넘실거리며 설레이는 시의 대양을 펼쳐보인다.

서사시적묘사와 관련하여 또한 극적으로 빨리 달리는 현대적속도감과 중점적으로 간략화하면서 세부화하는 원칙을 장편서사시의 형태상 본성에 맞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작품은 어느 한대목도 지루하고 처지는데가 없으며 격동적인 탄력성과

박력으로 거침없이 쭉 흐른다. 아마 이 서사시만큼 단숨에 읽을수 있는 서사시를 따로 찾아보기 어려울것이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보여준 장편서사시다운 형태상모습에서 찾아보는 또하나의 본질적인 특징은 우리 민족어의 풍부성과 우월성을 능란하게 구사하여 매우 독특하고 기발한 시적표현을 달성하며 전통적인 민족적운물에 튼튼히 의거하여 박력있고 류창한 시문장의 성음률을 표현성있게 살려냄으로써 작품의 감화력을 비상이 강화한데서 확인할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백두산》의 시인만큼 누구도 모방할수 없는 자기의 얼굴,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을 가지고 것처럼 독특하고 기발한 시적표현으로 만사람을 공감시키는 개성적인 문체를 가진 시인을 만나기 험치 않으며 《백두산》만큼 조화로운 성음률과 풍부한 서정성이 밀착되어 류창하고 박력있고 호방하게 흘러 만사람의 입에 쉽게 오르는 서사시가 없다는 것을 자인해야 할것이다.

이 모든것은 본작품이 주체의 사상체계로 짚찬 내용에 맞는 형식창조에서도 주체사상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한 뛰어난, 심원하고도 참신하고 격동적인 작품이라는것을 말한다. 여기에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에서 우리가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경험의 또하나가 있다.

내용과 형식의 모든면에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시인이 일찌기 반세기전에 내놓을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었던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주체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 조국광복을 안아오신 그이의 영원불멸한 업적과 한없는 고마움, 해방된 환희, 조선을 자주위업의 조국으로 되게 하여주시고 무궁한 번영으로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영재를 위대한 스승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신 가슴넘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불타는 충효일심과 다함없는 민족제일주의정신의 충격적인 열정에 있었던것이다. 여기에 끝까지 새것을 발견하고야말 투철한 요구성으로 일관된 탐구정신과 높고 활달한 기량이 결합될 때 어떤 희한한 창작결실이 이루어지는가를 《백두산》의 놀라운 성과가 보여주고있다. 진정 해외에서 백두산의 위인을 우러러 조선의 미래를 내다보며 광복의 날을 목마르게 그리다가 것처럼 호모하여마지 않던 해방의 은인, 태양의 품에 안겼기에 그는 자기의 한몸을 백두산의 혈통을 가진 겨레와 인민의 아들로서의 긍지와 자각으로 불태울수가 있었다.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으로 하여 백두산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타국살이를 하던 시인이였던 만큼 그는 조국땅에서 것처럼 그리던 백두산을 밟아보며 오직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존함과 련결된 백두산을 마침내 《혁명의 산》, 《혁명

의 활화산》으로 감수한 결과 그처럼 누리를 향하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을 모신 조선사람된 심장의 뿜어넘치는 주정을 백두산에서 터져나오는 용암과 같이 하늘에 닿게 내뿜을수 있었던것이 아닌가!

작품의 성과가 아무리 작가의 이름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 해도 작가의 정치적생명, 뜻과 지향을 영원히 살려주며 꽃피워주는것은 아니다. 작가와 작품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 없이는 작가도 작품도 자기의 뜻과 지향을 길이길이 꽃피울수는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시인 조기천은 생전에 삶의 행복과 가치를 한껏 맛보고 누리였으며 사후에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관심속에서 혁명시인이 되었으며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전체 인민이 애송하는 작품으로 되었다. 이것은 오직 백두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가며 인민의 수

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주체의 조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작가와 작품이 누리는 최대의 특전이다.

오늘 우리 당의 보호와 배려속에서 애독되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유훈대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갈 우리들에게 뜨거운 불씨를 안겨주고 있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수령형상문학의 실천적본보기로 삼고있는 우리 작가들은 그가 시인이건 소설가이건 그 누구이던 당의 영원한 동행자라면 또 한분의 백두위인의 위대성을 노래한

또한편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하루속히 써내야 할것이다. 이것은 겨레와 인민, 시대와 혁명의 요구이다. 이 요구를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고서야 그 어느 작가도 발편잠을 잘수 있을것인가. 이것이 이 평론의 호소이다.

아, 배고동소리

원석파

푸른 기슭은 환희로 설레이고
잠깐 향구는
가없이 트인 하늘아래
분주한 하루를 펼치는가

맑은 선창은 태양을 비쳐안고
마스트는 갈매기를 부르며
육중한 선체 거인의 모습인듯
배 떠난다 배 떠난다
조국의 큰 바다문을 나선다

가슴을 흔드는 배고동소리
먼 수평선을 우뢰처럼 가르며
공간을 넘어 시간을 지나
그 힘찬 여운의 끝은 어디
그 당당한 존엄의 한계는 또 어디

애도의 비곡
눈물이 강으로 흐르던 금수산의사당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에 무릎 꿇고
땀 새긴 옷소매를 열백번 적시던

우리 항해일군들

그이께서 간곡히 남기신
유훈을 심중에 새기며
온 바다가 꺼지게
자책의 가슴을 두드리던 랑심들

비통한 천길 응심에
충성의 새 맹세 해일처럼 바뀌안았거니
당중앙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저 같기 높은 파도를 헤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과 더불어
인민의 꽃피는 삶과 더불어
충성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리리니

력사의 단상위에 높이 오르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 승엄히 드신 손길
저 넓은 대양도 거느리시지 않는가
승리의 항로를
5대양에 이으시지 않는가

길이 빛나라, 보천보!

최성진

조선에서 태어나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치고 보천보를 모르는이는 없다. 노래로도 불리워지고 전설같은 이야기로도 널리 알려진 이 력사의 고장은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투와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는 귀중한 재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있는 보천보는 조국의 북변을 감돌아흐르는 압록강연안에 자리잡고있다. 해방전에는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면 소재지로서 당시 일제의 군사요충지의 하나였다고 한다.

일제는 보천보소재지를 중심으로 이 일대를 국경경비의 관문이라고 떠들면서 살길을 찾아 해매이던 립산로동자들과 화전민들이 모여사는 이곳에 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를 비롯한 폭압기구들과 농사시험장, 산림보호구 등 여러가지 략탈기관들을 배치하여 놓았었다.

1937년 3월 무송현 서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방침을 내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그해 6월 4일 몸소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조국에 나오시여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산담사차로 해산을 떠나 처음으로 보천보에 들리였다. 력사의 깊은 사연을 담아시고 유유히 흐르는 이 나라 북변의 장강 압록강기슭을 따라 달리던 자동차가 보천보에 이른것은 어느덧 한낮이었다. 해빛에 반짝이며 흐르는 가림천의 물소리가 우리 참관생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다.

오래간만에 다시 오는 고장이지만 언제나와 같이 정답게 안겨오는 땅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혈전의 그날에 났으셨던 조국진군의 자욱을 따라 우리는 참관로정을 정하였다. 하여 우리의 첫 참관대상인 구시물동을 향해 떠났다.

구시물동은 량강도 보천군 읍에서 북서쪽으로 수십리가량 떨어져있는 압록강과 구우수강이 합치는 지점에 있다. 서북쪽에 구시골이 있고 압록강과 구우수강이 합치는곳에 있다고 하여 구시물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구시물동가에 서니 맞은편에 펼쳐진 중국동북지방의 장백현 23도구 구시골둔덕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이곳이 바로 우리 혁명의 력사에 그 지명이 올라있는 구시등판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진군의 길에 오른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1937년 6월 2일 지양개를 떠나시여 이어 조국산천이 한눈에 안겨오는 이 구시등판에 오르시였다. 이미 적정에 대한 정찰과 압록강도하준비를 위하여 일부 대원들을 먼저 파견하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곳에서 구시물동에 정찰하러 나갔던 대원들을 만나시였다. 그들을 통하여 형편을 알아보신 다음 때목다리를 놓을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어 부대를 이끄시고 구시등판을 내리시여 6월 3일밤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물동가에 서니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에 첫발을 디딘 투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어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구시물동을 건너오신 길로 곤장덕에 오르시였다.

구시물동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곤장덕은 압록강과 가림천사이에 동서로 길게 뻗은 해발 1050미터의 대지이다. 그곳으로 오르는 길은 수림이 우거지고 돌이 많은 험한 경사지였다. 투사들이 처음으로 오르던 그때는 어둠이 숲속에 웅크리고 있었을것이다. 하지만 투사들은 조국땅에 안겼다는 그것으로 하여 단숨에 날아올랐을것이다.

가파로운 비탈을 톱아오르니 밋밋한 등판이 눈앞에 펼쳐졌다. 여기서는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그날의 곤장덕은 조국의 숨결을 느끼며 감격에 넘쳐있는 투사들의 환희로 설레였다고 한다. 우리의 눈앞에는 그날의 정경이 선하게 떠올랐다. 조국의 한포기 풀, 한그루 나무에도 못잇던 조국의 향기가 스며있는 것만 같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던 대원들도 있었으리라.

조국의 한줌 흙을 얼굴에 비벼보며 감격에 목메이던 대원들, 장군님 불러주시던 《사향가》를 마음속으로 뜨겁게 불러보던 녀대원들도 있었으리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목메어 흐느끼는 대원들에게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시고 전투계획을 짜시였다. 이어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시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곤

장덕마루에는 헌시비가 서있었다. 보천보전투 승리 마흔뒀이 되는 1977년에 세웠다고 한다. 헌시비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맞이하여 천년 원시림도 감격에 설레이던 그날의 영광을 전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6월 4일 해질무렵에 부대를 이끄시고 그곳을 떠나 보천보로 향하시였다.

우리는 그날의 로정을 따라 등관의 수림속으로 난 길을 따라걸었다. 수많은 참관생들이 붉은기를 날리며 걷고걸은 길이었다. 곤장덕을 내리기 전에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습격대상물을 바라보시며 몸소 적정과 지형을 확인하신 지점으로 참관자들을 안내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로 진출하시던 도중 부대를 휴식시키시고 지휘관들과 함께 쌍안경을 드시고 보천보시가를 내려다보신곳이었다.

그곳에서는 보천보가 지척에 바라보였다. 지금은 아담한 읍거리가 자리잡고있지만

김일성 장군님께서 그날에 쌍안경으로 내려다보신 보천보는 화전민들과 벌목군들의 초라한 귀틀집들이 숨막히게 들어앉고 폭압의 검은 구름이 드리웠던 수난의 보천보였을것이다.

우리는 곤장덕을 내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해질무렵에 은밀히 부대를 출발시켰다고 한다. 그때 가림천은 러수덕쪽으로만 흐르지 않고 두곶으로 나뉘어 한갈래는 곤장덕기슭 따라 흐르고 다른 한갈래는 러수덕기슭으로 흘렀다고 한다. 러수덕은 현재 가림천이 그 기슭을 흐르고있는데 곤장덕 건너편에 있다. 여기 량강도지방의 산들은 대체로 그 우가 평퍼짐한 덕으로 되어있는것이 특징인것 같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무다리로 가림천을 건너시여 가림천의 소란한 물소리를 리용하여 은밀히 보천보로 접근하시였다고 한다.

강사가 우리를 안내하여간곳은 지휘처로 정했던 자리였다. 그곳은 주공격대상물인 경찰관주재소에서 140미터밖에 안되는 가까운데 있었다. 전투가 벌어지면 적들의 화력이 직접 미칠수 있는 거리였다. 언젠가 여기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다녀간 어느 한 외국인 참관자도 이처럼 전투장가까이에 지휘처를 정한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세계전쟁사의 어느 갈피를 뒤져보아도 그런 전례는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한몫의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적기관들의 배치상태와 대원들의 전투활동을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가림천기슭의 황철나무아래를 지휘처로 정하시였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무산방면과 혜산방면에 배치된 차단대들과의 거리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정해진 자리라는것이 알리였다. 위대한 령장의 예지앞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령병들로부터 습격준비를 끝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전투개시를 알리는 신호총소리를 울리시였다. 보천보는 순식간에 전투의 열광으로 타번졌다.

나는 혁명시인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불길이 일어난다
 캄캄한 하늘을 산산이 옥물어찢어
 쪼박쪼박 태워버리며
 불길이 일더니
 만세소리 터진다
 천에는 몇곳에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놀리우고 짓밟힌 이 거리에
 반항의 함성 뒤울리거니
 암담한 이 거리에 투쟁의 불길 세차거니
 흰옷 입은 무리 쏟아나온다-

우리는 지금 적들의 경찰관주재소였던 건물앞에 서있다. 당시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출에 겁을 집어먹고 돌담에 철조망까지 둘러친 건물안에 들어박혀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리 여러차례에 걸쳐 경찰찰소를 파견하시는 한편 조국광복회 신흥촌 조직을 동원하여 주변의 청년들로써 주재소내부를 구체적으로 알아내신데 기초하여 경찰관주재소를 주공격대상으로 정하시였다.

옛 건물에는 아직도 조선인민혁명군의 드세찬 불벼락에 녹아난 흔적이 남아있었다. 건물을 벌둥지처럼 만들어놓은 총탄자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다. 강사동무가 들려주는 그때의 전투상황이 그대로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였다.

그날 죄없는 농민 두사람을 잡아다 몽둥이로 때리면서 만행을 저지르고있던 순사놈들은 혁명군의 불의의 공격이 얼마나 세찼던지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는데 순사 한놈은 돌담을 뛰어넘다가 가시철조망에 걸리어 꺼꾸로 매달린채 정신을 가리지 못하였으며 다른 한놈은 주재소뒤에 있는 돼지우리복대기속에 처박혀 너부러지고말았다고 한다. 놈들이 얼마나 냇이 빠졌으면 그런 물골을 연출했으랴.

보천보전투에서 만신창이 되도록 녹아난 적들은 그후 주재소 순사놈들의 수를 늘였다고 한다.

그래놓고서도 발편잡을 자지 못하고 비상소집훈련을 하는 등 매일과 같이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보천보에는 이밖에도 소방회관이며 면사무소, 일본놈상점과 우편국, 산림보호구와 농사시험장

등 조선인민혁명군의 공격에 녹아난 적기관건물들이 있었다. 소방회관과 면사무소, 우편국과 산림보호구건물은 보천보전투때 불타버린것을 놔들이 후에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나오시여 올리신 한방의 총성이 짓밟혀 눌리웠던 산촌을 일으키고 겨레를 투쟁으로 부르던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왔다. 오늘은 이 력사의 땅에 전변이 일어나 생활이 꽃피나고 가림천 맑은 물도 행복을 담아내고 흘러흐른다. 하지만 위대한 력사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성스러운 땅이어서 -오늘도 거리를 걸어가느라 그날의 총성이 들려오는것 같고 밤하늘을 물들이던 불길이 보이는것만 같아 마음이 송엄해 진다.

우리 인민은 이 유서깊은 땅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이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었다.

우리는 뜨거워진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보천보의 밤하늘에 혁명의 횃불을 높이 지펴올리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들앞에서 연설하시는 그이의 거룩하신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한손에 군모를 거머쥐시고 일제의 발굽아래 신음하는 인민들을 항일결전으로 부르시는 젊으신 령장의 위대한 모습! 그이께서는 단정한 군복차림에 권총을 차시고 행전을

매시였다. 백두의 험산준령을 단숨에 주름잡아 다니시며 일제의 백만대군을 좌락좌락하시던 령장의 기상이 그이의 모습에 어려있었다.

그날의 보천보겨리는 얼마나 설레었으랴.

온 민족이 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르는

김일성장군님께서 화전민거리에 오시여 멸적의 총성을 올리시고 짓밟혀 신음하는 겨레의 가슴에 재생의 씨앗을 뿌려주시었으니 이 거리에 펼쳐나선 사람들은 남녀로소모두가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메여 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으리라.

조국의 북변에 있는 여기 보천보땅에 새겨져있는 위인의 자취를 더듬어보면서도 우리는 현세기의 가장 걸출하신 수령을 받들어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해온 **김일성**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가슴뿌듯하게 느끼게 된다.

나는 항일전의 그날을 그려보며 사적비의 비문에 눈길을 멈추었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가시덤불길을 헤쳐오신 위인의 자취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법이다.

천연화강석에 새겨진 비문은 가장 어두웠던 민족수난의 시기에 이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광복의 밝은 해발을 비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고있었다.

-당창건 50돐기념 전국문화축전작품-

땀 떨어지는 소리

김재원

그리운이의 옷자락인양
부드런 달빛 너울거리는
아름다운 향만의 밤
기쁨에 목메인듯한 배고동소리에 이어
유쾌하다 어디선가 풍청! 땀 떨어지는 소리

얼마나 기다렸던 소리냐
내 사는 항구도시
선원가족들 간절히 타던 마음속에
기쁨의 물보라 못참게 일으키며
사랑의 노래인양 풍청! 땀 떨어지는 소리

나도 즐거웁네 이밤
이웃들 기쁨에 덩달아
내 가슴에도 차오르는 부드러운 물결

그 물결우에 사색의 배 띄우게 하며
유정스러히도 풍청! 땀 떨어지는 소리

이 세상에 항구는 많아도
오로지 이 기슭에만 땀구려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온 감정의 덩어리
그 어떤 노래가 대신하랴
누구도 못볼 마음속바닥에 풍청! 땀 떨어지는 소리

격랑을 헤치고 넘어
사랑하는 어머니품에 안기는
용감한 아들들의 포옹소리가
하고픈 천만마디 말 다 끌어안고
조국의 품에 몸 잠그듯 풍청! 땀 떨어지는 소리!

명제해설

《극적인 이야기는 일정한 곡절을 가지고있다.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여도 전후사연이 없이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이라면 거기에서 극적인것을 느낄수 없다.》

김정일

극적인 이야기가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 깨어지고 예상이 뒤집혀지는 충격적인데서 생겨난다는것은 극적인 이야기의 첫번째 특징으로서 이미 전호에서 해설하였다. 극적인 이야기가 일정한 곡절을 가지고있다는것은 그의 두번째 특징을 이룬다.

이야기가 극적인것으로 되자면 충격적인 사건으로 되는것만으로 부족하다. 충격적인것이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을 깨뜨리고 예상을 뒤집어놓음으로써 강한 정서적충격을 안겨주는는 하지만 그것이 주인공의 생활전반에 뚜렷한 곡절을 안겨주는것으로 되지 못할 때에는 소기의 미학적효과를 안겨줄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만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로서 일시 충격적효과를 나타낸다 하여도 말그대로 순간적인것, 일시적인것에 불과하지 인물의 운명선에 심각한 흔적을 남기고 심오한 생활의 철학을 밝혀내는 뚜렷한 몫을 가질수 없기때문이다.

극적인 이야기는 인물의 운명선에 지울수 없는 커다란 곡절을 조성하는 필연적인 계기로 되어야 한다.

극적인 이야기가 일정한 곡절을 가진 이야기로 되자면 먼저 강한 충격을 줄만한 생활적전제를 충분히 깔아놓아야 한다. 그래야 발생한 사건이 명백한 전제우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 사건으로서 그 전후사연과 련결되면서 운명의 곡절을 조성하게 된다.

예술영화 《보증》에는 한때 범한 파오로 말미암아 오래동안 입당을 못했던 허진성기사가 책임비서의 보증으로 입당준비를 하게 된 결정적대목에 와서 25년간 안해와 친자식에게까지 숨겨오던 마음속의 비밀을 고백하고 스스로 입당을 포기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의 편협한 견해를 극복하고 그의 현재 생활과 사상동향을 당앞에 보증해나선 책임비서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극적사건이었다.

만일 이 사건이 그의 고백과 입당심의를 중지, 《경술한》 책임비서에 대한 당적추궁... 등으로만 끝났다면 이야기전반은 큰 곡절이 없이 흘러가고 주인공의 운명선에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하나의 일화거리에 그치고말았을것이다. 그러나 창작가들은 이것을 하나의 전제로 삼고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설정하였다. 허진성의 고백으로 모든 희망을 잃게 된 식구들의 실망, 《그것

보시오. 내 뭐랍디까?》하는 식으로 책임비서를 동정하듯 바라보는 일군들의 말없는 질책,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할지 몰라 고민하는 책임비서의 복잡한 심리 등을 그려준 다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은 엄중한 파오를 25년간 숨겨왔다는 그 사실보다 25년간 숨겨오던 파오를 당앞에 털어놓은 그 사실을 더 귀중히 여긴다고 하시며 그를 입당시키도록 크나큰 믿음을 주시는 감동적인 장면을 설정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최고의 보증인것이다. 이리하여 이 이야기는 허진성의 운명은 물론 책임비서자신의 당적성장에도 심각한 곡절을 조성한 극적인 이야기로 될수 있었다.

극적인 이야기가 일정한 곡절을 가진 이야기로 되자면 다음으로 충격을 줄만한 전제뒤에 따르는 곡절을 정반비례적과정으로 상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곡절을 정반비례적으로 상승적으로 조직한다는것은 운명선의 곡절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조성되게 하지 말고 상승선도 있고 하강선도 있으며 총적으로 더 큰 진폭으로 확대되어나가도록 심하게 조성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아무리 충격적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만 사건의 발전을 조성한다면 극적인것을 강하게 느낄수 없다. 그것이 주인공의 운명선에 울리막으로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리막으로 되기도 하면서 크게 곡선을 지어주어야 극성이 강렬하게 이루어질수 있다.

앞에서 말한 예술영화 《보증》의 경우가 이에 대한 좋은례증으로 될것이다. 첫번째 책임비서의 보증은 허진성의 운명선에 주어진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것은 당의 은정에 대한 그의 뜨거운 체험을 격증시켰을뿐아니라 반대로 당을 속여온 자신의 죄악에 대한 그의 사무친 후회도 격증시켰다. 이 고통스러운 번뇌속에서 그의 고백이라는 극적인 굴곡이 주어졌다. 그러나 두번째 위대한 령도자의 보증은 허진성은 물론 주위사람들의 심장속에 안겨진 더욱 놀라운 최대의 충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의 곡절이 정반비례적으로 상승적으로 조직됨으로써 이 장면의 생활은 극적이야기의 정수를 이루고 격동적인 극적체험세계에로 관중을 이끌어어나가는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적문예리론은 극적이야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미학적특징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홍분과 걱정의 분출인가 넓은 체육관안은 우렁찬 함성소리로 뒤편지였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가슴을 들먹이는 철의 심장들이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만세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하여 몸소 촬영장에 나오신것이다.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전사들의 소원을 헤아리시여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어제는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시여 대회참가자들을 뜨겁게 축하해주셨고 인민군축하단성원들이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맹세를 드리자 오래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박수를 쳐주시며 고무해주신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그리고 또 오늘은 술한 인원들이 기념사진을 찍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것을 헤아리시여 아직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서지도 않은 이른새벽 촬영장에 나오신것이다.

얼마나 친근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이신가!

언제나 입고 다니시는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촬영장에 나오시여 한손을 높이 드시고 우렁찬 환호에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시는 그이를 뵈옵는 순간 그 인자한 인품에 끌려 눈굽은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었다. 꿈결에도 뵈고싶어 달려가 안기던 그 품이었다. 뜨거운 눈물속에 그이를 우러르노라니 그이를 처음 뵈웠던 20여년전의 그날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사람들은 기억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삭막해진다고들 한다. 그러나 시간과 함께 더 절절해지고 더 또렷해지는 모습이 있다. 그것은 우리 부대를 찾으시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친근한 모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74년 11월 17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갑자기 차진 마가울날씨로 하여 사람들은 목을 움츠렸고 필요없이 나다니지도 않았다. 쌀쌀한 바람만이 제세상을 만난듯 불어치면서 길가의 마른 먼지를 휘감아올렸다가는 제멋대로 뿌려던지곤 했다.

사무실에 앉아 훈련제강을 짜던 나는 급히 두드리는 문기척에 머리를 들었다. 구분대직일관이 승용차 한대가 지휘부쪽으로 들어온다는것이였다.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저멀리 큰길에서 우리쪽으로 뻗은 울퉁불퉁한 농촌길을 따라 까만 승용차 한대가 먼지를 휘감아올리며 들어오고있었다.

(이 외진곳에 누가 오시는가?)

긴장해지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마주나는데 운동장에 들어선 승용차가 나의 곁에 스르르 멈춰섰다. 차는 얼마나 먼길을 달렸는지 온통 뽕얀 먼지를 뒤집어쓰고있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며 반외투를 입으신분이 내렸다.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평양에서 멀고 먼곳, 적들이 강점한 섬이 지척으로 건너다보이는 이곳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몸소 찾아오신것이다. 너무도 뜻밖이였다. 교통이 불편한 이 외진곳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호위성원도 없이 오시다니?

미처 몸둘바를 모르고 서있기만 하는데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보고싶어 들렀다고 하시며 나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너무도 갑자기 들이닥친 기쁨에 사로잡혀 가슴만 세차게 높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황해하는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려듯 직무는 무엇이며 나이는 몇살인가, 관하 구분대들은 어디에 배치되었으며 어떤 무장을 가지고있는가 등 늘쌍 알고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물어보시였다. 어찌나 소탈하게 대해주시는지 나는 점차 어려움을 잊고 그이께서 물으시는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리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 나를 데리고 십리가까이 떨어진 관하단위에까지 내려가시여 구분대장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군인들을 만나시면서 정치사업, 군사사업, 후방사업, 무장장비문제 등 수많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 하많은 이야기를 어찌 몇장의 글에 다 옮기겠는가! 때문에 나는 여기에 그이께서 베푸신 사랑의 이야기중에서 그 일부만을 적으려 한다.

그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내가 한해전에 열렸던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 참가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회의에 참가했던 중대장이 오늘은 구분대장이 됐다고 자식의 발전을 두고 기뻐하는 친부모처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랐다.

사실 그때 우리 구분대는 다른곳에 있다가 옮겨 온지 반년밖에 안되었기때문에 어설픈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구분대장이 짧아서 병사들과 잘 섞일수 있겠다고 하시며 애로를 속속들이 헤아려주시였다. 통신문제만 놓고 보아도 옷단위까지의 거리가 멀어 교환대를 여러개 거치며 지휘를 받다보니 여러모로 곤란을 느끼고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번에 그모두를 헤아려보시면서 남모르는 수고를 많이 하겠다고 하시며 그 대책적문제를 하나하나 의논해주시였다. 다정한 그이의 모습앞에 저절로 마음이 끌리고 자기속을 터놓고싶어지였다. 그 순간 나는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친애하는 지도자》라고 하는지 그 뜻이 새롭게 음미되는것이였다. 그것은 관하구분대에 내려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더 뜨겁게 절감하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병사들이 만든 하나의 구호판을 보시고도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군인들의 결의가 아주 잘 반영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정치사업은 저렇게 내용이 명백하고 설득력있게 해야 한다고, 이 구호판만 보아도 이곳 구분대 군인들이 수령님께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하루빨리 관철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구분대의 전투임무를 료해하실 때에는 적들의 지도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면서 놈들을 바다에 몽땅 처넣어버릴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였고 포병의 기본임무는 명중률을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방도를 제시해주시기도 하셨다. 무기가에 가시여 자동보총을 손수 드시고 보관상태를 료해하시기도 하였고 토끼사에 가시여서는 구분대 의 집짐승마리수를 가늠해보시며 구분대가 잘 산다고 호탕하게 웃으시기도 하셨다. 심지어 구분대장인 나자신도 잘 들어가지 않는 어지러운 화구안까지 돌아보시며 날씨가 추워지는데 군인들을 춥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시며 화구뚜껑은 어떻게 하고 나무는 어떻게 때야 하는가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그 추운 날씨에 잠시의 휴식도 하지 않으시였다.

구분대가 사용하는 우물에 오시였을 때였다.

네모진 우물벽 한쪽에는 물기어린 드레박이 삐뚤서하게 자빠져있었는데 그 주변에 물까지 흘러 여기저기 신발자국이 나있었다.

그이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여기 물을 음료수로 리용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구분대장은 별다른 생각이 없이 그렇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우물벽에 다가서시여 우물안을 들여다보시며 식당에 수도를 놓지 못했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그때야 구분대장은 그이께서 군인들의

수고와 건강문제때문에 심려하신다는것을 알고 머리를 숙이며 그렇다고 조용히 대답하였다.

여러차례 구분대에 내려와 그들의 실태를 뵈히 알고는 있었어도 수도공사를 하긴 해야겠지만 걸리는것들이 많아 차일피일 미루어온 문제였는데 그를 두고 심려하시였다니 구분대를 책임진 나는 얼굴을 들수 없었다.

사연을 알아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께서는 병영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시였다. 높은 산으로 가로막힌 골짜기속에 자리잡은 병실주변은 벌써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고 찬바람이 사정없이 내려붙었다. 함께 온 인민무력부의 책임일군도 그이의 건강이 넘려되시여 어서 방에 들어가자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신듯 구분대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끝내 자연류수식으로 수도화를 할 방도를 찾아내시여 현지에서 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넘치는 현지도는 정말 끝이 없었다. 창고에 들리시여서는 전사들이 먹을 남새공급량을 계산해보시였고 독신군관침실에 들리시여서는 방안의 온도와 크기, 군관들이 휴식의 쉼시간에 소설책 보는 문제까지 헤아려주시였고 포진지의 위치선택과 위장, 통신조직상태와 기동로의 준비, 군사규율 강화를 위한 대책적 문제, 구분대장으로부터 분대장에 이르기까지 각 직무원들의 위치와 주요임무, 심지어 주둔지역 인민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이르기 까지 세간낸 자식의 집을 찾아온 부모처럼 끝없이 다심하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순간의 휴식도 없이 오랜 시간에 걸치는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는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더 잘 집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방법론과 신심을 안겨준 뜨거운 사랑으로 일관되였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전에는 보병구분대에 가시여 실탄사격도 지켜보시였고 녀성고사총구분대에 가시여서는 진지준비정형도 료해하시였다고 한다.

《70일전투》를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이처럼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력적인 지도를 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현명한 손길이 있어 오늘의 《일당백》전투대오가 자랄수 있는것이였다...

남다른 추억을 가슴에 지닌채 다정히 손저어주시는 그이의 환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나는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목이 껍 메여 소리가 잘 나가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나오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가? 이 평양체육관을 지어놓고 첫 대회를 한다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동무들이 모두 젊은 동무들이라고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함께 혁명을 하는데 동무들과 툭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싶다 하며 점심식사도 미루시면서 정력에 넘쳐 말씀하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 정답고 우렁우렁한 음성을 다시 들을수 없다고 생각하니 따듯이 손저어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모습속에 자꾸만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함께 어려와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그런데 글썽... 앞에 오신 그이의 영상을 대하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듯 가슴이 저러오면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것이였다. 언제인가 한번 잠을 싹껏 자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 그이의 말씀이 가슴에 쿡 박히면서 눈썹리가 화끈 달아올랐기때문이였다.

대회기간 우리는 편히 웃고 떠들며 환희의 나날을 보내였는데 그이께서는 어제밤도 새우시며 집무를 보셨으리라 생각하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그이께서 잠시라도 휴식하실수 있게 옆에서 조금이나마 사업을 덜어드릴수만 있다면...

그러나 인차 그이밖에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사업이 너무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가슴만 쥐여뜯었다. 이 기념사진촬영만 놓고보아도 누가 그이를 대신한단 말인가! 없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 력사에 자기의 최고사령관과 기념사진을 찍고싶어하는 병사들의 소원을 풀어주려술한 시간을 촬영장에서 보내는 그런 정도자가 있으며 아직 단잠에 든 사람들이 있는 이른새벽 촬영장을 찾는 그런 정도자가 있었는가?!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뿐이시다. 한밤을 지새시며 귀한 시간을 톡 떼어 전사들에게 바치시고 기뻐하는 전사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행복을 찾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장군님. 그러니 왜 피곤이 겹쌓이지 않으랴. 그래서 《족잠》에 대한 혁명일화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다정히 미소를 보내시며 대회참가자들을 축복해주시였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지휘관들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며 그 동안 잘 있었는가고 물기도 하시고 모두의 얼굴을 영원히 기억해두시려고 한사람 또 한사람 굽어보시기도 한다. 그 영채어린 시선은 나에게도 향하였다. 순간적으로 시선을 멈추신것 같다. 금시 장군님 접니다, 하는 말이 튀어나갈번하였다. 그러나 우렁찬 환호소리, 터질듯이 치는 박수소리에 뒤섞여 설레는 환호의 폭풍은 개별적인 모든것을 다 휩쓸어버리였다.

《오늘 소원이 풀렸다.》

《3월 17일!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다!》

저마다 제나름속에 한마디씩 하였다. 모두의 얼굴마다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다. 괜히 떠들썩거리고 웃음보를 터뜨린다. 그 기쁨과 웃음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장군님께서 오늘밤을 또 지새

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다. 그저 위대한 인간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였다는 기쁨만이 가슴에 넘쳐날뿐이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우리를 또 기다리고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얼마전 몸소 현지지도를 하여주신 녀성해안포중대 군인들이 평양에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천연색사진도 찍어주고 목란관에서 연회도 차려주라는 말씀이 계시였다는 것이다.

첫순간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그들을 평양에 부른것이란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중대예술소조공연을 대회참가자들에게 보여주자는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런 영광이 차례지도록 하여주시다니? 인민군전사 매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장군님과 가까이 련결되어있단말인가! 이런 생각이 또다시 새삼스럽게 가슴에 갈마들었다.

대렬차를 가지고 그들을 마중하여 평양역에 나갔던 나의 머리속에는 너무도 평범한 해안포병 처녀들의 소박한 모습이 떠올랐다. 장군님 계시는 평양에 왔다고 복이며 손푹금 배낭을 멘채 역구내에서 웃고 떠들어 중대장이 조용하라고 통제를 했지만 그때뿐이였다. 하긴 중대장자신도 마음이 흥그러워 자기를 겨우 억제하는 대오였다. 순박하고 명랑한 그들이 요구한것이란 만경대와 혁명렬사릉 견학 그리고 교예공연을 보도록 해달라는것이였다.

그런데 우리의 장군님께서서는 평양 시내 모든 극장, 영화관, 사적지, 전람관을 보도록 해주시고도 목란관에서 연회까지 차려주라고 하신것이다. 때문에 인민무력부의 일군이 그들의 숙소에 찾아가 우리 장군님의 배려를 전달해주자 녀성해안포중대 병사들은 모두가 서로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누군가가 걱정을 터뜨리자 저마다 따라웨치며 눈물속에 얼싸안았다.

바다바람을 맞으며 처녀들이 수고한다시며 자신께서는 추운 겨울날 모자도 쓰지 않으시고 미끄러운 포진지로 오르내리시던 우리 장군님이시다. 처녀들의 얼굴튼것이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일군들을 엄하게 추궁하시고 직접 사랑의 약크림을 보내주신 그이이시다. 그런데 오늘은 국가적 행사만 하는 목란관에서 연회를 차려주라고 하시였고 정치지도원자신도 까마득히 잊고있는 생일상까지 차려주시였다. 생일상을 받은 정치지도원동무는 울면서 이야기했다. 다섯살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는데 오늘 위대한 어머니사랑을 알게 되었고 친어머니품에 안긴것같다고, 땅에 묻힌 어머니도 이 위대한 어머니를 아시면 기뻐서 눈물을 흘릴것이라고

뜨겁게 말하였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었다. 감격 속에 박수를 치고 마음껏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었다. 다 찍은 천연색사진으로 사진첩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친히 보아주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빈장까지 사진을 다 채워주라고 하시었고 앞으로 애인이 생기면 함께 찍어 붙일수 있게 첫장은 비워두라고 친부모도 미칠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었다.

과연 어느 나라 력사에 한 나라의 령도자, 무력총사령관이 한 병사의 사진첩까지 관심한 일이 있으며 외국대통령들이 앉던 의자에 바다가초소의 평범한 전사를 앉혀준적이 있는가?!

없다. 있을수도 없다. 열의인, 정의인, 사랑의 화신인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집단체조에서, 2.8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명곡무대에서, 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된 영화예술인들의 무대에서 끝없이 이어져나갔다.

때문에 나는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우리들수록 귀밀머리 희어진 다심한 어머니모습으로 위대한 인간 **김정일** 동지를 더더욱 뜨겁게

느끼게 되었다. 멀리 나가있는 자식이 올 날을 기다리며 한가지씩 준비해두는 어머니처럼 여러 단위에 과업을 주시고 내용과 형상방법까지 제시 해주시며 완성시켰다가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평양에 도착하자 함께 보아주시면서 모두다 보여주도록 하여주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은 대회참가자들의 가슴속에 충성의 불길을 더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그 불길은 미구에 온 나라 초소에 퍼져나갈것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는 신념의 기둥을 더 굳건히 세워줄것이다. 그래서 전사들은 그 꿈을 죽어서도 잊지 못하며 이 세상 한끝까지 따라가는것이다. 그 억센 심장들이 뭉치여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이 그처럼 강한것이다!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그자체에 매혹되어 죽어도 그이의 무릎을 베고 죽겠다는것이 우리 병사들의 의지이며 신념이다! 이 의지, 이 신념을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이 영광의 대오의 한 성원으로 한생을 보내는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며 더 일을 잘해나갈 결의를 다시한번 굳게 다진다.

가사

사랑과 믿음의 노래

리영호

남모르는 소행도 숨은 노력도
기특하게 여기시여 내세워주시네
천만자식 빠짐없이 품에 안으시고
자애로운 사랑으로 보살피시네
아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 동지
인민은 따르며 효성을 다하네

흘러가는 세월속에 마음속 사연도
허물없이 그이께 먼저 아뢰이네
생을 주고 믿음 주고 운명을 다 맡아

영생하는 그 길우에 삶을 빛내주시네
아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 동지
인민은 따르며 충성을 다하네

대가정을 꽃피우신 장군님사랑
우리 가슴 한숨결로 이어주셨네
일심단결 다져주신 장군님 믿음
우리 심장 한피줄로 뛰게 하시네
아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 동지
인민은 대를 이어 높이 모시리

백두의 고향길

윤두만

그해는 1956 년이었다

그해는 준엄한 1956년이였다
원썩들의 《북진》소동으로 전쟁의 검은 구름 짙어가던 때
가증스런 종파놈들이
독버섯처럼 머리 쳐들고 당에 도전해나서던 그때
바로 그이께선 첫 백두답사행군길에 결연히 오르시였다

한가한 유람의 길이었다면
더 미루어 가실수도 있었으리
즐거운 견학의 길이었다면
후에도 찾아가실수 있었으리
하지만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그이의 마음이지였다

진대를 넘고 덩불을 헤쳐가실수록
그이의 안광에선 섬광이 번뜩이시였다
우리 혁명의 피어린 그 자욱자욱을
망각의 이끼에 덮어버리려는 배신자들
표식비초차 밀림속에 세우지 않았거니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맨 힘겨운 시기
만약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백두의 우등불이 꺼진다면
시련에 찬 조국의 숨결도 멎는다는것을

불타는 심장으로 꿰뚫어보신 **김정일** 동지

아, 걸음마다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진
수령님의 그 자욱자욱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다지실 철의 신념을 버리시며
백두산에로의 첫 답사길을 열어가신
잊을수 없는 1956년이여

그때 그이는
붉은넥타이를 매신 소년이지였다
일찌기 광복의 굳은 맹세 남기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어버이수령님처럼
열네살, 바로 그 나이시였다

멀리 흘러간 1926년 민족수난의 그날
수령님 우러러
엄숙한 맹세를 받아안았던 백두의 산천이여
너는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56년 그해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심장에 굳건히 이어주시며
조선을 빛내일 신념의 맹세 다지시는
또 한분의
민족의 위대한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한줌의 숯덩이

너는 천교의 수림속에 자라던 아름다리나무였다
하건만 눈얼음 났으시며 수령님 조국에 오신 밤
그밤만이라도 그 한밤만이라도 따뜻한 온기를
드리고싶어
마지막 립자까지 깡그리 자신을 태웠구나
한줌의 까만 숯덩이여

너를 보니 나를 보는듯
조국의 대지에 삶의 뿌리내린 나도 푸르른 청춘
장군님 위함이라면 이 한몸 아낌없이 채가 될
아, 그 신념 불태우는 불태워주는
너는 내 마음의 불덩이!

물소리

건창에 가니 건창수
무포에 가니 소흥단수
사령부천막앞에 설 때마다
귀전에 울리는 첫 음향은
물소리로구나

간백산밀영에 가도
백두밀영에 가도
사령부귀틀집이 자리잡은곳마다
간백수와 소백수물소리
마음의 금선을 울려주거니

난생처음 내 물소리를 듣는듯
물소리에 젖어
생각에 잠기노라
생각에 젖어
물소리를 듣노라

이 땅에 나서 자라 반백이 되도록
자연의 음향으로만 무심히 들은 물소리를
어찌해 우리 수령님께선 장장 기나긴 세월
단 하루도 멀리 하신적 없으셨던가

귀에 쟁쟁 울리는 네 흐름소리에서
그이 들으신 교향시내의 속삭임소리를
내 심장의 박동으로
소중히 안고가고싶구나

맑은 물 두손에 뜨실 때마다

조국에 비긴
자신의 모습을 보시는듯
기다리는 동포들을 생각하시며
행군의 신들메를 풀지 못하시던 그이의 마음
내 한생의 뜻으로 간직하고싶구나

잠시라도 못들으시면 조국을 잊으실듯
순간이라도 멀리 하시면 인민을 잊으실듯
항일의 혈전만리
천막을 옮기실 때마다
밀영을 지으실 때마다
우리 수령님 안고오신 물소리
백두계곡의 유정한 물소리!...

아, 그 물소리에 실려 그 물소리에 실려서
오늘이 온것이 아니냐
수립우로 날으는 새들의 정겨운 지저킴소리
답사속영소창가에 흐르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이 땅, 이 하늘에 넘치는 삶의 모든 음향이

그때문에 그때문에
내 백두산에서 안고가노라
심장으로 흘러드는 피의 박동으로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로
사령부 천막가의
그 작은 물소리를
소중히 안고가노라

투사가 남긴 신발창앞에서

-간백산밀영에서-

몇천리를 걸었으면
몇만리를 걷고 걸었으면
신바닥이 저렇게
종이장처럼 닳아졌으랴

실로는 견디지 못했던가
철사로 얼기설기 꿰여맨 신발창이여!
아, 너는 나에게 깨우쳐주는구나
오늘에도 오는 그 길이
얼마나 간고했던가를...

누가 시켜서 걸은 길이라면
하루도 아닌 긴긴 세월
걸음마다 죽음이 뒤따르고
자욱마다 유혹의 마수가 뻗친 교행의 그 길을
투사는 걸을수 없었으리

목숨은 버리어도 신념은 못버려
목숨은 버리어도 의리는 못버려
붉은기를 피로 물들이며

수령님따라 끝까지 걸은 불굴의 그 넋이
내 마음의 거울로 비껴있는 백두의 유물이며

너를 보며 내 생각이 깊어져라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길도

김정일 동지를 따르는 운명의 그 길도
탄탄대로에 순풍만 불지 않으리

뜻하지 않는 역풍이
시련의 눈보라를 몰아오고
삶이 만발한 우리의 화원에

때아닌 찬서리 내릴수도 있으리

내 만약 그 길에서
순간이라도 힘겨워 걸음 주저한다면

너 언제나 내 마음속에 찾아와
가차없이 매질해다오

끝까지 가라고
운명의 그 길 끝까지 가라고
신들메를 더욱 조여다오

아, 한생토록 안고 걸어야 할 내 마음의 군화여!

백두의 고향길

젊은 시절 그 몇번 갔던 길이건만
반백이 되어 다시 백두산답사길 떠날 때
고백하노니

자신도 은근히 우려했노라
안해도 걱정했노라
먼길을 걸을수 있겠느냐고

그 걱정
그 생각
가뭇없이 사라졌노라
밀림속으로 뻗은 낮익은 길 걸으니
그렵던 고향길을 밟는듯
스스로도 알수 없는 힘 온몸에 넘쳐라

이 길에선 비를 맞아도
비를 굶고싶은 생각없어라
배낭속엔 비옷이 있어도
투사들처럼 조국의 봄비를 맞고싶어지는 마음이
여

어디선가 풍겨오는 산나물향기는
못잊을 그날의 칼도마소리를 불러오는듯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던
30년대 밀영의 그 저녁이 떠올라라

찾아올적마다 즐겨 봄비를 맞고싶어지는 길
찾아올적마다 눈에 삼삼 풀뿌리생각 떠오르는 길
아, 그래서 더더욱 못잊는
마음의 고향길인가

내 가슴에 품은 당원증도
이 길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서 물들여진것
내 심장으로 흐르는 피도
이 길에 타고온 우등불로 더욱혀진것
나를 키워준 고향길을 잇는다면
나에게 조국과 혁명을 알게 한 이 길을 잇는다면
자신의 근본을 잇으리
혁명가의 신념과 량심
그 모든 삶을 잇으리

그래서 젊은 시절에도 이 길을 걸었고
반백이 되어도 이 길을 내 찾는것 아니냐
늙음도 젊음도 한모습으로
붉은기결에 가까이 세워주고
투쟁의 선서를 새로이 다지게 하는
아, 성스러운 혁명의 고향길이어

내 설사 그 어느 절해고도에 간다 하라
하지만 고향길에 숨결을 잇고 산다면
싸우다 몸은 비록 죽어도
넋은 백두의 품에 안겨 장군님의 전사로 영생하
리니

숨결도
피줄도
위대한 당의 심장에 이어주는 길
내 걸으리라, 언제나
인생의 걸음 새 출발선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행군길
아, 백두의 고향길이어!

한 인간에 대한 추억

신리섭

먼 후날에도 사람들의 추억에 남도록 삶을 빛나게 산다는것은 매우 어려운것이지만 자기 생애에 두고두고 추억할만한 벚을 가지고있다는것도 헐치 않을것이다. 물론 전자의 경우가 만사람의 생활에서 귀감으로 되는것은 사실이고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할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잊혀지지 않고 추억되는 그런 인간군상이 있다. 하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와 긍지를 가지군한다.

지금도 나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어둠이 소리없이 깃을 퍼기 시작하는 창밖을 내다보며 그 모습을 생각하고있다. 옆방에서 록음을 틀어놓았는지 너가수의 노래소리가 나의 상념을 지나온 생활의 멀고 먼 언덕너머로 이끌어간다.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
웃으며 추억할 지난날이라고...

웃으면서... 아니, 나의 경우에는 결코 웃으며 추억할것이 아니다.

내 운명이, 내 생활의 어떤 계기점마다 떠오르는, 그리고는 심야의 초불처럼 앞길을 가리켜주는 그런 영웅적군상이다.

지금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방금 참모부세포총회를 마치고 돌아왔다.

총회에서 나는 세포비서로 선거되었다.

세포비서! 우리 당 하부말단의 기층조직,

그 여덟명의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졌다는 자각에 마음도 어깨도 무거웠다. 부대참모장으로 임명받았을 때에도 이처럼 어깨가 무거웠었는지...

나는 지금 처음 군복을 입었던 준엄한 그 시절의 옛중대세포위원장을 생각하는것이다.

-윤배동지, 내가 오늘 윤배동지처럼 세포비서가 되었습니다.-

나는 담배를 붙여물고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흰 연기가 창유리에 부딪쳐 반원을 그리며 퍼져가는데 그속에 옛중대세포위원장 리윤배동지의 얼굴이 신기루인양 솟아오른다. 농민형의 그 얼굴은 느슨한 미소를 띠고 나를 대견하게 바라본

다.

-경모동무, 세포를 잘 꾸려야 하오, 세포가 건전하고 제 구실을 해야 당중앙이 튼튼하고 우리당이 불패의 대오로 강화될수 있소.-

-저를 곧은 길로 채찍질해주시오. 취사장에서 처음 만나던 그 시절처럼말입니다. 세포위원장동지-

나는 이렇게 옛전우와 마음속대화를 나눈다. 그럴수록 그 얼굴이 가슴을 허비며 못견디게 그리워짐을 어쩔수가 없다.

전선의 이른새벽이었다.

휘연해지는 동쪽하늘아래 유자색아침노을이 물들기 시작했다. 화약내와 먼지에 탁해졌던 공기는 뽕양게 피어오르는 안개속에서 밤새껏 려과된듯 맑고 깨끗했다. 금시라도 어디선가 포성대신 새벽닭울음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오는듯싶은 아침이다.

나는 새벽공기탓인지 까닭모를 즐거움에 잠겼다. 아니 요즘 내내 자신의 생활이 즐거움기만했다.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도 남한테 기쁨을 줄수 있는 필요한 인간이라는 느낌에서 오는 만족감일것이다. 이것은 내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각한 감정이였다. 그만큼 소중하였다.

요즘 중대전사들속에서 료리숨씨로 하여 나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이날 아침도 나는 쌀을 일어 솔에 안치고나서 찬거리감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취사병에게 제일 바쁜 시간은 아침이였다. 자칫하면 아침밥을 못먹은채 중대가 전투를 치러야 하기때문이었다.

나는 아궁밖으로 기여나오는 장작불을 발로 솔을 몰아넣으면서 어제저녁 뜯어온 버섯을 줄것줄것 찢기 시작하였다.

이런 때 누가 불이라도 봐줬으면 고마우련만...

투덕, 투덕... 발자국소리가 들린다.

나는 반가웠다.

특무장일가?... 아니 중대직일관일게야. 아침식사준비를 채근하러 오겠지, 누구든 관계없어. 도와달래야지.

《수고합니다.》 누구인가 문전에서 인사를 한다.

《수고는 무슨, 어서 와서 이 불좀 봐주.》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부탁했다.

《무척 바쁜 모양이군요. 장경모동무이지요?》

그 사람은 아궁앞에 쭈그리고 앉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배낭을 진 중사전장을 단 하사관이 얼굴에 사람같은 미소를 짓고 아궁에 장작을 집어넣고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이 무슨 실수람, 나는 엉거주춤 허리를 펴며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신발을 벗고있어서 발꿈치를 모으기는 했어도 딱소리가 날리 없었다.

《예, 제가... 저 그런데 ?...》

《3소대 2분대장 리운배입니다.》

《예, 예?!...》

나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앞서 그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럼 전투때 부상당해서 사단군의소에 입원했던 세포위원장동무군요. 치료받을래기 수고가 많았습다.》

나의 인사말은 전혀 군인답지 않았었다. 지루할 정도로 처지고 비약이 없이 빨래줄처럼 잔뜩 늘어졌다. 나는 첫대면에 그가 상관이라기보다는 오래동안 헤어졌던 구면지기를 만난것만 같았었다.

《먼 길을 오실래기 시장하겠는데 조금만 참아 주슈. ... 내 이제 제격...》

나는 귀한 손님을 맞이한 어진 주인마냥 송구스러워하며 밥이 갖는 가마쪽으로 돌아섰다. 아궁에서는 장작불이 불씨를 탁탁 튀기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가마에서는 단김을 뿜어올리며 밥이 벌렁벌렁 끓었다. 나는 먼저 손질해놓은 버섯부터 익혀내려고 가마에 쏟아넣었다. 나는 자주 그에게 눈길을 보내군하였다. 그가 중대당세포위원장이라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었다.

나에게는 당세포위원장이라면 그 어떤 기준점과도 같이 새겨져있는 한 얼굴이 있었다. 평시에 과묵하고 결쾌성있어보이는 양주공장 수리공의 모습이였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전해인 어느날 숲을 한마차 싣고 공장에 들어서던 나는 장례식 행렬과 마주쳤다. 미국놈들이 수리공을 지하당 세포위원장이라고 해서 무참히 학살했던것이였다. 그런데 얼핏 보매 농사군같은 윤배 이 사람이 미국놈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당세포위원장이라니.

작달막한 키에 가로퍼진 몸집이 씨름판에 나서면 제격일상싶었다. 서글서글한 눈매며 몽툰한 코마루는 후한 인품을 말해주고 두툰한 입언저리에는 엄한 빛이 나타나있었으나 첫인상이 무척 무뎠해보였다. 그리고보면 그가 인정이 많다고 하던 전사들의 말이 사실인것 같았다. 하지만 미국놈땅크를 두대씩이나 까부신 싸움군이라는 말은 잘 믿어지지 않았었다.

《아니, 이게 버섯이 아니요?》

윤배는 버섯무지앞에 장작개비를 깔고 앉으며

신기한듯 들여다본다.

《이게 느타리버섯이라는게구 요게 노랑버섯이라는건데 맛은 송이버섯만 못해두 괜찮지요. 저 맞는건 골짜기에서 따왔지요.》

나는 문밖으로 마주보이는 맞은편 산골짜기를 가리켰다.

《요새 찬거리가 변변치 못해 짬이 있으면 산발을 타군합니다.》

나는 부식물이 미리 도착하지 못하여 버섯 한 가지로 찬을 만들어야 하는것이 나의 불찰이기로도 한듯 이렇게 궁색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좋은 생각을 했군요. 그래서 중대동무들이 장동무에 대해 칭찬하는걸 아끼지 않았군요.》

그가 하는 말이 중대전사들이 편지할적마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수대 하더라는것이였다.

나는 버섯볶음에 간을 맞춘 다음 기름 몇방울 떨어뜨리는 인차 퍼냈다.

아예 처음부터 기름을 두고 찬을 볶으면 맛이 한결 나았지만 기름이 없을 때는 다 익힌 다음 몇방울 떨어뜨리면 기름을 많이 쳤을 때처럼 빛갈이 좋고 냄새도 더 진하게 풍겼다. 결국 눈속임이였다. 허나 눈맛이 입맛이라 하지 않는가.

나는 더운 밥과 버섯볶음, 며칠전에 특무장이,련대후방부에서 가져온 간한 고등어 한토막을 장작불에 구워서 윤배앞에 내놓았다.

《이거 뭐 찬이 변변치 않습다. 시장하잖는데 많이 드시우.》

《아니게 아니라 속이 출출하더했는데, 이건 완전히 특식이군요. 이 전쟁판에서 버섯맛까지 보게 되구요.》

윤배는 생김새처럼 격식이 없는 사람이였다.

그는 정말로 시장했던지 밥숟가락이 꺾어질듯이 밥을 푹푹 떠서 입에 넣는것이였다.

《경모동무는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스무살입니다.》

《스물이요?》

윤배는 밥술을 뜨다말고 나를 놀란 눈길로 쳐다본다.

나는 멧적어 뒤더수기를 뺨백 긁었다.

《저- 산골에서 막살다보니 내 나이를 헛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대에서도 〈아바이〉라고 하더군요.》

《입대전에는 농사를 지었나요?》

《농사라니요, 숲구이를 하더랬습다.》

《음, 그래서 글을 배우지 못했군요.》

윤배는 좀전과는 달리 낯색이 굳어졌다.

허나 나는 그의 마음속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나는 나대로 생각하였다.

(군의소에 가있으면서도 중대소식은 손금같이 알고있었구나. 내가 문맹자라는걸 다 알고...)

《원췌와 싸워 조국을 지키는 인민군대가 글을 몰라서야 되겠소. 이제부터 글을 배우도록 하오.》

《원 글을 배우다니요. 내가 글을 알아서 과거 급제를 하겠기에 그러시우.》

나는 두번다시 그런 말을 말라는듯 손을 내젓기까지 하였다.

사실이 그러했다. 나는 남들처럼 이 전쟁에서 영웅이 되거나 소문을 낼 위훈을 세워보려는 생각을 해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럴 사람은 따로 있는줄로 생각하였다. 나는 전쟁을 하는 군대들도 밥을 먹어야 미국놈들과 싸움을 할수 있는것만큼 취사병으로 이 전쟁을 겪을 생각이였다. 중대전사들이 내가 지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걸 볼때면 그런 생각은 한층 더해지군하였다.

그런데 이 동란의 시기에 글을 배워? 하루 세끼 밥만 하자고 해도 눈코뜰새가 없는데... 아무렴 그들이 말하는 영웅주의라든가 민주주의 같은것을 모른다고 밥이야 못짓고 총이야 쏘지 못할가.

윤배는 나의 말에 공감해서인지 한동안 말없이 담배만 태우다가 나의 아래우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장동문 아직 군복이 몸에 붙지 않는 모양이구만. 병사의 외모는 전투정황에서 생길수 있는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제정된것이기때문에 복장착용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윤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무게가 느껴졌다. 그것은 충고나 당부가 아니라 상급의 명령처럼 들리였다.

나는 그제서야 그와 나의 외모를 대비해보게 되였다.

잔등의 군복저고리는 살에 철떡 달라붙었으나 단추 하나 터쳐놓지 않고 허리가 아플만치 헉띠를 꼭 졸라매였다. 군복은 비록 색이 날고 땀에 젖었으나 어느 한곳 구김살간데 없었다. 온몸에는 군무생활에서 몸에 밴 엄격한 군사교범의 요구와 생활질서가 풍기고있었다.

나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 나의 차림새를 내려다 보고는 얼굴이 붉어졌다. 나의 외모에는 어느 한 곳 군인다운데라고는 찾아볼수 없었다.

(완전한 베짖병이로구나.)

윤배는 틀림없이 나의 외모와 행동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것이다.

《장동무, 이제부터 글도 배우고 새 출발을 하자구. 어제날 미국놈밑에서 숯구이하던 장경모가 아니라 정의의 싸움에 나선 인민군전사로 말이요. 우선 이걸 가지고 짹짹이 글부터 배우자구.》

그는 나의 손에 수첩을 쥐여주고나서 다짐하듯 나의 어깨를 정답게 두드렸다. 빨간 천으로 뚜껑을 씌운 수첩에는 우리말 자모표와 군사규정들 그리고 당규약까지 적혀있었다. 군의소에서 나를 주자고 만든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수첩이 천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글을 배우자니 눈앞이 캄캄했다.

문밖으로 멀어져가는 윤배의 뒤모습을 보며 나는 그자리에서 말뚝처럼 움직일줄 몰랐었다. 마음이 어수선했다. 첫대면부터 글을 배우라, 옷차림을 규정대로 해라 하는걸 보니 세포위원장이 썩 잔소리나 할것 같아보였다.

여태껏 나한테 옷차림을 가지고 탓하는 지휘관은 별로 없었다. 규정에서 제일 엄격한 특무장도 처음엔 한두번 이야기하더니 지금엔 말이 없었다. 하긴 군복을 규정대로 입지 않았다고 해서 밥을 태운다거나 설게 한적이야 없지 않았는가. 그런데 세포위원장 윤배의 눈길만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것 같지 못했다.

(사람이 생긴걸 봐선 그럴것 같지 않은데.)

나는 어쩐지 자신의 생활이 그로 인하여 바람맞은 호수처럼 들볶이울것만 같은 불안이 가슴속에 차올랐다....

나는 딛고선 땅이 지진이라도 일어나듯 움썰하는것을 느끼고 정신이 펄쩍 들었다, 가마뚜껑이 저르릉-울리는것과 거의 동시에 고지통신에서 포탄이 터져올랐다. 뒤이어 고요했던 새벽정적을 산산이 깨뜨리며 포성이 우뢰치듯했다. 아침해살이 퍼지기 시작하던 상공에는 포연과 흙먼지가 뽕얇게 뒤덮였다.

(저자식들은 아침밥이나 처먹고 지랄인가.)

나는 바빠맞았다. 전사들이 아침밥을 못먹고 싸움을 치르게 할것만 같아 조바심이 물뚝치듯했다.

나는 주먹밥과 식기를 배낭에 넣어지고 국통은 들고 고지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뜨끈뜨끈한 국통을 들고 험한 고지를 오르자니 여간이 아니였다.

놈들이 날려보내는 포탄이 고지후면으로 옮겨지면서 파편이 뿜, 뿜- 공기를 찢며 귀뿌리를 스칠 때는 온몸이 저려서 발을 제대로 옮겨놓을수가 없었다. 아무리 험한 산길도 거칠매없이 닦아놓은 평탄한 길을 걷듯하던 나였지만 채칼마냥 포탄구멍이가 송송한 고지의 비탈길에서는 자연히 걸음이 떠졌다.

이럴 때 마침 특무장이 나타났다. 그는 국통을 받아들며 반가와했다.

《아니 이거 국까지 끓여가지고 오우?》

《싸움을 한바탕 치르고난후엔 더운 국을 먹어야 피곤이 쭉 풀린다우다. 국통은 이리 보내슈.》

나는 등에 지였던 배낭을 그한테 벗어주고 국통을 다시 받아들였다. 발을 잘못짚어 두번씩이나 넘어져 무릎이 벗겨지고 왼쪽이마가 퍼렇게 부어 올랐으나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앞에서 총소리가 점차 성글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하였고 걸음을 재촉했다.

《에 이-모르겠다.》

나는 펄쩍 주저앉아 신발끈을 풀기 시작했다.

《또 신발을 벗소?》

특무장이 책망하듯 미간을 찌프렸다. 특무장의 말은 《외모는 규정대로 착용해야겠소.》라고 하던 윤배의 목소리로 바뀌어 나는 손을 주춤거렸다. 하지만 신발을 신고는 발에 모래주머니를 매 단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괜히 넘어져 국이라도 쏟드리면 어쩐단 말인가. 국없이 맨발을 어떻게 먹구. 우선 국통을 가지고가야 할게 아닌가. 나는 제 잡담하고 신발을 벗어 허리춤에 끼우고 씨엥 씨엥 걸었다. 신발을 벗으니 마치도 발에 날개라도 단 것처럼 얼마나 걸기 험한지 몰랐다...

《더운국을 먹으니 힘이 솟는것 같구만. 취사병 〈아바이〉, 정말 수고 많았수다.》

《우리 〈오마니〉가 제일이야.》

《〈아바이〉, 내 오늘 전투에서 〈아바이〉 뭉까지 미국놈들을 끝질은 더 잡겠수다.》

전사들은 밥을 먹고나서 이마의 땀발을 닦으며 나에게 한마디씩 하는걸 잊지 않았다. 거기에는 똥도 있었고 진심도 있었다. 나는 마음이 흐뭇해졌다. 설설 끓는 국을 퍼가지고 오느라고 땀도 흘렸고 고생도 어지간했지만 모두 맛있게 먹는 걸 보니 그 모든 수고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점심 때에는 버섯으로 탕국을 잘해가지고 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었다.

식사가 끝난후 뒤겨두매를 해가지고 떠나려 할 때였다. 윤배가 나를 불러세웠다.

《장동무는 왜 신발을 벗고 다니오?》

《저...》

《신발이 맞지 않는게구만.》

《저- 신발을 신으면 걸기가 말썹서...》

《그게 무슨 소리요. 맨발로 산길을 다니다가 파편조각이나 나무그루터기에도 찢리면 어찌겠소?》

《군화바닥은 찢려나도 내 발바닥은 끄떡 안합니다.》

나는 슬며시 주위를 살피다가 전호바닥에 있는 모가 선 돌을 꼭 눌렀다가 발을 들어보였다. 돌은 땅속에 묻혀버렸고 발바닥은 자리도 생기지 않았었다. 내 발바닥은 두터운 소가죽이라도 덧붙인듯 굳은살이 터슬터슬하게 막혀 웬간한 돌부리나 나무그루터기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윤배는 나의 발을 붙잡고 발바닥을 쓸어보고 있었다.

...

똑...똑... 누구인가 밖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상념속에서 헤나지 못하였다.

윤배는 나의 발을 붙든채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의 빛이 떠도는것 같기도 했고 측은해하는 빛이 진하게 어려있었다.

한참후에 그는 힘들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것 같기도 했다.

《그래두 신발은 신어야지, 동무야 인제는 인민 군군인이 아니요.》

뜻이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의 진가를 깨닫기에는 그때 나로서는 수양이 너무 부족하였다. 더구나 윤배의 마음속깊이를 들여다본다는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다만 이 순간에 서글픈 감정이 마음한구석에 뜬김처럼 서리는것이였다. 이때부터 나는 매일 잠자기전에 윤배한테 가서 그날 공부한것을 총화짓고 다음날 배울 과제를 받곤하였다.

그는 《부뚜막》, 《칼도마》, 《식칼》... 하는 식으로 취사장에 있는 물건들에 글을 써서 붙여주고 밥을 지을 때마다 읽고 외울수 있게 하여주기도 하였다.

똑 똑... 다시금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였다.

누가 찾아왔는가... 나는 그제서야 생각에서 벗어났다.

나는 여전히 창밖에 시선을 보낸채 움직이지 않고 대답했다.

《들어오시오.》

문이 소리죽여 열리였다가 닫기였다.

《대좌동지, 상등병 전명철 만날수 있습니까?》

문전에서 애된 목소리가 또랑또랑 울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펍 오돌진 상등병이 차렷 자세로 서있었다.

《작전참모동지를 만나러 왔됐습니다.》

《그러면 참모부로 가야지...》

《참모부에 갔됐는데 계시지 않아서 혹시...》

그제서야 나는 아직 자기 상념에서 완전히 깨나지 못하고 전사의 말을 건성으로 대하고있었을을 의식했다.

작전참모는 세포총회가 끝나는 길로 아래단위에 내려간것이였다.

《참모동무는 늦어서 돌아올거요. 무슨 일인지 내가 전달하지.》

《며칠전에 참모동지가 중대에 왔을 때 착암기 물주부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되였는가 해서 왔됐습니다. 대좌동지, 돌아가겠습니까.》

《가만 이자 몇중대라구 했던가?》

나는 필통에서 원주필을 찾아들고 탁상일력장 뒤등에다가 전사의 소속과 용무를 적어놓았다.

전사는 돌아갔다. 나는 이윽히 출입문을 쳐다보다가 수화기를 집어들고 작전참모가 돌아오면 내 방으로 보내라고 일렀다.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지휘관의 약속을 믿고 찾아온 상등병의 모습이 자꾸만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더구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휘관이 다름아닌 우리 세포의 당원이라는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나는 천천히 창문가로 다가섰다.

어느덧 창밖은 캄캄했다.

...

그 생이 짧은들 누가 탓하랴

영생은 시간과 인연없어라

...

참말 그의 생은 너무나 짧았지, 리운배, 리운배

... 너무나 아까운 생이었어...

노래선물을 타고 생각은 다시금 옛중대세포위
원장에 대한 추억으로 되돌아갔다.

...저녁이었다. 중대저녁식사를 끝내고 아침밥
준비까지 해놓고나니 낮가락같은 초생달이 서편
에 걸리었다.

특무장을 만나려고 중대부로 가던 나는 교통호
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주춤했다.

운배가 특무장을 나무라고있었는데 그것은 나
때문이었다.

《더구나 특무장동무야 중대군인들의 규률을 책
임진 지휘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모동무가 신
발도 신지 않고 복장착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
니는걸 보고 목과하면 되겠습니까.》

특무장동무도 우리 인민군대의 모든 군사규정
이 전사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
님께서 친히 제정해주신것이라는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모든 전사들에게 뜨겁
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무장동무나 우리
초급지휘관들이 전사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포위원장동무, 너무 걱정마십시오. 대들보감
은 어린 나무때부터 안다구 아무렴 경모 그사람
이 싸움군으로야 될라구요. 그 동무한테는 취사
병이 그저 제격입니다.》

특무장의 말이였다. 그의 말이 옳았다. 아무렴
이 장경모가 무슨 영웅이 될라구, 그저 취사병으
로서 전투원들한테 하루 세때 끼니를 보장하면
되는것이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이상스럽
다. 나는 특무장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마음한구
석이 서운했다.

나는 여직껏 살아오면서 나에게 차려진 생활의
모든 세파와 기구한 운명을 숙명적인것으로 받
아들었고 그를 두고 남을 탓해본적이 없었다. 그
렇지만 별스럽게도 이 순간에 나는 특무장이 하
는 말이 나무라왔고 야속하였다.

대들보감은 어린 나무때부터 안다구... 싸움군
이 따로 있다구, 그래 이 장경모가 영웅이 못되
구 싸움군이 못된다구. 이진 너무하지 않는가.

그래서 특무장은 다른 전사들한테는 규정대로
엄격히 요구하면서도 나한테만은 말이 없었구나.

결국 이 장경모는 사람속에 속하지 못한다는것
이지...

나의 가슴속에서는 처음으로 울분이 솟아올랐
다.

어쩐지 헤어무는 저녁에 심심산골의 절벽밑에
홀로 서있는듯한 고독감을 느끼었다.

내가 이렇게 모순된 생각의 충체를 오르내리
는데 운배의 목소리가 다시금 안타까이 들려왔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특무장동무는 바
로 그 생각부터 고쳐야했습니다. 만약 특무장동
무 말대루 용감성이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서
만 발휘될수 있는것이라면 전투마당에서 비겁성
으로 하여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전투원에게는
잘못이란 도대체 있을수 없다는것이 아니겠습니
까. 애당초 저 경모동무와 같은 사람은 군대에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할 사회의 군더더기가 아니
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

《그리고 어째서 경모동무를 보고 〈아바이〉 라
고 하십니까?》

《저- 그건...》

《경모동무는 미국놈들때문에 태백산골짜기에서
숫구이를 하며 살아온 의용군출신이라는걸 동무
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구요. 집단생활이 몸에 배지 않아 동
작이 굼뜨것도 사실이구. 그렇다면 전사의 면모
를 갖추도록 도와주는것이 옳지 동갑친구를 보고
〈아바이〉 가 뵈니까. 그건 전우에 대한 모욕입
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특무장의 목소리는 자책에 잠겨있었다. 기가
끼인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니 방금까지 그에 대
해 솟아오르던 고까운 감정은 불연에 놓인 얼음
덩이처럼 녹아버리고 대신 그를 책망하는 운배에
대한 나무람이 비온뒤의 굴뚝의 연기처럼 솟구
쳐올랐다.

(《아바이》라면 어찌고 동무라면 뭐라는가. 별
걸 가지고 괜히 특무장까지 욕하면서, 사람두
참.)

특무장을 만날 생각을 그만두고 취사장으로 돌
아온 나는 한동안 망연히 한자리에 서있었다. 무
얼 하자고 하여도 일이 손에 걸리기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다. 그저 운배에 대한 고까운 마음뿐
이었다. 나는 그가 다른 중대로라도 옮겨갔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남들은 승급도 잘하고 군
관학교 같은데도 잘 가는데... 하긴 그런 딱딱한
사람을 누가 데려가겠어...

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지난
날들이 돌이켜졌다.

나는 고아이다. 몇살때 부모를 여의었는지 기
억조차 못하고있었다. 형제도 살발은 친척도 없
었다. 어렸을적부터 왜놈목재상이 경영하는 숫구
이막에서 고역을 치르렀다. 옷이 없어 겨울에는
산 짐승가죽으로 추위를 막았고 여름에는 피나무
껍질로 험한곳을 가리우고 살았다. 신발은 생각
조차 못하였다. 나무를 찍다가 잡판목그루터기에

발바닥이 찢려서 다리가 나무통처럼 부어오르고 열이 심해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가는 종당에 《어머니-》하고 목침을 적시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픔을 참는 약은 자신의 눈물이었고 같이 일하던 로인이 방바닥이 꺼지게 툇아쉬는 한숨소리 뿐이었다. 상처자리가 아물기전에 다시 찢리우고 그러기를 몇십번, 덕지가 앓고 그우에 다시 떡살이 생겨 점차 발바닥은 웬간한 돌부리에 채이거나 나무그루터기를 밟아도 끄떡하지 않았다. 그것은 야생화돼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왜놈은 망했으나 나에게는 해방이 없었다. 왜놈보다 더 악독한 미국놈들이 기여들어 주인노릇을 했다.

눈물, 비애, 한숨, 천대와 구박, 그것이 련속이었던 그 나날들은 생활이 아니라 굴욕이었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짐승으로 살것을 강요당한 나날이었다. 그런데 날보고 공부를 하라니...

나는 희미한 공간에 초점없는 눈길을 보내며 무거운 한숨을 길게 툇았다.

...여름도 다 가고 아침저녁 선기가 나기 시작하는 9월초의 어느날밤, 하늘에는 달이 밝았다.

나와 리운배는 마차를 몰고 전선의 밤길을 가고있었다. 식량을 싣고 중대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놈들의 폭격으로 성북천다리가 형체없이 파괴되어 련대로부터 후방공급이 일시 끊어졌던것이였다. 그래서 중대에서는 30여리 떨어져있는 마을에 내려가 식량을 실어오기로 하였는데 그 임무를 나와 리운배에게 맡겼던것이다. 입대하여 처음으로 받게 되는 임무였다. 전투경험도 상식도 전혀 없는 나는 이런 중요한 임무를 꽤 해내겠는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혹시 특무장이나 부소대장 같은 날과람있고 명사격수같은 전투원들과 같이 가게 되었다면 그런 걱정이 다소 적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하필 윤배와 같이 보낼건 뭐람, 중대장은 특무장한테 과업을 주었는데 윤배가 가로나서서 맡았고 나와 같이 가겠다고 우겼다고 한다. 물론 취사병이니 식량을 가져오는데는 응당 나서야 할 일이였지만 리운배와 같이 가게 되는것이 불만이었다. 무슨 일이든 혼자 아니고 둘이서 할 때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손이 맞아야 성과가 있는 법이다. 항차 생명을 내대야 하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리운배와 같이 그 어렵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수 있을가.

놈들이 틀고앓은 돌출부앞고승이를 통과하는것이 문제였다. 외통길이어서 다른데로 에돌아갈수도 없었다. 전번에도 마을에 내려가 식량을 실어온적이 있었는데 이 돌출부앞고승이에서 적들과 교전속에서 겨우 빠져나왔다고 했다.

갈 때도 별일없이 갔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지금껏 별일 없었다. 그래서 담도 어지간히 생겼지

만 돌출부앞을 통과해야 한다는 긴장감으로 하여 추가목을 틀어쥔 손바닥에는 땀이 질펀하니 내뻘었다.

교묘한 달빛이 깔린 전선의 밤은 신비로울만큼 고요하다. 이따금씩 상서롭지 못한 탐조등이 헤살치군하나 하늘중천에 등뜬 보름달빛에 무기력하듯 꼬리를 감추군한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고장에 가자구. 그뻔 솥을 구울 필요는 없을테니까. 기막힌고장이야. 논벌이 끝에서 끝이 안보이지...》

나는 손에 땀을 쥐고있는데 윤배는 태평스럽게 쌀가마니에 등을 기대고 앉아 구름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숨박꼭질하는 달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고있다. 밤색말도 달밤의 정서를 느껴서인지 경쾌하게 울리는 발굽소리에 박자를 맞추듯 고개를 주억거리며 걷고있다. 사위는 피피한데 말발굽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고있다. 돌출부가 가까와 올수록 말발굽소리는 더 크게 울리는것 같았다. 나는 여태껏 술한 솥마차를 몰고다니었지만 이렇듯 말발굽소리에 신경을 써본적은 없었다.

생각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말편자를 뽑아버리고 싶었다. 어쩐지 그 말편자소리가 이밤의 임무를 망칠것만 같았다.

윤배가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었으나 나의 귀에 들어올리 없었다.

나는 이밤, 세상만물을 환하게 비쳐주는 저 하늘의 달이 끝없이 알미웠다. 내가 이날밤처럼 달 밝은 밤을 저주해본적은 없었을것이다. 전쟁이 아니라문야 밤길을 갈 때 이런 달밤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어느 은폐호에선가 검은 총구가 생명을 노리고있는 전쟁에서는 더구나 은밀히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들한테는 캄캄한 어둠이나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 더 나을것이다. 찬비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저 말발굽소리도 삼켜버릴것이고 이 마차도 감싸줄것이며 놈들은 은폐호안으로 몰아들일수 있었기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라면 이 고요한 달밤을 광풍이 몰아치게 했을것이다.

《경모동무는 그새 날 육 많이 했지?》

윤배의 말에 나는 미처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동무는 아마 부뚜막에 앉아 글을 읽을 때 누구보다 이 세포위원장을 더 욱했게야.》

정통을 찢리운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어쩔수 없었다. 그와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이 참 다행스러웠다.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졌다. 크지 않은 구름장이 달을 가리웠다. 어둠은 오래가지 못했다. 또다시 푸르스름하고 부드러운 달빛이 가득찼다.

《우리는 지금 정의의 전쟁을 하고있어. 이 정의의 전쟁은 정의를 위해 매개 전사들에게 한목

숨 바칠 비상한 각오를 요구하고있소. 그러자면 군인은 일상생활에서 단련이 돼야 하거든. 숨을 굽는것과 같은 리치이지. 불이 좋아야 숲이 잘 구워지지 않나. 우선 정신적수양부터 쌓아야 하네. 내 경모동무한테 잔소리도 하고 욕도 한건 그래서 한거네.》

윤배의 목소리는 사과하듯 조용히 울리었다.

한목숨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그럼 미국놈과 싸움에서 이 장경모는 한목숨을 바치지 못할것 같아 그러는가… 나두 그런 각오는 이미 하구 있다.

《저기 앞굽인돌이가 심상치 않구만.》

윤배는 기관단총가목을 그리워며 턱으로 앞을 가리켰다.

나는 속이 한줄만해져서 앞을 살피었다. 달빛에 이슬돋힌 나무잎만 번들거릴뿐 별다른 징조는 느낄수 없었다.

《적들이 매복했소. 덤비지 말고 바투 접근했다가 내가 수류탄을 던지면 마차를 때려몰라구.》

윤배는 기관단총에 새 탄창을 갈아끼우고 수류탄을 꺼내놓았다. 인제는 마차를 돌리기에도 때가 늦었고 또 돌아갈 길도 없었다. 뚫고나가야 했다. 이쪽은 두명이니 놈들은 생포하자고 할것이다. 놈들한테 바투 접근했다가 화력을 퍼부으며 매복권을 벗어나는것이 상책이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속을 쿵쿵 울리었다. 말도 무슨 기미를 했는지 두귀를 종긋거리며 달리고 있었다.

《전투준비!》 윤배가 낮으나 힘주어 구령을 주었다.

나는 당장 저 산중턱에서 탄알이 무더기로 날아올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산중턱에서 달빛에 얼른하는 철갑모를 띄여보았다. 순간 나는 자신도 잊고 윤배의 구령도 잊었다. 오직 저놈이 쏘기전에 내가 먼저 쏘아잡아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만이 머리에 콕 찔었다. 나는 쌀가마니우에 팔굽을 세우고 조준하였다. 철갑모가 다시 보이는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그 순간 마차가 덜컹 들추는통에 나는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방아쇠에 걸고있던 손가락을 당기었다. 총소리가 울리었다. 말이 놀라서 앞발을 공중 들고 요란한 울음소리를 질렀다. 은밀히 접근하여 행동하러던 계획은 뜻하지 않은 오발로 하여 다 틀어지고 말았다. 산중턱에서 불비가 쏟아져내렸다. 몸을 바로잡는 순간 시뻘건 불빛이 마차바퀴옆에서 번쩍했다. 수류탄이 터지었다. 나는 흠칫 놀라 쌀가마니사이에 엎드렸다. 이럴 때 마차를 빨리 몰아야 사격권을 벗어나겠으나 나는 창황중에 갈피를 잃고있었다.

《경모, 마차 빨리!》

윤배의 벽력같은 고함소리가 울렸으나 나는 조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총만 쏘았다.

수류탄을 뿌리던 윤배가 기관단총을 앞가슴에 걸고 나의 앞으로 넘어오더니 말에 채찍을 안기었다. 나는 그가 두다리를 벌려딘고 성난 사자와 같이 거연히 서서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다. 적탄이 귀뿌리를 스치며 날아왔다. 마차는 질풍처럼 달리었다. 이때 거목처럼 서서 채찍을 휘두르던 윤배가 밀잘린 나무같이 푹 거꾸러졌다. 나는 다급히 그를 안아일으켰다.

《마차를 빨리-》

윤배가 독촉해서야 나는 비로소 이런 정황속에서 놈들과 교전을 벌리는것보다 빨리 놈들의 사격권을 벗어나야 한다는걸 깨달았다. 나는 무작정 말을 때려몰았다. 총소리가 뜨음해졌을 때 나는 채찍을 놓고 윤배한테 돌아섰다.

《무사하오?》

《예, 놈들의 총알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대답이 떨어지자 윤배의 얼굴에 어렸던 긴장감이 가서지고 입가턱에 알릴듯말듯 안도의 미소가 떠돌았다. 나는 가슴이 몽클했다.

그제서야 나는 윤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된것을 알았다. 군복앞가슴에 피가 즐쩍하니 배어있었다. 상처는 허벅다리에도 있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경모, 내… 당원증을… 줘- 꺼내-주-게-》

나는 피젖은 그의 옷자락을 들추고 당원증을 꺼내주었다.

《이게 내 당원증일세… 당원증번호…를 읽어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당원증을 펼쳐들었다.

첫장에 그의 사진이 있었다. 흰 저고리우에 까만 조끼를 받쳐입은 어리무던한 농민의 사진이였다.

나는 달빛에 떠듬떠듬 당원증번호를 읽었다.

《그게 당대렬에서 나의 위치이지- 내가 제 위치를 지켰…는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경모… 당원증을 잘…보라구. 내가 경모 입당할 때 보증을 하자구 했는데… 이젠 안되겠어.》

나는 금시라도 심장이 푹 멎는것만 같았다. 딛고 선 땅이 빙글빙글 돌면서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입당보증을… 그럼 내가 당원이… 내가 감히 어떻게…

심장을 쥐여짜는듯한 아픔이 전신을 찌릿하게 훑는다. 그 아픔이 눈뿌리로 솟아올라 눈물이 비 오듯했다.

《경모 꼭… 당원 이…》

윤배는 고개를 외로 푹 떨구었다.

《세포위원장동무-》

나는 와락 그를 붙안고 흔들었다.

그의 최후를 목격하게 된 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듯했다. 마지막까지 그를 이해하지 못

하고 내 잘못으로 떠나보낸것이 것처럼 커다란 슬픔을 몰아왔다.

《세포위원장동무, 가지 마-오. 가지 마시오!》

나의 울부짖음은 달빛어린 전선의 하늘가로 비통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러한 뼈아픈 슬픔조차 오래 더칠수 없는 준엄한 나날이었다. 사랑과 증오를 가르쳐준 엄혹한 그 시절이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흐르고 또 흘렀다. 10년... 20년... 30년... 바다기슭을 밟는 파도와도 같이 지난날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리운배의 모습만은 생생하게 남아있다.

리운배, 옛중대세포위원장... 나에게 인간의 존엄과 생활의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준 생활의 교사.

나는 어려웠던 전화의 나날에 중대당세포위원장을 통해 공부하기는 힘들었지만 《저주러운 낡은 사회의 유물》을 벗어던지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물론 준엄한 사회환경이 나를 단련시켰지만 중요한것은 중대당세포위원장이 나에게 부모도 줄수 없었던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사상을 심어준것이였다. 내가 오늘도 그를 잊지 못하는 이때문인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런 증임을 맡게 되였다.

나는 지금 좁전에 다녀간 전사로 하여 마음이 개운치 못하다. 그것은 약속을 리해하지 않은 작전참모한테서 오는 불만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루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는 그 하루가 일년맛잡이로 속을 말리우는 법이다.

착암기물주부라는 자재는 작고 보잘것 없는것이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런것이 루적되면 후과는 실로 큰것이였다. 왜냐하면 우리 지휘관들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전사들이 지휘관의 말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좌우되는것이다.

그런데 세포의 한 당원이 생활에서 이런것을 소홀히 하는 결함이 나타난것이다. 이럴 때 리운배라면 어떻게 하였을것인가.

나는 전화로 자재창고에 착암기물주부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얼마전에 다 나가고 있는데 며칠있어야 가져온다는것이였다. 그때까지 전사들이 기다리라고 할수는 없었다.

나는 30여리 떨어져있는 광산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물주부를 얻어다가 작전참모의 손에 쥐여주고 깨우쳐주려는것이 나의 생각이였다.

나는 모자를 쓰고 밖을 나섰다.

승용차가 부대정문을 벗어나 나지막한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앞이 환해졌다.

동컨산마루로 성장을 한 새각시의 얼굴처럼 환하고 부드러운 둥근달이 솟아올랐다. 달빛은 아낌없이 쏟아져내렸다. 가깝고 먼 야산의 룰판이 선명치 않은 다박술밭에서는 윤기가 흐르는 뽕안개가 서서히 떠오르고있다. 숨을 쉬듯이, 숨을 쉬면서 달빛을 찬미하는것 같다. 아니 달빛이 나의 앞길을 축복하는것 같기도 하다. 달빛이 깔린 길우로 승용차는 나는듯이 달렸다.

-당창건 50돐기념 전국문학축전작품-

출근길에서의 느낌

박세일

오늘도 바빠 현관밖에 나서니
날이 다 밝으려면 아직도 한참...
허나 벌써 거리는 웅성거린다
또 하루 출근이 시작된것이다

싱싱한 아침대기 한껏 들이키며
나처럼 서둘러 달려나온 사람들
가방을 휘둘리며 팔을 쑥 저으며
경쟁이나 하듯이 정류소로 향하거나

초조한듯 손목시계 들여다보며
옷자락 펄럭 바람을 일쿠며
진지를 차지하는 병사들인양
날래게도 뺄스줄에 들어서는 광경이여

지금 이 시각에도 잠에 술에 취한 사람이
지구촌 곳곳에 많다고 생각할 때

무위도식의 이부자리우에
술병처럼 나딩군다고 생각할 때

장하구나 근로하는 내 나라의 공민들
다른 모든 일에선 양보심이 많아도
당중앙의 구호를 심장에 안고살아
아침출근길 정류소에서만은 저마다 바쁜사람

련이어 와닿는 빠스여, 전차여
이런 때는 좀더 자주 올수 없는가
기다리는 일터, 쌓여지는 일감앞에
우리를 더 빨리 실어줄순 없는가

생활에서 투쟁에서 우리는 오늘도
지각생이 되기를 원치 않노라
한번 결심한 사회주의결승선에
정해진 시간까지 들어서야겠노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만대에 빛내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며 그와 어긋나는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자!

우리 당의 영예, 주체조국의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이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높으신 권위를 절대화하고 백방으로 보장하자!

일편단심 **김정일**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이 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과 철석같은 의지를 간직하고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는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자!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량심,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직하고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

백두밀림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 강선의 로동계급과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발휘한 그 투지, 그 기세로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빛나게 관철하자!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의 기본력량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이다.

전군을 주체사상화하자!

우리 당에 충실한 혁명무장력에 영광이 있으라!

전군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워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우자!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 만세!

구호해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셔온 자랑과 영광을 길이 전하며 자자손손 우리의 후대들을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키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이 구호에는 우리 작가들의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제시되어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한평생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전하여야 할 과업이 우리 작가들에게 맡겨져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숭고한 품모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이고 체험자들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을 잘 형상하여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셔온 자랑과 영광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 세대 작가들이 지닌 가장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은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혁명의 교과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으로 하여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는 사상의 권위이고 령도의 권위이고 인간적품모의 권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한생은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한생 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독창적인 혁명리론을 집대성하고 완성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주체사상이 구현되어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리한것처럼 주체사상에 의하여 주체혁명위업이 종국적으로 수행되며 우리 인민이 세계에서 제일먼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은 리론실천적으로 확증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진수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모든 혁명리론을 독창적으로, 완전무결하게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을 전면적으로 형상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전략가, 위대한 령도의 예술가로서 한생을 빛내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고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가신 정치적령도의 대가이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투쟁 목표와 방향, 동력과 대상, 과업과 수행방도를 정확히 제시하고 혁명력량을 옹결히 편성하여 언제나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전략가이시고 위대한 령도의 예술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70여성상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면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일제와의 대결을 선포하고 30대에 일제를 굴복시켰으며 40대에는 미제를 타승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은 투철한 혁명적원칙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으로 언제나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만드신 위대한 혁명가이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이러한 위대한 령도 품모를 전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한평생은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바치신 빛나는 한생 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철학에 기초하여 《이민위천》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였으며 인민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들이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빛나는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인민들을 돌보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전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또한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고 정책을 짜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로고를 바치신 우리 수령님과 같은 인민의 아버지는 인류사가 아직 알지 못한다는것을 형상으로 깊이 있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후대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히 인민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키워나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풍만한 결실을 마련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관철하고 당창건 5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어머니의 부름

김영근

읽을수록 뜨겁구나
새길수록 절절하구나
걸음마다 어버이수령님을 그러며
10월을 향해 뛴던 우리 가슴에
당중앙이 안겨준 이 구호

나는 들노라
눈물속에 철들고
슬픔속에 성장한 자식들 가슴에
아버지의 유혼을 되새겨주는
다심한 어머니의 정깊은 목소리를...

아, 우리 당 창건 50돐-
영광에 찬 력사의 이 분수령을 넘어
우리가 맞이할 승리의 아침은
얼마나 장엄하고 눈부신것이나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안고계신
그 모든 구상을 꽃피우며
우리가 헤쳐가는 오늘의 한걸음에
어머니당의 존엄이 실려있고
땀으로 새겨가는 한자옥한자옥에
혁명의 운명이 얹혀있거니

진군으로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천만자식들을 효자로 믿어주는 사랑의 목소리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번영으로 힘차게 이끄는 신념의 목소리
어버이수령님은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하심을
천만대에 새겨주는 영생의 목소리

그 부름에
불을 안고 우리는 10월로 간다
신심 드높이 미래에로 간다
그 부름에 우리는
붉은기발 더 높이 추켜들고
광풍을 짓부셔 승리에로 나간다

어머니의 그 부름에
석탄발엔 발파소리 지심을 흔들고
검덕의 막장이 들끓는다
용해장마다엔 쇠물이 폭포치고
대지엔 만풍년을 불러
프락또르 발동소리 기운차다

보라, 세계여
예대로 푸른 우리의 하늘을
여전히 빛나는 우리의 태양을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천만이 하나로 뭉치여
주체의 한길로 억세계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을
필승불패의 우리 당의 모습을

어머니당이 부르는 이 길에
인민은 강해지고
조선의 영광은 빛발쳐오르리라
우리의 혁명은 불패로 다져지고
수령님의 위업은 만대에 빛나리라

아, 10월로 부르는 당중앙의 목소리
위훈으로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뜨거운 목소리

김송남

가슴가슴을 두드리며
심장심장을 흔들며
뜨거운 목소리는 울렸다
아, 당중앙위원회의 구호

환희에 부풀고

금지에 뛴다는 이 마음 불러
50돐 축전장에 승리자로 세우며
엄숙한 부름은 울렸다
아, 우리 당중앙위원회 구호

홍벽을 치는 이 뜨거움은

끓는 피인가 불의 맹세인가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우치며
마음은 벌써 보람찬 길을 떠났다

이제는 더욱 두렵지 않다
가는 길 그 아무리 풍파 사납다 해도...
바라던 빛발같은 이 구호
내 눈앞을 환히 띄워주고
기다리던 봄우뢰같은 이 부름
희망이 되어 신심이 되어
내 가슴 시원히 터쳐주나니

구호이기전에
내 심장에 열기를 주는 활력소
나의 피와 살
나의 숨결에 불붙이는
거세차고 성스러운 불씨

이 부름속에 내 넋이 숨쉬고
내 넋속에 이 구호가 맥박치누나
김정일장군님 더 높이 받들어
수령님 뜻 만대에 빛내가리라고...

그 아니고 내 목숨 어디에 소용되랴
이 구호의 부름을 떠나

내 삶이 누릴
한조각 기쁨도 보람도
이 땅엔 없나니

그렇게만 살리
철학도 우리 당의 혁명철학으로
사상도 기상도 우리 당의 사상과 기상으로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길에서
꽃바다 설레이는
10월의 대축전장을 바라보는 이 기쁨이여!

아, 거기 높은 단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수령님 웃으시던 햇빛같은 그 미소 뿌리시며
우리 당
우리 군대
우리 인민
승리자의 시위를 축복해주시려니

불러주고
이끌어주는
이 뜨거운 목소리속에
50췌 그날에 터치고
천세만세 후세가 터쳐올릴
내 조국의 영원한
승리의 함성이 메아리치고있어라!

우리의 생

리영권

낳아준 부모에게서
첫생을 받듯
참된 인생은 저절로 오는 행운도 아니...
황금과 재부를 들어
그 누구에게서 선사받는것도 아니...

이 땅에 살아
주고주는 사랑의 대가를
누리고만 간다면
토양에 뿌리못둔 돌덩이마냥
그 한생엔 세월의 이끼만 덮이리

백발이여도
뒤돌아본 생의 년륜에
먼지 오른 자욱만이 비낀다면
서리내린 황혼길이
얼마나 구슬프랴

오, 이 땅에 살아 숨쉬
세월의 나이만큼도 아니여라
귀중한 조국에 자기를 다 바쳐
빛나게 남긴 자옥이
우리의 생이 아닌가

《사공령감》

정영중

외아들을 가진 부모들이 남달리 자식을 애지중지하는것은 많은 경우 가정의 대를 잇는 문제와 결부된 조심스러운 심리일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군대에 내보낼 때 옆에서들은 외아들을 꼭 군대에 보내겠는가고 한마디씩 했다.

물론 그런 권고에 귀기울일 부모가 지금 어디 있으랴만 그 순간 나는 어쩐지 상존아바이라고 부르던 한 로인을 이미전에 사귀지 못했더라면 혹시 망설여지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만큼 그 로인은 나의 생활에, 내 아들의 성장에 지울수 없는 자국을 남긴 잊지 못할분이였다.

1

그를 처음 알게 된것은 20여년전이었다.

한창나이의 팔팔한 젊음이었던 나는 그해 초여름 로력혁신자의 자격으로 휴양을 갔었다. 당 제 5차대회에서 제시된 6개년계획의 생산과제를 두 해만에 넘쳐한것이었다.

지금도 나는 그때의 휴양생활을 생생히 그려볼수 있다. 산골내기인 나를 유혹하기엔 그저그만인 동해의 그 비취색물결, 기암괴석이 들쭉날쭉한 도래굽이를 켄충거리며 최망태기에 섭이며 전복을 따들이는 재미와 물릴줄 모르던 섭죽맛, 게다가 서툴기 짝없는 배놀이 는 또 얼마나 흥취로왔던가. 밤에도 침대에 누우면 몸은 흥취이는 파도를 타고 환각의 세계를 끝없이 둥둥 떠가는것이였다.

그러던 이 모든 재미가 별안간 그 빛을 잃게될 줄이야. 내가 그만 짝사랑에 빠진것이였다!

휴양생들중에는 어느 화학공장에서 온 춘순이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우습게도 나는 어떤 특별한 계기도 없이 그에게 반해버렸다. 물론 곱게생겼고 이름그대로 봄썩마냥 청초해보이는 처녀였다. 그런데 언제봐야 떠들썩한 휴양생들과는 달리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너설에 호젓이 앉아 명상에 잠기거나 책에 묻혀있기가 일쑤였다. 몇번 그를 배놀이며 저녁식사후의 오락회에 끌어넣어본 사람들은 《생긴것과는 달리 영 재미없는 녀자》라고 혀를 찼다. 처녀가 때없이 멍하니 제 생각에 음해있는가 하면 지어 망해도 구하지 않고 홀쩍 자리를 떠버리곤하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 남다른 점이 나를 끌어당긴것 같았다. 특히 그의 수심질은 오목눈빛은 내 가슴을 매번 야릇하게 휘저어놓는것이였다.

나는 화가 났다. 그래서 혼자서 반발도 하고 부인도 했다. 사내라는게 무슨 꼴이람, 경망한 꼴내기모양 아무 분별도 자존심도 없이... 아니, 그저 그 수심에 잠긴듯한 처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혼해빠진 호기심따위일뿐이야!

하지만 해수욕이며 배구경기, 배놀이 같은것을 할 때면 절로 처녀의 모습을 더듬어 찾게 되고 그러다 보이지 않으면 대뜸 시무룩해지는 기분은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또 그와 마주서기만 하면 꼭 말더듬이가 되어버리는것은?

하루는 휴양소에서 퇴소기념공연계획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너도나도 거기에 참가하겠다고 했다. 유쾌한 휴양생활의 인상이 절정을 이룰 기회라고 여긴듯했다. 나도 기꺼이 나섰다. 문제의 처녀와 매일저녁 마주앉는 행운을 기대해서였다.

그런데 첫날도 다음날도 처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3일째 되니 노래부를 흥심은 싹 없어졌다. 나는 그만 교양실을 빠져나왔다. 달밤이였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한동안 이곳저곳 어정거리다 문득 녀성호동앞에까지 이른것을 안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한 호실의 열려진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은 나의 의지를 거슬러 검질기게 발길을 끌어당겨다. 다름아닌 그 처녀의 호실이였다.

에라, 지나치면서 한번 슬쩍 결눈질해보는것쯤이야!... 공교롭게도 창문안을 기웃하는 순간 나는 책상우에 무슨 종이장들을 가득 퍼놓은채 턱을 고이고앉아있는 처녀와 눈이 딱 마주쳤다.

《누구예요?》

처녀는 흠칫하며 몸을 일으켰다. 나는 여지없이 당황망조했다. 도망치기엔 때가 늦었고 그렇다고 적당히 둘러댈 말 또한 떠오르는게 없었다.

《저... 빈방에 불이 켜있나해서... 아니, 난 생각하기를...》

다음순간 나는 세상없는 못난이가 나로구나 하는 불끈한 생각에 《동무, 집체행동에 빠지면 되오?》 하고 역증처럼 내질렀다.

《예?!》

《예술소조련습말이요. 동물 데려오라고 야단들이요.》

어리둥절해있던 처녀의 눈이 더욱 커졌다.

《전 휴양소장의 승인을 받았는데 ?!...》

아마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싶다는 소리가 이런 경우에 해당될것이다. 온밤 나는 수치심에 잠을 못이루었다. 그런데 이튿날 어떻게 알려졌는지 엉터리없는 소문이 휴양소에 짹 퍼졌다. 내가 그 처녀에게 청혼했다가 보기 좋게 채웠다는 것이었다. 희떠운 친구들이란 어디에나 있는 법이어서 그들은 나를 따라다니며 채운 자리가 열 열하지 않냐, 처녀의 코대가 보통 아닌즉 이제라도 자네 선반기의 바이트날을 들이대보는게 어떠냐 하고 귀가 솔갑게 수다를 떨어댔다. 나는 억울하고 창피하여 낮을 들수가 없었다.

한데 일은 더욱 터무니없게 번져갔다.

그날저녁 모두 공연준비로 교양실에 몰려간후 팔이 아프다는 핑계로 혼자 호실에서 덩굴고있는데 기척도 없이 한 휴양생아바이가 들어섰다. 희숙한 상고머리며 검실한 얼굴에 가득 잡힌 주름살로 미루어 환갑줄은 돼보일, 그러나 어깨가 떡 벌어지고 허리도 꼳꼳한것이 여간 정정하지 않은 아바이였다. 내가 그에 대하여 아는것이란 무슨 기분좋은 일이 생기면 《에헴 에야 배 띄워라》 하는 옛 노래가락을 곧잘 흥얼거린다는것과 그때문인지 《사공평감》이라는 랑만적인 별명으로 통한다는것, 실지 노젓는 솜씨가 대단하다는게 전부였다.

아바이는 침대에 나자빠져있는 나를 유심히 굽어보다말고 허파빈 웃음을 터뜨렸다.

《그 주제에 우리 춘순이한테 불질해?》

나는 얼떠름하여 눈을 꺼벅거렸다.

《왜, 무슨 소린지 모르겠나?》

아바이의 미간이 금시 찌프려졌다.

《우리 춘순인 머리가 복잡한 아야. 일이 꽤 차있단말일세. 휴양소에 와있지만 창안설계때문에 웃을 짬두 없어. 한데 자네의 시퍼런 눈찌가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니 어디 그애가 뒤숭숭해서 일손을 잡겠나?》

비로소 사유를 안 나는 속이 뒤집혔다. 이 하루동안의 쓰디쓴 굴욕감이 불길같은 노기로 활활 타올랐다. 나는 후닥닥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남이야 불질하든말든 무슨 간참이시우. 예?!》

《허- 무슨 간참이냐구? 그애 일을 훼방하는데 내가 가만 있어 ? 우리 공장일인데두!》

《좋수다, 좋아요. 아바이네 춘순인지 뭔지 손가락하나 안다칠테니 걱정일랑 말라구요.》

나는 풀무처럼 풀떡거리며 히 빙 밖으로 달아났다.

어둠이 사위를 뒤덮고있었다. 교양실쪽에서 울려오는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무슨 조롱처럼 들려 단숨에 바다가까지 나갔다. 수평선아근에서 밤 고기잡이하는 사들선들의 불빛이 반짝거리고있었다. 어디선가 통통거리는 발동소리가 아스런

히 들려오는데 비릿한 해풍이 달아오른 나의 얼굴을 쓰다듬어주었다.

물결이 출렁대는 바위너설에 우두커니 앉았노라니 허망하기 그지 없었다. 무슨 도깨비에 홀려 처녀의 호실안을 어정거렸담. 그건 그렇다치고 여태 내 눈길이 뒤숭숭해서 일을 못할 정도로까지 처녀를 물고늘어졌됐는가?

해풍에 불린 담배내굴을 맡은것은 잠시후였다.

이어 누군가 털썩거리며 등뒤로 다가왔다.

《여기 있었나?》

그 아바이였다. 이런 끈끈이령감 뵈나 하는 역증이 치밀었으나 나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흠, 상기 뿔을 갈았는지 못했군.》

아바이는 스스럼없이 내곁에 꿇 주저앉더니 한결 누그러진 어조로 은근히 물었다.

《자네 대천기계공장에서 왔다지. 한다하는 고급 선반공이구!... 이름이 뭔가?》

비로소 힐끔 고개를 돌린 나는 담배불빛에 불그레해진 아바이의 땀구멍투성이 불편을 보았다. 순간 알수 없는 반발심이 다시 꿈틀 살아올랐다.

《어디 신소라도 하실려우? 동호우다. 장동호.》

《동-호?!》

나는 놀랐다. 아바이의 목소리가 신음처럼 피이하게 울린때문이었다. 그의 손에 들어있던 담배불이 출렁이는 수면위에 떨어져내렸다. 너무 바투다가온 아바이의 얼굴을 피하여 나는 주춤 물러앉기까지 했다.

《?!...》

《흐음-...》

아바이는 무겁게 한숨을 내뿜더니 나를 외면하고 다시 담배를 피워물었다. 껌벅이는 담배불이 눈에 띄게 흔들거렸다.

그가 다시 입을 연것은 오랜 침묵뒤끝이었다. 그 목소리는 무척 갈려있었다.

《달리 생각말게. 내 뭐 탓하자는게 아니라... 자네가 보긴 바루 뵈어. 우리 춘순인 좋은 체네야. 기계기산데 6개년계획기간에 우리 공장설비를 전부 자동화할 결심을 하구 몇달째 애를 써오지. 당에서 그걸 요구하잖나. 그러다나니 몸이 반쪽이 뻤어. 휴식시키자구 이리로 끌고왔네만 어디 머릴 쉬워야말이지. 그것때문에 휴양소장이 설계도면을 뺏는다, 쫓겠다구 울러멘다 얼마나 소동을 피웠다구. 내 손이야 발이야 빌어서 겨우 눈감아주게 만들었다니. 한데 이번엔... 허허. 젊은이들이란.》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째선지 가슴이 답답해 났다. 선반공과 기계기사, 생활의 패락에 젖어 머리가 우습게 내돌리운 경망한 총각과 즐거운 휴양생활마저 창안의 고심으로 빈틈없이 엮어나가는 홀롱한 처녀, 그 둘사이의 심연은 얼마나

깊은가.

위압감에 짓눌려온 나는 마침내 아바이쪽은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떠듬떠듬 중얼거렸다.

《그런줄 알았다면야… 실은 처녀가 무슨 고민을 하는것 같길래 동정이 가서… 뭐 주제넘은 욕심을 품은건 아니우다.》

순간 아바이의 얼굴이 내게로 픽 돌려졌다.

《그게… 진정인가?》

《…》

《한즉 결국 장난삼아 건드려보았다는거지?》

나는 한순간 숨이 킁 막혔다. 이거야 내가 처녀들이나 희롱하고다니는 망나니란 소리 아닌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모욕감에 입귀가 푸들푸들 떨렸다.

《뭐 장난삼아라구요? 난 뭐 맘에 없었던줄 아시우? 일을 생각해서 양보하니까 날 무슨…》

별안간 아바이가 주먹으로 바위너설을 내리치며 《거짓말!》 하고 고함쳤다.

《양보는 무슨 양보, 기사라니까 짝이 기운다구 지레 겁먹구 쫓무닐 빼는거지. 덩치가 아깝네. 덩치가! 진짜 맘을 두었됐으면 끝장을 보는게 사내야. 그래 우리 춘순이만한 높이루 올라서서 당당히 맞서볼 배짱은 못부리겠던가. 엉?》

아바이는 헐떡거리던끝에 숨가쁜 기침까지 잦아들었다. 나는 아연했다. 생면부지와도 같은 아바이가 무슨 권리로 이토록 험한 입도끼질을 해낸단말인가? …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격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무슨 소리든 계속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이였다.

그러나 아바이는 좀 진정되자 통명스레 《사내 싸게 굴게. 사내싸게!》 하고는 그대로 가버렸다.

나는 그날에야 그 아바이의 이름이 상준이란것을 알았다.

이튿날부터 나는 그 어떤 기대가 담긴듯한 상준아바이의 눈길을 바다가에서도, 오락장들에서도 지어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에조차도 무시로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춘순이라는 처녀를 상대로 내가 놀던 역을 반대로 그가 나를 상대로 시작한것과도 비슷한것이였다.

리해할길 없는 이 놀라운 변화가 동호라는 내 이름에서 환기된것임을 그때 알았더라면!… 어쨌든 상준아바이의 그 눈길은 나를 수치와 피로움 속에 안정을 잃게 만들었으며 라는듯한 반발심도 키질해주었다.

헤여질 때 내가 아바이를 찾아가 공장에 돌아가면 공장대학을 다니겠다고 약속한것도 아마 그 눈길때문이였을것이다. 물론 나는 그 결심을 실천했으나 상준아바이에 대해서는 얼마후 잊어버렸다.

그러나 아바이는 나를 잊지 않고있었다.

그해 가을 어느날이였다. 나는 교대가 끝난후에도 퇴근하지 않고 새로운 가공지구를 만드느라고 공공 갑자르고있었다. 그때 공장접수에서 누군가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덜렁덜렁 정문으로 나간 나는 한순간 돌미룩처럼 굳어졌다. 뜻밖에도 화학공장의 그 처녀, 춘순기사가 수집계 웃으며 서있는게 아닌가.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다고 할지… 심장이 상사말 뿔뿔 쿵당거렸을뿐 분명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듯싶다.

처녀가 먼저 인사를 하면서 《우리 상준아바이가 보내서 왔어요.》 하고 서둘러 덧붙였을 때에야 나는 싱겁기 짝없는 상상에 흥분해있는 자신을 쓰겁게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그 〈사공령감〉 이 말ियो?》

처녀는 반색했다.

《아이, 기억하고계셨군요.》

《어떻게 잊겠소. 〈청혼〉 했다가 채운 일을.》

심술궂은 내 말에 처녀는 《어마나!》 하고 얼굴을 붉혔으나 별로 타하는 기색은 아니였다. 처녀는 아바이가 얼마전에 공장정양소 소장으로 임명받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보낸다는것과 나를 만나면 우선 공장대학부터 다니는지 알아보라고 《지 시》 했다는 소리를 꺼냈다.

《아, 그런 약속을 했소. 돌아가면 첫 등교를 했다고 전해주우.》

《축하해요!》

처녀의 얼굴이 대뜸 환해졌다.

《그러잖아도 전 아바이한테서 만약 약속을 어겼을 땐 아예 상대도 말고 돌아서라는 엄명을 받아서 속이 조마조마했답니다.》

《그건 또 어째서?》

처녀는 방긋 웃으며 어깨에 걸친 러행용가방에서 긴 종이말이를 뽑아 나에게 내밀었다. 무심결에 펼쳐보니 꽤 복잡한 기계의 설계도면이였다.

비로소 나는 처녀가 전혀 딴 사람처럼 발랄해진 까닭을 알수 있었다.

《그러니… 끝내 성공했구만!》

《호, 아직 종이장에 불과한걸요. 정작 제작하자니 애로가 한두가지라구요. 특히 그 축가공은.》 하고 처녀는 도면을 눈짓했다.

《우리 힘으론…》

미리 언급한다면 그때 내가 공장적으로 다섯손가락에 드는 최고급선반공이였다는것이다. 이런 류의 도면을 매일같이 다뤄온 나로서는 첫눈에 벌써 특수재질을 써야 하는 그 축의 가공순서며 열변형을 피할 대안까지가 환했다. 그럼에도 나는 도면에서 인차 머리를 들수 없었다.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3대기술혁명

수행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온 나라의 수많은 대상설비생산때문에 낮과 밤이 따로없는 우리 공장이 계획에도 없는 이런것까지 받아들여주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아니, 그건 내가 잠을 좀 못자면 된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한때 리유도 없이 반했던 처녀의 오목눈이 초조하게 옆얼굴을 파고드는것을 의식하면 할수록 귀전에서는 《사공령감》의 그 은근하던 목소리가 점점 더 지긋게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자네 대천기계공장에서 왔다지? 한다하는 고급선반공이구!》...

랭소를 금할수 없었다. 《사공령감》은 그때에 벌써 춘순기사의 설계제작에 내 손이 필요하리라는것을 내다본것이였다. 하여 오늘 이 처녀를 파견하였다!

《꽤 깎을수 있을가요?》

처녀의 불안스러운 속삭임, 나는 내 귀에도 불쾌하게 들리는 짓눌린 웃음을 터뜨렸다.

《합시다. 기왕 연극을 시작한바에야 그 희극적인 주인공역을 끝까지 감당해야지요. 동무네 〈사공령감〉이 연출하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녀는 뚫어지게 나를 마주보았다.

《거기 모를게 뭐 있소?》

나는 그냥 심술궂게 이죽거렸다.

《내 출연료는 요구하지 않을테니 걱정말고 들어가지요.》

나는 몸을 돌리려다가 정문의 외등빛속에서 무섭게 해쓱해진 처녀의 얼굴을 보았다. 내 눈길을 끌던 그의 오목눈에서 어찌나 뚜렷한 경멸의 빛이 뿜어나왔던지 나는 흠칫했다.

《동무가 그렇게 생각할줄은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꼭 믿어도 좋다길래 왔더니... 그랬군요.》

처녀의 어깨가 갑자기 흐느끼듯 떨리기 시작했다. 좀 지나쳤는가 하는 생각에 나는 당황해났다.

《됐습니다. 믿고왔더니 깎아는 주겠소.》

그러나 때는 늦었다. 《그만하세요!》하고 부르짖은 처녀는 내 손에서 도면을 뺏 나뉘웠다.

《안녕히!》

잠간사이 처녀의 모습은 어둠에 묻혀 사라졌다.

나는 아프게 허를 깨물었다. 처녀의 경멸에 찬 눈빛이 여전히 불뚱처럼 얼굴을 지지는듯했다. 망령을 부렸구나. 처녀다운 자존심마저 버리고 쉽지 않은 걸음을 했을 그를 어리석게 모욕하고 쫓아버렸어. 제길, 그건 그렇다치고 사내가 좀 우둔렁거렸기로서니 께할건 뭐람!...

불시에 밤거리를 흔들며 기적소리가 긴 메아리를 일으켰다. 나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춘순기사를 이대로 보낼수는 없다!... 나는 주먹을 부르짖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초조감때문에 발이 어떻게 놓이든지도 몰랐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역구내에 뛰어들었을 때 화학공장방향의 남행열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때 나는 자신을 얼마나 무섭게 저주했던가...

아니, 그들과의 인연은 우연히 맺어진것이였지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았다.

내가 그 처녀를 다시 본것은 그로부터 몇분후 어깨가 처져 텅 빈 역홈을 빠져나온 순간이였다.

처녀는 역앞 소공원의 버드나무에 등을 기대채 우리 공장 용선로의 불그레한 화광이 비친 밤하늘을 시름겹게 쳐다보며 까딱않고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외롭고 쓸쓸해보여 나는 가슴이 찢르르해났다. 그러나 정작 처녀와 눈길이 마주쳤을 때 내 입에서는 또 심사바르지 않은 소리가 튀어나왔다.

《왜 안떠났소. 한번 침뱉고 돌아섰으면 되지.》

처녀의 눈에 반가움의 미소가 불꽃처럼 튀겼다. 그러나 쑥스러운듯 곧 고개를 떨구었다.

《고마와요.》

한참만에 처녀가 주저주저 속삭였다.

《제가 철없이 굴었어요. 사실 전 떠날수 없는 몸이에요. 아마 그냥 돌아갔더라면... 상준아바이한테 좋아릴 되게 맞았을지 몰라요.》

또 《사공령감》이다! 내가 불쾌해서 코김을 붙자 처녀는 노엽게 부르짖었다.

《동문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절 친딸처럼 사랑한다는걸 안다면 결코 그런 모욕적인 소린 못했을거예요. 제가 기사로 된것도 아버때문이었어요. 그런분이 기계부속 하나때문에 절 무슨... 미끼처럼 리용했을것 같아요?》

나는 무안스러워 공연히 헛기침을 짓었다. 《미끼》라는 한마디로 처녀는 나의 어리석기 짝없는 추측을 신통히 발가놓은것 이였다.

호- 한숨끝에 처녀는 나직이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인 슬하에 자식 하나 없는 외로운분이에요. 그래서인지 우리 젊은 사람들을 무척 사랑한답니다. 제가 공장에 배치받았을 때 제일 처음 사귄분도 바로 아버지였어요...》

3

...화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춘순은 시료분석공으로 배치되였다. 첫날 그는 공장을 두루 돌아보았는데 염료반장이라고 하는, 검실한 얼굴에 상체가 딱 벌어진 나이지숙한 아버지의 안내를 받았다. 그 아버지는 작업반별 생산정형으로부터 매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이며 모든 기대들의 성능 지어 그것들의 사용년한에 이르기까지 모르는것이 없었다. 하여 춘순은 반나절도 못되어 공장을 속속들이 파악할수 있었다.

현장에서 돌아온 춘순의 이야기를 듣자 분석실장은 웃으며 《우리 〈사공령감〉 이야 공장을 세울 때부터 있는 토배기로동자니까. 안된건 그에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거요.》 하였다.

춘순에게는 《사공》과 화학공장 토배기로동자라는 전혀 련관없는 두 직종의 호칭이 한사람에게 나란히 붙어있는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대신 자기를 안내할 때 아버지가 입었던 작업복바지에 새끼손가락만한 구멍이 두개나 있는게 바로 자식없는탓에 머느리손을 빌릴 호사를 못누려 그랬구나 하고 짐작할수 있었다.

마음이 알근해진 춘순은 이튿날 시료분석하러 염료반에 들린 기회에 휴계실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바지를 몰래 벗겨 깎기 시작했다. 그러나 때마침 나타난 바지주인에게 곧 들켜고말았다.

귀뿌리가 빨개져 어쩔줄 모르는 춘순을 기특하게 굽어보며 아버지가 말했다.

《판뒤라. 또 생기겠는걸. 설비들을 좀 개조하자구 이것저것 뜯어만지다나면 그렇게 산이 튀여 구멍날 때가 있지.》

《그렇다고 이대로야 어떻게... 반장아버지, 이제부터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부탁하세요.》

《원, 우리 로친이 시샘할라.》

아버지는 껄껄 웃고나서 실눈을 지었다.

《헌데 우리 공장 준기사의 생각이 썩 맘에 안든다?!》

《아이, 왜요?》

《기술을 배웠으면 기술로 한몫 해야지 늙은이 바지를 깎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겠다니말이다. 그건 비새는 집안에다 소꿉이를 들여놓겠다는것과 같아. 기와를 바꿔 이어야지.》

《저, 전 전공이 기계가 아니여서... 공장에 기술자들이 여럿이던데요?》

《그 사람들이 일이야 많이 하지. 헌데 아직 적어. 멀지 않아 6개년계획두 끝나는데 그땐 우리 수령님께서 더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실게 아니냐. 그래 내 공장의 젊은것들 몇을 부추겨 대학공부를 하게 했네만 녀석들이 졸업하군 어디 돌아오더라구. 눈이 트구보니 우리같은 지방산업은 성이 차지 않았던지...》

아버지는 담배를 피워물고 한동안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그의 주름잡힌 얼굴에 떠오른 깊은 상심의 빛은 춘순의 가슴을 조여들게 했다. 자식없는 늙그막의 불편보다도 시대의 전진에 발을 못맞춰 공장이 《늑어 버릴》가봐 더 속쓰는 아버지, 헌데 난 측은한 동정심으로 위안하려했구나!...

춘순은 점직하고 웅색하여 《그럴줄 알았으면 기계과나 나올걸.》 하고 변명처럼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줄이야. 아버지가 반색하며 춘순이앞에 바투 다가선것이였

다.

《너 그게 진정이나?》

《예?!》

《기계 해볼 생각이 있냐말이다.》

《어마! 그런들 이제야 어떻게?》

《아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만 있으면 늦은게 아니야. 네 나이 스폴이라니 머리가 터져라 공부할 때지. 어떠냐, 내 뒤를 잘 받쳐줄테니 대학공부를 해보지 않겠니, 응?!》

춘순은 당황했다. 물론 배움에 대한 열망은 남달라서 전문학교과정이 3년인것을 몹시 분하고 아쉽게 여기긴 했지만 이제와서 또 짧지 않은 과정을 더 걸치자면?... 하지만 간절한 기대와 애원이 담긴 아버지의 눈길을 피하기에는 춘순의 마음이 너무 여렸다.

끝내 춘순은 응낙하고야말았다...

아버지의 뒤받침은 즉시 시작되었다. 이틀후 춘순의 합숙책상에는 화학공대 통신교재가 일식으로 쌓였는데 눈이 둥그래지는 그를 결눈질하며 아버지는 흐뭇하여 반백의 상고머리를 쓸어올렸다.

《공부에 필요한건 다 요구해라. 내 하늘의 별이라두 따다줄란다. 허허...》

첫 휴식일날 이웃군에 있는 집에 갔던 춘순은 심란해서 돌아왔다. 딸의 결심을 안 어머니가 펄쩍 뛴것이였다. 어머니는 원래 기계공학이란 녀자들이 전공할 학문이 아니라느니, 네 나이에 대학을 새로 시작한다는건 두 토끼를 쫓는격처럼 공부고 혼기고 다 흐지부지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느니 하며 딸의 마음을 둔장질해놓았다.

스스로의 결심도 아니여서 춘순은 동요하였다. 그는 호실안이 컴컴해지는것도 못느끼고 교재가 쌓인 책상앞에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그때 복도쪽에서 《아유, 이 붕어들은 어디서 잡았어요?》 하는 처녀들의 호들갑스러운 부르짖음에 이어 아버지의 쉬쉬 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떠들지 말어라. 춘순이를 방해할라. 그애가 요즘 공부할래기 훌쩍해지더라니 〈사공령감〉 숨씨를 좀 보였지. 이걸 식당에 갖다주렴.》

《아버지 그저 춘순이야!》

《너희들두 대접반구프면 공불 해라. 공불.》

다음 발끝을 저저디디는 소리가 가까와오고 호실문이 빠르게 열렸다.

《영?!...》

아버지는 빈방을 놓고 엉너리쳤다곤 여긴듯 제풀에 허허 웃더니 전등스위치를 더듬어눌렀다. 불시에 환해진 방 안에서 춘순은 아버지를 마주볼수 없어 고개를 푹 수그렸다.

《너 집에 갔다오더니 무슨 일이 있는게구나.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더냐?》

《...》

《음-》

마침내 아버이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앉았다.

《알만하다만... 네가 생각을 잘못하누나. 모를지기 넌 이 늙은게 부탁하니까 차마 거절 못했던가본데... 아니다. 그걸 나하구 한 약속이려니만 생각 말이라. 전쟁때 이 공장이 땀기같은 도색감이나 주물러내는 초라한곳이었니라. 그래두 그걸 지키자구 사람들이 피를 좀 적게 흘린줄 아니? 지금같이 백여가지나 되는 제품이 쏟아지는 공장에서 꾸리느라 흘린 땀은 또 얼마구. 넌 이렇게 피를 바치구 땀을 쏟아 공장을 일궈세운 전 세대들앞에 약속한거야. 단추 하나루다 뽀뽀 돌아가는 그런 공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이다. 이게 공장을 진짜루 물려받는 너희 세대의 본새가 아니겠냐.》

아버이는 움쭉 일어서며 춘순의 어깨우에 묵직한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띄고 뒤를 이었다.

《누가 뭐라든 한번 약속한 이상 절대루 물려선 안돼. 대신 내 좋은 신앙감이랑 얻어주지. 하지만 도중에 주저앉으면 회초리루다 네 종아릴 사정없이 후려칠란다. 난 한번 성나면... 아들의 뺨두 죽어라 때리던 피짜였니라!》

아버이는 짐짓 무서운 얼굴을 해보이고나서 껄껄 웃었다...

《...그때 전 자식이 없던 상준아버이가 아들의 뺨을 쳤다는게 무슨 소리지 궁금해서 그걸 살짝 물어보았군요. 아버이가 웃으며 말씀하길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건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래도 아버인 선선히 이야기해주었어요. 알고보니 아버이에겐 원래 두 남매가 있었더군요...

해방전에 아버인 강에서 나무배를 부리는 사공이였어요. 어느해 장마철에 딸이 갑자기 식중독에 걸려 몹시 위독했는데 돈 한푼 없는 살림이어서 의원한테 보일 생각도 못한채 아이를 불안고 어쩔바를 모르고있었대요. 그런데 이때 왜놈경찰 한무리가 아버지집에 나타나 급한 용무로 강을 건너야겠으니 당장 배를 띄우라고 호통치더라지 않아요. 아버이는 아이생명이 위급해서 못가겠다고 하니 놈들은 강제로 먹살을 잡아 끌고가더라지 않아요.

장마물에 범람한 강물과 씨름하는동안 아버이가 무슨 생각인들 안했겠어요. 속이 까맣게 타서 돌아와보니 아닐세라 딸은...

아버인 그렇게 딸을 잃었답니다...

그날로 아버인 노대를 꺾어던졌대요. 차라리 굶어죽을지언정 왜놈들의 시중은 두번다시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예요. 하지만 왜놈세상에 어떻게 그꼴을 보지 않을수 있겠어요. 아버이가 사공노릇을 그만두니 그나마 겨우 보통학교에 다니던

아들마저 《월사금》때문에 쫓겨났대요. 그 아들이 제손으로 《월사금》을 번다면서 뼈가 앙상한 어깨에 나무짐을 엮고다니는것을 보니 아버이는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이마가 터져 피자박이 된 얼굴로 절룩거리며 나타났었대 요. 하면서도 자기가 오늘 단번에 2원이나 벌었다면서 싱글벙글 웃더라지 않아요.

《너 그 돈 어디서 냈냐?》

수상쩍은 생각에 이렇게 따지니 아들은 산에서 금빛나는 돌을 하나 주었는데 읍거리의 왜놈장사군이 그걸 보더니 주은대를 대달라고 열리기에 길안내를 해주고 번 돈이라고 자랑삼아 털어놓더라지 않아요. 아버이는 대뜸 울컥해졌어요. 왜놈 좋은 일을 하느라고 험한 벼랑턱을 뚫다가 굴러떨어져 그 모양이 되게 틀림없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놈아!》 하고 소리친 아버이는 솔뚜껑같은 손으로 아들의 뺨을 힘껏 후려쳤대요.

《그래 왜놈한테 나라를 뺏기구 네 동생마저 뺏겼는데 그것두 모자라 땅속에 숨겨진 보물까지 섬겨바쳐? 시라소니같은 자식!》

가뜩이나 상처입은 어린 아들이 그 주먹앞에 견딜수 있었겠어요? 대번에 땅바닥에 태를 치며 나딩굴었지요. 그리곤 오래동안 껍적 울었는데 아마 아픔보다도 서러움이 더 커서 그러는것 같았다는것이였어요.

아버인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들의 터진 이마에서 묻어난 끈적끈적한 피를 손바닥에 느끼면서 진저리칠 때가 많다는거예요. 《그애가 살았다면야 그게 그렇게 가슴을 허비겠냐.》 하면서 어찌 피로와하던지... 그 아들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동호예요!》

4

내 이름과 꼭 같은 상준아버이의 아들, 춘순기사도 아직 듣지 못했다는 그 아들의 그후 운명에 대한 궁금증은 밤을 새우며 촉각공에 달라붙은 나의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녘에 잠간 눈을 붙이고나니 공장에서는 그 일을 마저하라고 시간을 푹 떼주었다. 이미 화학공장에서 전화가 왔었다는것이였다.

교대가 끝나기전에 나무랄데없이 가공된 축이 춘순기사에게 안겨졌다. 그가 쑥스러움도 잊고 내 손을 막 부둥켜잡으며 어찌나 기뻐하는지 내가 도리어 얼굴을 붉혔다.

처녀는 즉시 돌아가려고 서둘렀다. 그가 무거운 축을 메고가는게 마음에 걸렸는지 현장에 나와있던 지배인이 그럴듯한 타겟책을 내놓았다.

《기왕 도울바엔 같이 가서 조립까지 해야지.》

그렇게 되어 나는 처녀와 함께 화학공장으로

떠났다. 연락을 받은듯 상준아바이가 역에 마중나왔고 합숙식당에는 제법 요란한 식탁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무슨 큰 연회상처럼 통채로 접시에 올려놓았던 팔뚝같은 잉어회였다. 그때 아바이는 내 손에 수저를 들려주며 좀 들른 어조로 설명했었다.

《부끄럽네만 이 잉어는 이웃농장에서 얻어온걸세. 하지만 두구보라니. 우리두 양어장을 큼직이 만들자는거네. 벌써 시작했네. 이걸 보게.》

아바이는 내 등뒤의 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동해바다의 해돋이를 형상한 풍경화와 함께 《양어장전망도》라는 그림이 걸려있었다. 색조화를 어찌 요란하게 했는지 양어장이라기보다 아름다운 편몰을 낀 굉장한 유원지같았다.

《이게 알낱이못이구 이건 새끼고기못 그리구 여기엔 초어와 잉어를 기르구 저쪽엔 칠색송어... 자네 왜 웃나?》

기실 나는 가까스로 웃음을 참던중이었다. 공장 규모에 비해 어방없이 큰 양어장부지자체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상으로 생각되었던것이다.

《아바이, 이젠 특급기업소도 먹이고남겠군요.》

《무슨 소리! 전쟁이 금방 끝났을 때 우리 공장이 어땠는지 아나? 살림집만한 건물 한채였다네. 그러던게 이젠 작업반만두 열한개야. 좀 있으면 웅근 세계의 직장이 더 생기네. 나라가 그렇게 커가구 발전하잖나. 어디 그뿐인가.》

아바이의 주름잡힌 눈기가 숙연하게 조프려졌다.

《자네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요즈음 황철에 자주 내려가시여 그곳을 자동화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려주시는줄 알고있겠지. 친애하는 그이께선 이렇게 온 나라에 자동화의 새 시대를 펼쳐주 고계시네. 한즉 멀지 않아 우리 공장두 자동화될 건 뻔하단말일세. 뭐 그렇다구 그날까지 우에다 손이나 내밀고있자는게 아니야. 그거야 도리가 아니지.》

누구나 힘자라는것 한가지라두 자체로 해나가는게 바로 로고가 많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길이구 그이의 뜻을 더 빨리 이루는 길이 아니겠나. 저 춘순이두 그래서 발벗구 나섰지. 그제 당에서 바라는 자력갱생이구... 어쨌든 앞으론 우리 합숙두 체네총각이 한 천명쯤으루 불어날건 뻔한데 그제 어떤 젊은이들이겠나?》

아바이는 회숙한 상고머리를 근엄하게 쓸어들렸다.

《공장의 대를 이을 사람들이지. 나라의 대를 이을!》

식사후 아바이는 요즘 자기가 합숙방을 하나 쓰고있는데 거기에 내 침대도 들여놓았으니 먼저 쉬라고 이른 다음 어디론가 가버렸다.

춘순기사의 안내로 아바이의 방에 들어서니 거기에다 양어장그림이 있었다. 채색은 없는 건설시공도였다. 그외에 창턱우의 꽃병속에 꽃힌 망울진 들국화 몇송이가 눈길을 끌었다.

《아바인 들국화를 무척 좋아한답니다. 짬만 있으면 산에 올라가 제손으로 꺾어오곤해요.》

처녀가 설명해주었다. 그다음 아바이가 인차 안들어올수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했다. 요즘 양어장건설에 쓸 막돌을 몽느라고 매일밤 강변에 나가 살다싶이한다는것이였다.

간밤을 새운탓으로 눈까풀이 자꾸 내려덮였지만 아바이먼저 잘수 없어 나는 곧 밖으로 나섰다.

하긴 식당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침실까지 합숙으로 옮기고 애쓰는 아바이의 웅심깊은 마음이 나를 이끌어낸것인지도 모른다.

공장올타리를 벗어나 강쪽에 올라서니 선선한 강바람이 잠기를 씻어냈다. 발아래 검푸른 수면에는 도글도글 여문 별들이 짹 깔려 가볍게 뽀박질 하고있었다. 어딘가 좀 아래쪽강변에 크지 않은 모닥불이 타오르는게 보였다.

성큼성큼 그리로 다가가니 상준아바이와 청년들 몇이 마침 강변에 와닿은 폐목에서 막돌을 부리고 있었다. 그결엔 벌써 꽤 큰 돌무지가 쌓여있었다.

나를 알아본 아바이는 이마를 찼다.

《내가 실수했군 실수했어. 자넬 혼자 떨궈두구 제 불장만 봤으니 그거야 자지 말라는 소리지.》

그리고는 청년들에게 손짓했다.

《자, 오늘밤은 그만들 하세.》

《아니, 그렇게 일을 파해버리면 제 립장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때를 한번 타봅시다.》

나는 제잡담 폐목우에 뛰어올랐다. 아바이는 몇번 말리다가 어쩔수 없었던지 청년들더러 좀 쉬라고 이르고는 뒤따라 올라섰다.

나의 폐질에 못이겨 샷대를 넘겨준 아바이는 폐목이 전진은커녕 방향조차 못잡고 뱅뱅 돌자도로 빼앗으며 꺾꺾 웃었다.

《노를 맥이는것두 그래 샷대질두 그래 다 몸에 배지 않구선 어렵잖나. 물이란게 이래뵈두 여간 못된게 아닐세.》

거의 강심에 접어들었을 때 아바이의 입에서는 느닷없이 건드려진 노래가락이 나직이 흘러나왔다.

에헹 에야 배 띄워라
너실고 나실고 가잔다
노대에 물결 부서질제
두둥실 저 기슭 마중온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아바이를 지켜보았다. 먼 기슭의 스러지는 모닥불빛에 드러난 아바이의 주름

잡힌 얼굴에는 어떤 형언할길 없는 추연한 빛이
질게 영킨듯해보였다. 그로 하여 건드러진 노래
소리마저 애달픈 하소처럼 들렸다.

이윽고 아버이는 머리를 흔들며 쓸쓸히 웃었
다.

《이젠 늙었어. 걸핏하면 옛날생각을 붙잡게 되
거든. 오늘은 아마 자넌 만나 가슴이 더 앓아졌
나보이. 춘순이한테서 들었겠지만 내 아들녀석두
동호라구 불렀네.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때 잃었
지. 바루 이 강에서...》

아버이는 샷대질을 멈추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한결 같았었다.

《내 별루 자랑거리두 못되길래 이런 애긴 어디
가서 꺼내지 않네만 자네한테 어쩐지, 허허... 어
디 심심풀이삼아 들어보겠나?》

하여 나는 여태 호기심을 품어왔던 상준아버이
의 아들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해방은 상준이 그리도 애틋게 갈망해온 《두
동실 마중온 저 기슭》이었다. 그는 혼연히 사공
일을 다시 맡았다. 실어건네야 할것들이 나날이
늘어만 가던 때였다. 나라에 바치는 첫 헌물세쌀
가마니들이 그의 손을 거쳐 강을 넘었고 농기구
며 비료더미 역시 그렇게 매일같이 실려왔다. 읍
거리의 고중에 입학한 아들을 아침저녁으로 태워
나른것도 물론 그였다. 이제는 누구도 상준을 배
에서 떼어낼수 없었으니 그것은 그에게서 날마다
커가는 행복을, 보람을 빼앗는것이였다.

전쟁이 터졌을 때에도 몇달후 시작된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때에도 상준은 나루터를 떠날수 없었
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북으로 떠나간 마지막날 강
건너 산비탈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저앉은 마누
라는 평갑더러 언제면 떠나겠냐고 안달복달 독촉
해댔다. 남쪽에서 쿵쿵거리던 포성이 이제는 한
낮임에도 평곳거리는 화광이 보일만치 가까이에서
울리기 시작한것이였다...

《그때 난 어느 물감공장의 달구지 두대를 기다
리던중이였다네. 아침에 도착한다던 달구지들이
낮에두 안와, 해가 뉘엿해지는데두 안와. 그야말
루 속이 바질바질 탔겠지. 이러다가는 온 가족이
다 놈들에게 잡히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어 아들
녀석더러 에미하구 먼저 떠나라구 쫓았네. 녀석
이 그때 내 일손을 도왔다니. 현대 그녀석이 어
디 말을 듣더라구. <나도 이젠 민청원이예요!> 한
단 말일세. 허허... 아들나이가 그때 열다섯이었
지.》

...물감공장의 달구지는 땅거미가 저서야, 그것
도 새파란 젊은 녀인이 끄는 한대만이 짐을 산더
미처럼 실고 나타났다. 도중에 다른 달구지와 공
장사람들은 꼬리를 바싹 문 놈들의 땅크포사격에
전부 잘못되었다는것이였다.

상준은 손맥이 탁 풀렸다. 짐이 배 하나로는
어림도 없었던것이였다. 게다가 벌써 마을초입에
서는 땅크발동기소리가 드릉드릉 땅을 흔들고있
었다. 달구지군녀인은 너무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굴렀다.

《아부님, 빨리!... 놈들이 다 왔어요!》

《종수다. 중한 짐짝 한배분만 고르시우!》

마침내 상준은 짐바를 와락 잡아끌며 소리쳤다.
그러자 녀인은 아연하여 입을 딱 벌렸다.

《에그머니, 이게 어떤 짐이라구. 그건, 그건...》

《잔말말구 내 말대루 하우!》

그찰나 《아버지!》 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이 등
을 때렸다. 고개를 돌린 상준은 흠칫했다. 원망과
질책을 가득 담은 아들의 맑은 눈동자가 자기를
겨누고있는것이였다.

《아버진 사람들이 목숨과 바꾼 기계들을 버리
려나요?》 하는듯한... 상준은 어떤 타는듯한 수치
심에 낮이 달아올랐다.

《젠장, 그럼 빨리 옮겨실소. 몽땅!》

그길로 상준은 집마당에 뛰어들어갔다. 창고에
서 도끼를 찾아들자 제잡담 부엌문돌쩌귀를 겨누
고 힘껏 내리쳤다. 문짝은 단번에 떨어져나갔다.
이어 정지문과 옷방문도 차례로 잡아뜯었고 배수
리를 위해 아껴두었던 통나무 두대까지 굴러냈
다.

그 얼마간의 지체만 아니었다면!... 상준이며
녀인 그리고 아들까지 필사적으로 짐을 날랐건만
문짝으로 엮은 때와 나루배가 기슭을 떠나기바
쁘게 놈들의 선두대렬이 들이닥쳤다.

악에 반친 고향과 물방으로 퍼부어지는 총탄의
회오리가 휩쓸자 상준은 노를 잡은 한팔에 쇠몽
치와 같은 둔한 타격을 느끼며 물썩 주저앉았다.
대뜸 뜨끈한것이 손잔등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아들이 놀라 달려오자 그는 짹 소리질렀다.

《없드려! 물귀신이 되고프냐?》

배는 중심을 잃고 기우뚱기우뚱 급류에 휘말려
내리기 시작했다. 마음이 급하여 다시 노를 잡으
려던 상준은 머리위를 스치는 도깨비불같은 시뻘
건 탄도에 놀라 도로 목을 움츠렸다. 그것은 자
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슴이 부격부격 피어오르
게 했다. 아들이 이꼴을 보았다면... 그러면 또
그 질책의 눈길을 던질지 모른다!

이를 악문 상준은 텅빈 물속에 뛰어들었다. 머
리칼이 오싹하는 강물의 령기와 지독한 팔의 아
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치며 발작적으로
배를 떠밀기 시작했다. 어둠은 급급히 강반우에
내려앉고있었다.

문득 상준은 졸렬졸렬 물방울을 튕기는 총탄의
울부짖음속에서 이상하게 텅빈거리는 물장구소
리를 분간해들었다. 그는 고개를 빼들었다. 마침
놈들의 전조등불빛이 수면을 짹 훑었다. 순간 상

준은 나루배의 반대편 물속에서 떼를 밀고있는 아들을 보았다.

상준은 가슴이 섬찝하여 황황히 소리쳤다.

《동호야, 냉큼 올라서지 못하겠니? 어서 나가 상자뒤에 숨어!》

《…》

《동호야, 이 녀석!》

더는 침묵을 지킬수 없었던지 아들은 물에 개키며 외마디소리를 내뿔었다.

《걱정마시라요!》

어둠때문에 배의 형체를 아주 놓쳐버린 놈들은 이제는 어림대고 마구 땅크포사격을 퍼붓고있었다. 사방에서 분수처럼 치솟는 물기둥이 숨을 못쉬게 상준의 머리위에 쏟아져내렸다. 그때마다 배는 뒤집힐듯 요동쳤다.

《너 그러다 죽자구 그러냐, 엉?》

상준은 느닷없이 목이 킁 메였다.

《동호야, 이 애비생각두 해야지, 내겐 너밖에 없다, 너밖에!》

《죽긴 왜 죽어요?》

약이 오른듯 아들이 짜증을 냈다.

《아버진 잊었어요? 왜놈한테 금돈을 대주었다고… 뺨을 쳤지요. 그러고도 이제와선… 됐어요. 숨가빠서 어디…》

부르르 전율같은것이 상준의 가슴을 누볐다. 오래전, 아들의 이마에서 나온 피가 얼룩얼룩 묻었던 자기의 손바닥이며

《왜놈에게 나라를 뺏기구 네 동생마저 뺏기구 두 모자라 땅속의 보물마저 섬겨바쳐?》 했던 절규머가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지금 아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줄아든 자기 가슴을 사정없이 허비고 있다. 두번다시 빼앗길수 없는 이 땅과 이 생활을 먼저 생각하라고!

상준은 마음이 쓰러났다. 눈물같은것이 치밀어 그는 말을 갑작랐다.

《알겠다. 더… 말시키지 않을테니 그저 떼목을 꼭 잡거라. 들었느냐?》

대꾸대신 물장구소리와 푸푸 물을 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적잖게 피를 흘린 상준은 의식이 흐릿해졌다. 그래도 아들의 숨결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한사코 귀를 강구었다. 별일이 없느냐고 순간마다 묻고싶었으나 아들의 기분을 더뜨릴가봐 그는 꼭 참았다.

어느덧 대안의 불파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온것은 그때였다.

《아버지.》

《오냐, 나 여기 있다.》 .

적들은 그만 지친듯 총질을 멈추었다. 그와 함께 아들도 맥이 빠졌는지 이따금 내키지 않게 물장구소리를 내고있었다.

《아버지…》

아들이 다시 찾았다. 이상하게도 짓눌린듯한 애처로운 토막소리였다. 불길한 예감에 상준은 물을 걷어차며 한껏 목을 빼들었다.

《동호야!》

《…》

《너 왜 그러냐? 어째 대답이 없니, 엉?!》

《…》

징- 고막을 찌시는것 같은 정적, 허둥지둥 배전을 감돌아 떼목가에 이른 상준은 심장이 얼어 들었다. 꺼먼 기름같은 물결이 철썩철썩 부서지는 떼목가장자리에는 아들대신 물에 폭 젖은 학생모자만이 외롭게 얹혀있을뿐이었다…

《…배를 기슭에 대고 내리니 그 둔덕에 들국화가 어찌두 많던지, 온통 하얗게 깔린게… 꼭 내 눈물밑에서 피어난것 같더라니. 그래 그걸 얼없이 뜯어서는 강물에 던지구 또 던지구 했구만. 그것들이 아들녀석을 따라가 이 애비의 마지막인사를 전해줄것 같아서… 물감공장너인이 아니었다면 온밤 그노릇을 했을지두 몰라. 허허…

그밤으루 기계들을 근처의 산속에 묻었다가 미국놈들을 쫓아낸 다음 파내서 그자리에 공장을 세웠다네!》

나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건너편의 침대가 이따금 삐걱거리는것으로 미루어 아바이 역시 잠을 이룰수 없는 모양이었다.

새벽빛이 휘뿜히 창을 밝힐 때 나는 꽃병속의 들국화 한송이가 망울을 터치고 활짝 피어나기 시작하는것을 발견했다.

5

이튿날 춘순기사의 새 기계를 조립할 때 나는 자체로 깎았다는 몇가지 부속이 재질이나 정밀도에서 좀 시원치 못한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것들도 내가 깎아 주겠다고 자청해나섰다. 《기왕 도울바엔》 하던 지배인의 말이 그런 용단으로 떠밀었다고 할지… 어쨌든 사흘만에는 더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화학공장정문으로 들어섰다. 그때에는 닷새동안이나 춘순기사와 이마를 맞대고 스파나질도 하고 열을 올려 론쟁비슷한것도 했는데 짬짬이 작업장에 나타나군한 상준아바이에게는 그것이 더없이 대견하고 흐뭇했던 모양이었다.

한번은 그가 《기사동무》라는 나의 정중한 부름을 시까슬러나선적이 있었다.

《거 자네 꽤나 꽃꽂이 사람이구만. 아직두 둘 사이가 공식적관계인가? 그따위 레절은 그만 쫓겨버리구 너나들이하게나.》

나는 물론 춘순기사도 얼굴이 고추빛으로 물들었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우리사이의 《공식적관계》를 아주 끝장나게 만든 계기였는지도 모른다.

3년이 지나 우리는 결혼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못내 아쉬운것이 있으니 우리들의 결합을 그리도 기뻐하고 부모이상으로 그 준비를 도맡아 해준 상준아버이가 결혼식에는 참가 못한것이였다.

그때 아버이는 먼 북방의 국영양어장에 칠색송어새끼들을 가지러 떠났었다. 우리가 출발을 며칠 미루라고 사정했으나 그는 철기로 보아 하루라도 늦으면 새끼고기들의 발육에 영향이 간다면서 듣지 않았다. 대신 당일날에 전보를 쳐보냈다.

(결혼을 축하함. 아들딸 많이 낳되 부디 잘 키울것. 상준.))

만장의 웃음속에 공개된 전보를 놓고 우리 둘만은 웃을수 없었다. 거기에 상준아버이만이 할수 있는 어떤 애틋한 생각이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다고 믿어진때문이었다.

내가 아버이를 마지막으로 만난것은 그가 년로보장을 받게 되었다는것을 안 다음이었다. 우리 부부는 곧 화학공장으로 떠났다. 아버지내외를 모시려고 버른것이였다.

정양소 소장방은 비어있었다. 안해는 창턱우의 빈 꽃병을 돌아보고 조용히 속삭였다.

《들국화를 꺾으러 뒤산에 갔을거예요.》

아닐세라 아버이는 산중턱의 양지쪽 공지에 호젓이 앉아 발아래 펼쳐진 공장전경을 취한듯 굽어보고있었다. 하늘높이 치솟은 아찔한 굴퓏이며 규모있게 들어앉은 십여채의 높은 공장건물들, 눈부신 은빛배관들과 탐식기중기가 부채를 연방 물어올리는 확장공사장 그리고 구내의 철도인입선으로 짐을 가득 실은 화차를 주련이 끌고나오는 기관차... 특히 시선을 끈것은 언젠가 합숙식당에서 본적이 있는 그림, 어떤 큰 유원지와도 같은 양어장이 강기슭을 따라 길게 펼쳐져있는것이였다. 점심무렵이라 합숙에서 쏟아져나온 처녀총각들이 양어못두리의 공원숲을 누비며 청높은 웃음을 터뜨리고있었다...

마침내 우리를 알아본 아버이는 무척 기뻐하며 옆자리를 권하였다. 그다음 돌이 잡힌 내 아들을 받아 영치를 추석이며 눈이 부리부리한게 꼭 애비를 닮았다고 껄껄 웃었는데 내게는 그 눈가에 이슬같은것이 번쩍인듯 여겨졌다. 그렇다, 상준아버이야말로 얼마나 손자를 안아보는 말년의 락을 가슴 저리게 갈망해왔었으랴.

기회를 놓칠세라 나는 우리의 의도를 내비쳤다. 묵묵히 우리를 마주보던 아버이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네, 그러잖아 오륙쓰기가 점점 힘들어지

니 그럴 생각두 드네만... 동정받긴 싫네. 자네들 말구두 오라는 사람이 한둘은 아니야. 한때 나 하구 있다가 공불 하구 햄이 들어서 간부다 기사다 하구 죽지를 쫓 편 사람들말일세. 현대 한녀석이 편지하기를 자기가 피줄만이야 하라만 아들 못잖게 내 대를 이을테니 받아줍시사 하지 않았겠나. 뒤집어말하면 난 대가 끊겼다는거지. 터무니 없는 녀석, 피줄이 아니라 넋을 이을줄 알면 그제 대를 잇는건줄 모르거던.》

아버이는 다시 생각에 잠겨 발아래 공장에 눈을 주었는데 그 눈길에 한없이 따듯한 빛이 그윽하게 차넘쳤다. 하얗게 세여버린 그의 상고머리도 유난히 반짝이는듯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났다. 이미 오래전에 결을 떠난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타고 씻기여 오리오리 희여졌을 머리칼, 그럼에도 아버이는 환희와 같은 시름없는 미소를 짓고있으니 아마 마음속으로 아들과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는것이리라.

《동호야, 보아라. 네가 목숨을 바쳐 구해낸 옛물감공장이오늘은 현대화된 대화학기지로 솟아 번영하는 이 땅과 더불어 나날이 키돋움하고있구나. 그러니 넌 죽지 않았다. 네 모습이자 저 공장의 모습이고 너와 너의 후대들의 래일이자 저 공장의 빛나는 래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 조국이 침략자들의 발굽에 짓밟힐 때 또 말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의 아들딸들을 영영 돌아오지 못할 눈보라 만리길에, 포화속 전선길에 혼연히 떠밀어보낸 이 땅의 유명무명의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소문없이 떠나보내기를 주저치 않은 사람들을 어찌 불행하다고 동정할수 있으랴. 그들이야말로 길이 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은 가장 행복한 세대들이 아니겠는가!

헤여질 때 상준아버이는 다시한번 우리 아들의 영치를 추석이며 의미심장하게 당부하였다.

《아들을 잘 키우게. 이 땅에 한가지라두 보탬을 못주는 시라소니를 남기면 그건 대를 끊기우는것과 같다니.》...

바로 그 아들이 오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을 총폭탄되여 옹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초소로 씩씩하게 달려나갔으니 내가 그에게서 또 무엇을 바라랴. 상준아버이의 옛노래구절처럼 그애의 총대우에서 우리 조국이 《노대로 물결 부스며》 래일의 보다 휘황한 《저 기슭을 두둥실 마중》해갈것이여니!

실화문학

대양의 항로

김정남

조타갑판으로 나온 리병수선장은 항구도시의 닻거리로 시선을 보냈다. 그는 해풍에 날리는 옷깃을 여미고 닻거리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 동상을 바라보았다. 어버이수령님 동상을 우러르고있는 선장은 가슴을 에이는 상실의 아픔을 느끼며 철색얼굴의 부리부리한 눈에 고여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냈다. 이른아침 출항의 날을 맞으며 꽃송이마다에 정성을 담아 엮은 꽃바구니를 어버이수령님 동상에 드리고 수령님의 유혼을 대양만리에 빛내여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건만 정작 출항의 닻을 올릴 시각이 도래한 이 순간 이 닻없이 마음이 서글퍼지며 상실의 아픔이 되살아나는것을 억제할수 없는 선장이었다.

리병수선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도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받은 그날 수령님동상으로 달려가 포석우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통곡하던 때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어져 세상만물이 빛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다. 온 강산이 비애의 눈물로 대하를 이루었던 그날로부터 여러달이 흘러갔다. 그 나날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배수리와 화물상선을 훨씬 앞당겨 끝내고 대양의 항로로 달려갈 출항의 닻을 올리게 되었는데 막상 조국의 항구를 떠나자고 하니 견줄수 없는 상실의 아픔이 살아나며 눈물이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리병수선장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비록 심장의 고동은 멈추시였지만 《성천강》호가 조국을 떠나 대양만리 그 어느곳에 가있어도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신념이 간직되어있었다. 가슴속에 기둥처럼 세워진 그 신념이 없다면 아마도 그는 출항의 닻을 올릴 생각을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조타실에 엎드려 통곡했을지도 모른다.

리병수선장결로 다가서던 교대선장 김정태가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선장의 시선이 가있는곳을 바라보았다. 그도 상실의 아픔이 가슴을 허비여 수로안내원이 승선하였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출항을 앞당기자고 배수리와 화물상선을 다그치던 나날을 돌이켜보면 잠시도 출항을 지체할수 없는 시각이였다.

대양의 항로로 배를 몰아가는 그길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을 대양만리에 빛내여가는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양의 항로를 개척하여주시고 우리의 무역선대가 대양만리로 항행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더 많은 배들이 대양의 항로로 항행하게 하시려고 마음 쓰시다가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다.

리병수선장도 김정태교대선장도 《성천강》호를

대양의 항로로 몰아가는것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역제일주의방침을 빛나게 관철해가는 길이라는것을 심장에 새기고있었다. 김정태는 그전같으면 선장이 부리부리한 눈길로 항해사와 조타수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며 출항의 닻을 올리라는 지시를 주었을것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갑판에 나가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고있는 그의 심정이 가슴에 뜨겁게 마쳐오는것을 느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며칠이 지나간 어느날 선장이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뇌이던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였다.

《교대선장동무.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곁을 떠나가지지 않으셨소.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유혼을 빛내여가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갑시다!》

리병수선장은 그날에 한 말대로 일했다. 배수리를 끝낸 후 도크에서 배를 내리여 시운전항행을 마치고 짐을 싣기 위해 부두에 배를 계류한후에도 배를 떠날줄 모르는 그에게 정치부장 한춘삼이 며칠만이라도 집에 다녀오라고 했었다. 녀달째 집에 가지 않고 배수리를 다그쳐 끝낸 선장이였다. 사실 배에 화물을 상선할 때에는 항해사들이 당직을 서면서 화물상선을 말아보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장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안해와 손자들이 있는 집으로 가고싶은 생각을 잊은듯싶었다. 그는 세멘트 화차가 미처 부두인입선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항역으로 달려가 운전지휘원들과 차갈이공들을 도와 화차를 끌어왔고 가을비가 구질구질 내릴 때에는 갑판원들을 대기시켜놓았다가 비가 멎으면 창구뚜껑을 재빨리 열고 기증기를 가동시켜 차판의 세멘트를 싣게 하였다. 항구에서 비가 내리는 날에는 상선을 하지 않는것이 상례로 되어있었지만 유혼교시를 관철할 결의에 충만되어있는 항의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상선을 앞당긴것이였다. 그러느라고 어느 하루도 침실에 들어가 편히 쉬어본적이 없었다.

출항을 앞당기려고 그토록 애써 일해온 그가 지금 출항시간을 늦잡고있는것이다.

이윽하여 김정태가 한걸음 다가서며 수로안내원이 승선하였다고 말하였다.

《수로안내원이 승선하였단말이지.》

고개를 돌리고 눈굽을 닦아내던 선장은 다시 닻거리로 시선을 보냈다가 조타실로 들어갔다. 근무항행위치를 차지한 항해사와 기준조타수가 긴장한 눈길로 항해기재결에 서있었다. 수로안내

원이 항해시계를 쳐다보며 왔다갔다하고있었다. 선장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웅글은 목소리로 수로안내원 승선기발을 띄웠는가고 물었다. 밖에서 들어온 홍박선이 기발을 올렸다고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리병수선장은 근엄한 눈길로 조타실안을 일별하고나서 수로안내원결으로 다가가며 입을 열었다.

《수로안내원동무, 계선공들이 자기 위치를 차지했소?》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말끝을 잇지 않는 수로안내원을 힐끗 바라본 선장이 무뚝뚝한 어조로 물었다.

《뭐요?》

《선장동무, 항에서는 기상예보소의 자료를 종합하고 모든 배들에 출항을 미루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성천강〉호도... 오늘 외국선박들은 모두 출항을 중지했습니다.》

《그건 태풍23호때문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놓으시오. 수로안내원동무는 1지점까지 수로안내를 감당하면 임무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소.》

《그건 내가 할바지요. 그렇지만 대양의 항로에는 지금 태풍이...》

《념려해주어 고맙소. 그렇지만 우린 가야 하요. 교대선장동무, 그렇지 않소?》

선장이 교대선장쪽에 시선을 보냈다.

김정래는 산악같은 폭풍이 《성천강》호가 가야 할 항로를 막아선다고 해도 물려설 선장이 아니라는 믿음이 가슴을 짝 메웠다.

바다에서 30여년, 대양과 바다, 운하와 항구, 리병수선장의 인생의 항로는 대양의 배길로 이어져있는것이였다. 어느곳인들 안갯으랴. 40대에 이르러 《금강산》호를 몰아 가던 그 시절에는 로테르담항구에도 닻을 내렸고 킬운하와 수에즈운하, 지브랄타르해협과 희망봉...

이렇듯 그의 항해사시절은 대양의 항로우에서 흘러갔다.

대양의 배길로 이어져있는 그의 인생항로의 나날들은 조국을 떠나 먼곳에 가있어도 어느 한시각도 잊어본적이 없는 조국이 있기에 태풍도 두려움을 모르는 담력으로 헤쳐넘으며 직선침로를 이어갈수가 있었던것이다...

《전체 선원들이 각오하고있습니다.》

교대선장의 대답은 《성천강》호 선원들이 태풍23호를 뚫고 항행할 결의에 충만되어있다는것이였다.

《음 그렇단말이지! 그럴것이요!》

선장이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대화기를 들었다.

《선수 닻을 올리라!》

《알았다!》

갑판원들을 데리고 선수에 나가있는 1등항해사가 대화기로 대답하고있었다.

이윽고 《성천강》호는 잔물결을 헤치며 항구의 립시배터로 나왔다.

이때 항무초소에서 무선전화가 왔다.

《〈성천강〉호, 1번, 기어코 출항하겠는가?》

선장에게 묻고있는것이다. 리병수선장은 대답을 하지 않고 조타실안을 두뼉두뼉 거닐었다. 보통기에 몸이 다부지고 둥실한 얼굴에서 부리부리한 눈이 정기를 뿜고있었다.

《성천강》호가 항행하여야 할 대양의 침로상에 필리핀 동남해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밀려오고있었다.

(항행을 중단해야 하는가?)

리병수선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통신장이가 가져온 모사수신지의 일기도를 바라보았다. 선장은 마치 감자모양의 길둥그런 원들이 그려져있는 일기도에서 태풍23호를 보고있었다.

산악처럼 일떠서서 횡포하게 밀려오고있는 태풍이다. 회오리치는 바람, 거칠거칠한 파도, 격파가 훑날리고있는 바다.

그는 한순간 가슴을 위압하는듯한 랭기가 등골을 훑어내리는것을 느끼었다.

태풍예고는 항해사들의 마음을 조이게 하는 전주곡이다. 전주곡이 울릴 때 항해사들은 이마의 주름살을 펴지 못한채 해도우에 태풍이동경로와 그 속도를 그려놓고 잠시도 탐지기결을 떠나지 못하는것이다.

일기도를 해도탁우에 놓고 고개를 쳐든 리병수선장은 항구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이 순간 아버지수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대양의 항로로 배를 드림없이 몰아가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몸부림치며 통곡하던 그때가 그의 눈에 어려왔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할바를 다 못해 아버지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렸지만 이제는 더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게 하자고 맹세다진 우리가 아닌가. 그 어떤 불리한 날씨에도 배를 드림없이 몰아가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 그런것만큼 항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리병수선장은 대화기를 짝 움켜쥐었다.

《항무초소. 〈성천강〉호는 출항한다. 1번》

선장이 대화기를 창탁우에 놓고 마스트에서 펄럭이고있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기적변을 눌렀다.

《뿌웅! - 뿌웅!-》

길고 긴 기적소리가 항구를 울리었다.

《잘 있으라! 정든 항구여!》

리병수선장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뇌이였다.

《뿌웅-》 《뿌웅!-》

그러자 립시배터에 정박한 배들에서 기적을 울리었다. 출항하는 《성천강》호에 답례를 보내고있는것이다. 바다에 잣아드는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는 선장을 바라보고있는 김정래는 리병수선장이 30대의 나이에 《위성》호를 타고 먼바다 항행길을 개척하던 일을 생각했다.

소한이 지나갔지만 날씨는 여전히 뻗뻗 바람을 몰아오고있었다. 《위성》호 갑판에는 얼음이 깔려있었다.

리병수선장은 조타실을 거닐다가 해도실로 들어가 해도우에 그어놓은 침로를 바라보았다. 《위성》호가 가야 할 그 침로는 생소한 배길이었다. 해도의 침로를 따라 옮겨지던 리병수선장의 눈길은 한곳에 이르러 문득 굳어졌다. 그곳은 미국놈들이 동지를 틀고있는 해협이였다.

(저곳으로 배를 몰아가는것은 모험이 아닌가?)

리병수선장은 고개를 쳐들었다. 이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지난밤 《위성》호의 침로를 놓고 우려하던 한 일군의 목소리가 귀전을 울리었다.

《미국놈들이 틀고있어있는 해협으로 〈위성〉호

의 침로를 정하는것은 버단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것이나 다를바 없는데 선장동무는 그런 곳으로 배를 몰아가겠다는거요?》

(적들은 공화국기발을 단 《위성》호가 항행하는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얼음산이 녹아내리는 4월을 기다려야 하는가?)

《위성》호가 항행해야 할 바다에는 얼음산이 솟아있었다. 그 얼음산이 녹아내리는 4월은 안전한 배길이 열리는 계절이었다.

(당에서 바라는 일이라면 불속이라도 헤쳐가는 것이 전사의 본분을 다하는것이 아닌가.)

선장의 가슴에서는 해도에 그어놓은 침로대로 배를 몰아갈 드립없는 신념의 기둥이 세워지고있었다. 리병수선장은 얼음산을 에돌아 미국놈들이 등지를 틀고있는 그 해협의 직선침로로 항행하여 목적한 항구로 가려는것이였다.

리병수선장은 조타갑판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해풍에 트인 그의 철색얼굴에 서리발같은 찬 땀방울을 안기였다.

그는 저 멀리 고층건물들이 즐비한 도시의 일각을 눈길로 더듬어 찾았다. 그곳은 안해가 해산을 앞두고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다.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려온 선장이였다.

병원에 찾아가를 때 안해는 첫사랑을 속삭이던 그 시절에 수줍음을 감추지 못해 고개를 소곳이 숙이곤하던 아련한 모습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해산날자를 하루이틀 앞당길수도 있다고 하였다. 해산을 앞당길수도 있다는 그 말, 그것은 남편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애원이였는지도 모른다. 출항을 늦잡을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떠나야 한다. 안해는 당이 바라는 그 항로에 배를 몰아갔다면 행복의 미소를 지을것이다. 어찌하여 남편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단란한 웃음소리로 행복을 꽃피울수 있는 집을 줄곧 떠나 바다의 풍랑을 헤쳐나가는가를 잘 알고있는 안해였다.

《위성》호는 출항의 뜻을 울리였다.

《위성》호가 마침내 XX해협에 들어선것은 조국의 항구에서 닦을 올린후 3일이 흘러간 한낮이었다. 바다는 파도를 몰아오고있었다. 배전을 날아넘어온 파도가 갑판에서 넘실거리고있었다. 리병수선장은 조타실을 떠나지 않고 항해를 지휘하고있었다. 전령기결에 서있던 1등항해사가 선장결으로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선장동지, 침로를 좌로 30도 우회하지 않겠습니까?》 입술이 말라든 1등항해사의 말은 떨림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적들의 군사기지가 있는곳과 멀리 떨어져 침로를 잡자는 1등항해사의 의견은 신념이 흔들리고있는것이였다.

《침로 그대로!》 선장은 이렇게 구령을 주고 앞을 바라보았다. 선장의 구령은 1등항해사에게만이 아니라 조타실근무성원들에게 절대로 침로를 변경할수 없다는 결심을 확인하는 목소리였다.

《침로 그대로!》

선장의 구령을 복창하며 지시기의 눈금을 지켜보는 조타수의 얼굴에는 신심이 넘치고있었다.

《위성》호가 XX해협에 들어선지 1시간나마 지났을 때였다. 전과탐지기를 지켜보고있던 2등항해사가 고개를 쳐들며 땀방울이 맺힌 조타실안의 공기를 깨뜨렸다.

《비행기편대 발견 좌현 300.》

선장은 쌍안경을 들고 조타갑판으로 나갔다.

4대의 전투폭격기가 편대를 지어 조타실꼭대기 상공에서 선회하고있었다. 미국놈비행기들이었다. 비행기들은 마스트를 스칠듯이 저공비행을 하다가 급선회를 하며 바다상공을 썰며 돌아갔다. 조타실로 들어온 선장은 선원들의 얼굴이 퍽 퍽 해진것을 느끼였다. 선장은 마음을 다잡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동무들! 미국놈비행기편대가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를 위협하고있소. 이것은 국제수로로 항행하는 선박들에 대한 란폭한 해적행위요. 우리는 국제해양법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놈들의 이 파렴치한 해적행위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소.》

이렇게 말한 선장은 조타실로 들어서는 통신장을 멈춰세우고 조국에 보내는 전문을 한자한자 힘을 넣어 불러주었다.

《...〈위성〉호는 XX해협을 항행하고있다. 미국놈전투폭격기가 편대를 지어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를 위협하고있다. 우리는 침로에서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저공비행을 하던 미국놈전투폭격기가 급강하를 하며 좌현배전옆을 스칠듯이 날며 돌아치기 시작하였다

미국놈비행기들을 쏘아보고있는 선장의 눈에서 불길이 쏟아져나오고있었다. 선장은 놈들의 속심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있었다. 좌현배전옆에서 맴돌이치는것은 《위성》호를 위협하여 제놈들의 군사기지수역으로 끌어간후 《령해》침입의 구실을 걸어 나포하려는것이였다. 이것은 국제수로로 항행하는 평화적인 선박을 나포한 제놈들의 죄행을 합법화함으로써 국제여론을 무마하려는것이였다.

《동무들! 놈들이 저렇게 우리 배의 좌현에서 맴돌이치는것은 우리 배를 군사기지수역으로 몰아가자는것이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절대로 침로를 변경할수 없소!》

조타실을 찌렁찌렁 울리는 선장의 목소리는 죽을지언정 직선침로에서 물러서지 않으려는 심장의 웨침이였다.

《선장동지! 조국에서 보내온 전보입니다.》

전보문을 들고 조타실로 들어서는 통신장의 얼굴에는 숨얼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선장은 전보문을 훑어보았다.

《...조국은 〈위성〉호를 지켜보고있다...》

전보문의 한자한자는 선장의 가슴속에 억세게 뿌리내린 신념의 기둥을 드높이지 않게 받들어주는 힘의 원천이였다.

(야! 조국이 있어 우리는 먼곳에 있어도 이 항로우에 충성의 자국을 새기며 곧바로 달려가고있구나!)

선장은 전보문을 높이 추켜들고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웨치였다.

《동무를! 조국이 우리를 지켜보고있습니다. 침로 그대로!》

《침로 그대로!》

《항해 전속!》

선장의 목소리가 조타실안을 찌렁찌렁 울리였다. 《위성》호는 파도를 헤치며 거침없이 내달렸다.

《통신장동무! 온 세계가 다 들도록 공개전파를 날리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성〉호는 XX해협으로 항행하고있다. 지금 미국놈전투폭

격기편대가 국제수로로 항행하는 <위성> 호의 상공에서 저공선회비행을 하며 위협하고있다...》

국제해양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있는 미국놈들의 해적행위를 온 세상에 고발하는 선장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리었다.

얼마후 미국놈들의 전투폭격기가 꼬리를 감추었다. <위성> 호가 XX해협을 직선침로로 개척하고 해구로 나왔을 때 조국에서 전보가 왔다.

《... <위성> 호 앞, 조국의 존엄을 지키고 새 항로를 개척한 <위성> 호 선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선장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산모도 아들도 건강하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보낼것...》

선장의 가슴은 터칠것만 같았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축하와 함께 아들이 태어났다는것을 알려온 그 전보는 조국을 떠나 먼곳에 가있는 전사에게 돌려주는 조국의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이었다. 뜨거움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마운 조국이었다.

리병수선장의 유년시절은 파도가 굼니는 바다가의 뜨거운 모래불에서 흘러갔다. 소년의 꿈은 바다를 정복하는것이였다. 해가 솟아오르는 신비로운 바다, 그 바다에로 큰 배를 몰아가는 선장이 되려는 소년의 꿈을 조국은 현실로 꽃피워주었다. 조국은 그에게 해빛밝은 대학의 강의실과 넓은 바다를 안겨주었다. 하여 그는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던 나날에는 어뢰정의 정장으로, 오늘은 대형무역선의 선장으로 자리난것이였다...

리병수선장이 걸어온 한생은 무지개와 같은 꿈을 꽃피워준 고마운 조국에 보답하는 빛나는 항로로 이어져있는것이였다.

리병수선장과 XX해협의 직선침로를 개척하던 항해의 나날을 돌이켜본 김정태는 선장이 금방 태풍이 밀려온다고 해도 출항을 중단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또다시 굳어지는것이였다.

이윽고 서해잡문 갑실을 통과한 <성천강> 호는 넓은 바다로 나왔다.

조타실 감시창앞에 서있던 리병수선장은 해도실로 들어갔다. 그를 따라 김정태가 들어왔다.

리병수선장은 모사수신기에 찍힌 위성통신자료를 훑어보고 해도우에 태풍23호를 표시하여놓았다. 해도우에 표시된 닭알모양의 태풍은 세력권을 확장하면서 <성천강> 호 침로상으로 접근해오고있었다.

《1등항해사동무, 태풍23호가 언제면 여기로 접근할것 같소?》

리병수선장이 연필로 해도를 짚으며 물었다.

《지금 이동속도로 보아서 5시간이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리병수선장은 그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통신장이 1시간에 한번씩 해상에보소의 자료를 해도실로 가져오도록 하시오. 그리고 침로는 변함이 없소. 나의 위치는 조타실이요.》

리병수선장은 태풍23호가 <성천강> 호 침로상에 미치기전에 항행속도를 높이며 태풍을 앞질러 빠져나가려는것이였다.

그는 조타실로 나왔다.

《침로 그대로!》

《전속 전진!》

조타실 감시창앞에 서서 구령을 치는 리병수선장 목소리가 조타실을 울리었다.

힘있고 박력이 느껴지는 그의 구령은 어뢰정을 타고 파도를 제압하며 조국의 바다로 항행하던 그 시절에 그의 심장에서 울리어나오던 목소리처럼 우렁찼다. 거칠거칠한 파도가 배전에서 부서지고있었다. 파도를 헤치며 항행하는 <성천강> 호 조타실꼭대기로는 회오리바람이 뽕뽕 휘몰아치고있었다. 그것은 미구에 바다를 휩쓸 태풍의 전주곡이었다.

하루낮 하루밤이 지나갔다.

<성천강> 호는 산토우항에 정박하였다. 태풍을 앞질러 항행하여온것이다. 산토우항은 부표로 된 항구였다.

리병수선장이 삭을 부표에 매놓으려고 선수로 나갔던 갑판원들을 철수시키고 해도실로 들어가 고있을 때 통신장이 전보문을 들고 황급히 뛰어 들어왔다. 그 전문은 이동방향을 바꾼 태풍23호가 산토우항구쪽으로 밀려오고있다는 <해상경보>였다.

리병수선장은 지난밤 자정이 지났을 때 바다모양에서 태풍의 징조를 가늠하고있었지만 이렇듯 돌변스럽게 방향을 바꾸어 급작스럽게 밀려올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30여년간 바다에서 담을 키워온 선장이었지만 배를 부표에 계류한 상태에서 태풍과 맞닥뜨리는 처음이였다.

리병수선장은 태풍23호를 해도우에 표시하여놓았다.

《바람 30미터초 물결 7미터.》

리병수선장은 해상에보소의 전문을 쥐고 해도실로 왔다갔다했다. 그러다가 해도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부표로 된 좁은 수역의 항구에서 피항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 아닌가.)

위급한 정황에 맞닥뜨린 선박들에서 선장의 결심은 배의 운명을 결정한다. 선장의 결심에 따라 배가 구원될수도 있는것이였다.

김정태가 해도실로 들어왔다.

《선장동지, 배들이 삭을 건너올리고 피항하고 있습니다.》

《해상경보》를 받은 선박들이 급급히 피항하고 있는것이였다.

그의 말은 <성천강> 호도 부표에서 삭을 건너올리고 피항해야 구원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닌가.

선장은 도리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 정황에서 피항은 침몰을 동반할수가 있소. 우리는 그대로 태풍을 이겨내야 하오.》

김정태는 한순간에 결심을 채택한 미더운 자기 선장을 신뢰의 감정이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선장은 당이 안겨준 담력으로 태풍을 이겨내고 화물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려는것이 아닌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내어갈 드팀없는 신념은 태풍을 이겨낼수가 있다!)

김정태의 가슴에서 신심이 넘치였다.

이때 정치부장 한춘삼이 이들결으로 다가왔다.

《선장동무, 어떤 결심을 채택하였습니까?》

《그대로 배를 유지하면서 태풍을 극복하겠습니다.》

《해낼수 있겠소?》

《저는 선원들을 믿습니다.》

이 순간 선장은 선원들의 미더운 모습을 생각

했다. 태풍수역을 항행할 때에는 기관사들을 대신하여 조속기를 잡고 주기관을 조종하는 기관장 렘영일, 태풍이 마스트의 항해등을 깨버리면 안전삭을 허리에 매고 마스트에 올라 항해등을 갈아맞추며 항해를 보장하는 갑판장 김봉춘...

《나는 선장동무를 민습니다.》

정치부장 한춘삼은 선장의 손을 꼭 잡아흔들고 조타실에서 나갔다. 그의 발걸음이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지고 있었다. 언제나 선원들속에 있으면서 선장의 결심을 알려주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미더운 정치일군이였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태풍은 파도와 강수를 몰아왔다. 《태풍경보》 신호를 받은 선원들이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선장의 지시대로 기중기화물봉을 내리우고 창구들에 방수포를 덮고 결박하였다.

산악처럼 줄기줄기 밀려오는 파도, 세찬 바람, 역수로 쏟아져내리는 강수, 부표에 걸려있는 계류삭들이 탕탕 울부짖을 때마다 《성천강》호는 몸부림을 치며 기우뚱거리었다. 배의 경사기는 35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횡경사가 35도에 이른 선박안에서는 선원들의 행동이 걸음마다 제압을 당하기가 일쑤였다. 리병수선장은 조타실감시창앞에 서서 계류삭들의 안전상태를 눈으로가 아니라 감각으로 가늠하며 지시를 주고 있었다. 1미터앞에 있는 물체도 가려볼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각으로 계류삭들의 안전성을 확인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계류삭이 끊어지지 않으면 배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선장이였다. 그러나 태풍은 종시 《성천강》호와 연결된 계류삭을 끊어놓기 시작하였다. 《탕!》 계류삭이 끊어지며 마스트와 현측을 후려치는 소리가 선장의 가슴을 서늘케 하였다. 선장의 입술은 무더위에 갈증을 만났듯 말라들었다. 횡경삭이 끊어진후 종경삭도 끊어져나갔다. 지탱점을 상실한 《성천강》호는 금시라도 넘어질듯이 기우뚱거리었다. 세번째 삭마저 끊어져나갔다. 하나의 계류삭이 남아있을뿐이었다. 그러나 선장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닻을 투묘하여 배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비계류삭을 부표에 걸어놓을 결심을 하였다. 리병수선장이 이런 결심을 한순간에 채택한것은 현위치에서 배를 그대로 유지 못하면 파도에 밀려 대만《령해》가 아니면 다른 기슭으로 밀려갈수 있었기때문이었다. 리병수선장은 조타실에 있는 선원들의 얼굴을 일별하였다. 누가 선수로 나가 계류삭을 교체할수 있을것인가? 하나같이 믿음가는 선원들이였다.

《계류삭을 교체해야겠소. 그렇지 않으면 배를 유지할수 없게 되겠습니다.》 선장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배를 유지 못하면 배가 어느곳으로 밀려갈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선원들에게 구태여 그것을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갑판장 김봉춘이 한걸음 선장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갑판세포비서 홍박선이 큰걸음으로 갑판장 옆에 다가와섰다.

순식간에 갑판원전원이 갑판장곁에 대오를 지어섰다. 그들을 바라보는 리병수선장의 가슴은 뜨거웠다. 어느 한순간에 모래알이 되어 파도속에 휘말려들어갈수 있다는것은 모르는바가 아닌

저들이다. 항차 임무를 기어이 수행하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 승리의 보고를 올릴 불타는 한마음이 저렇듯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신의 힘을 안겨주고있는것이 아닌가.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삭을 허리에 졸라맨 갑판원들이 수밀문을 박차고 갑판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속에는 정치부장 한춘삼과 김정태도 끼여있었다. 시간은 한초한초 긴장하게 흘러가고있었다.

《조타실! 내 말이 들리는가? 나는 2번. 횡경삭을 연결하였다!》

대화기에서 울려나오는 1등항해사의 목소리는 조타실안의 긴장한 공기를 밀어던지였다.

《알았다! 침착하라! 나는 1번, 종경삭을 연결하라!》

이렇게 말한 선장은 대화기를 감시병에게 주고 전화기의 번호판을 누르고 송화기를 입가에 가져다댔다.

《기관실! ...횡경삭을 연결하였다. 신심을 잃지 말라. 기관회전을 최대로 계속 유지하라! 나는 1번》

그렇듯 바다물을 송두리채 퍼올려 하늘가에 휘뿌려놓을듯이 노호하던 태풍은 웅근 하루가 지나서야 속어들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태풍이 물러간 바다에는 《폭풍후의 정적》이 깃들고있었다. 우주공간으로 날고있는 전파들은 태풍 23호가 지나간 수역에서 발생한 불상사를 전하고있었다. 태풍 23호는 열척이 넘는 선박을 바다물속에 송두리채 집어넣고 세척의 선박을 좌초하게 만들었다. 《성천강》호와 나란히 정박하였던 선박도 피항을 하다가 좌초하였다.

이윽고 구름속을 헤치고 나온 태양이 빛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선원들에게는 그 해빛이 며칠만에 처음보는 해빛처럼 느껴지는것이였다. 그러나 그 해빛은 실상 하루만에 보는 해빛이였다.

그렇듯 태풍속에서 흘러보낸 하루낮 하루밤은 선원들에게 초인간적인 불사신의 힘을 발휘케 하였던 시간의 흐름으로 느껴지는것이였다.

산토우항 항무장과 대리인이 기다리고있는 응접실을 향해 조타실계단을 내려서고있는 리병수선장은 그제서야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노곤해지는것을 느끼였다.

항무장과 대리인은 선장의 손을 잡고 감동을 금치 못해 하는것이였다. 그들은 《성천강》호가 태풍이 지나간후에 자기들의 항구로 입항할것이라고 생각하였었는데 뜻밖에도 입항기일을 어기지 않고 입항했을뿐만아니라 태풍을 이겨낸것은 기적같은 일이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시하였다. 대양을 항행하는 선원들이 아니고서는 《성천강》호가 항행한 배길우에 수놓아진 일들을 다는 상상할수가 없을것이다.

산토우항에서 집을 하신한 《성천강》호는 대양만리로 침로를 향했다. 《성천강》호의 마스트에서 공화국기발이 펄럭이고있다. 갑판에 나온 선원들은 펄펄 날리는 기발에서 조국을 보고있었다.

대양의 항로우에 아버지수령님의 유혼을 빛내여가고있는 《성천강》호 선원들의 마음처럼 영원히 휘날릴 기발이였다.

마를줄 모르는 샘물

전용칠

예로부터 오늘까지 전해오는 수많은 전설이나 사화속에는 샘물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다.

민족의 정기를 담아 세세년년 전해오는 샘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에게는 전선동부의 고지에서 보았던 샘물이 떠오르곤한다.

화창한 봄빛속에 샘터주위에 소담하게 떨기진 철쭉이며 나리꽃... 푸른 하늘에 뜬 목화송이같은 흰구름을 그대로 담아신고 찰랑거리는 잔물결, 이곳 초소병사들의 알뜰한 손길이 닿아 샘바닥에 깔린 동글동글하면서도 희디흰 차돌...

샘물터를 바라보는 나의 머리속에는 이곳 초소로 떠나올 때 나에게 하던 한 영웅의 이야기가 생각키웠다.

《...거기에 가면 꼭 찾아가 보오. 40여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샘터모양이 눈에 선하오. 물맛도 잊을수 없거니와 더더욱 못잊어하는건 그 샘물터에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정이 어려있기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샘터를 〈군민샘〉이라 불렀소. 격전으로 새날이 밝고 포연속에 저녁노을이 흐려지던 그 나날에 한 처녀가 우리를 위해 그 샘을 뚫었지. 외래머리에 눈이 별빛같은 수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였는데...》

영웅은 추억의 갈피를 더듬으며 조용히 뒤말을 이었다.

...샘물은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솟구쳐올랐다.

아름다운 처녀의 깨끗한 마음처럼 티가 없었고 알뜰한 손길이 닿아 샘터는 그지없이 정갈했다.

전사들은 샘터주위에 꽃과 나무를 심었고 통나무 의자들도 만들어놓았다.

격전을 마친 저녁이면 샘물터에선 병사들과 인민들이 어울려 웃음꽃을 피웠다. 달밝은 밤에 울려퍼지는 노래소리는 그 얼마나 풍만한 정서와 기쁨으로 잘 어울리었던가.

샘물터에 물을 길러 동이 이고 나갔더니
빨래하던 군인동무 슬금슬금 돌아왔네
...

포화에 그슬린 적동색얼굴의 병사들이 우렁우렁하면서도 석식한 목소리로 선창을 때면 처녀들이 맑고도 아름다운 목청으로 받았다.

샘터주위를 그윽하게 돌던 노래소리는 군대와 인민의 합창이 되어 포연을 헤치고 힘차게 나래

쳐 올랐다. 끊을수 없는 혈육의 정을 주고받는 샘물터에서 처녀들은 전선에 나간 오빠와 동생을 보았고 병사들은 고향의 누나와 동생, 동구길에 나와 영웅이 되어 돌아오라고 손저어 바래주던 어머니들의 인자하고 정다운 그 눈빛을 보고있었다...

영웅이 들려주던 그날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던 나는 누군가의 부름에 깨어났다. 포화의 그날에 이곳에서 싸웠다는 머리희스한 부대장이 웃으며 묻는듯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샘물이... 정말 맑습니다. 잊을수 없는 이야기를 간직하고있어 그런지 더더욱 뜻이 깊어보입니다.》

《허허... 참 좋은 샘물입니다. 고지우엔 수도물이 팔팔 나오지만 전사들은 늘 이 샘터를 깨끗하게 관리하지요. 이 샘터에 어려있는 그날의 이야기가 새 세대 병사들의 가슴을 늘 적셔주고있으니까요.

헌데... 이 샘물의 〈래력〉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나는 떠나올 때 당부하던 그 영웅의 이름을 뱉었다.

《예? 누구라고요?》

부대장의 두눈썹이 놀램으로 치켜올랐다.

알고보니 부대장은 그때 영웅의 분대에서 제일 어린 전사였다는것이였다.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습니다.》

부대장의 목소리는 감회에 젖어있었다.

《...그날, 이 샘터에 물을 길으러 왔던 그 영웅은 그만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고지우의 중기는 물이 없어 입을 다물었지요. 그런걸 그 수정이라는 처녀가 쓰러진 병사를 대신하여 물통을 들고 고지로 올랐습니다. 처녀는 도중에 두번 썩이나 부상을 당하면서도 끝내 물통을 꼭 그러안고 전호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기는 세차게 물을 뿜었지만... 처녀는... 그 아름다운 처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바이전사였던 취사원의 무릎우에서... 처녀는 ... 〈인민군대동무들! 고지를... 꼭... 지켜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말끝을 맺지 못하는 부대장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떨렸다.

고지를 지켜주세요!...

그것은 처녀의 온 넋이 담긴 간절한 기원이였

다. 아니,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당부였다!

…봄바람을 맞으며 나도 부대장도 묵묵히 말이 없었다. 나는 후터워오는 가슴을 진정하며 솟구쳐오르는 샘물에 지그시 눈길을 추었다. 얼마나 소중한 샘터인가. 그 얼마나 정가로운 샘물인가.

처녀는 갓지만 그 눈빛, 아름다운 그 자태, 초포탄이 튀는 전호가에 남긴 조국수호의 뜻이 어린 샘물은 오늘도 여전히 수정같은 맑은 물을 뿜어올리고있지 않는가.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깨끗하고 슬기로운 영웅들의 이야기를 끝없는 전설로 이어주며 밤이나 낮이나 쉬없이 솟아오르는 샘물! 그 샘물은 넘쳐흘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망망한 바다로 흐른다. 하나의 샘물에 이런 뜨거운 이야기가 있을진대 샘물에 시원을 두고 이루어진 이 나라의 강마다에, 그 흐름우에, 제모습을 비껴담은 조국의 산야마다에 한마음된 군대와 인민의 정으로 엮여진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나에게는 끝없이 솟는 샘이 은혜로운 이 땅에 꽃피어나는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꽃을 더욱 만발한 화원으로 펼쳐가라고 끝없이 속삭이는듯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군대와 인민이 그 어느때보다도 서로 돕고 아끼고 사랑하는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렇다! 항일의 혈전만리길을 헤쳐왔고 가릴처

절한 전화의 언덕을 넘어 오늘에로 이어져 더욱욱 굳세어진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 그것은 오늘 우리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은혜로운 해발속에 이 땅우의 모든 초소와 사회주의대건설장,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서나 거대한 불길로 타올라 우리 조국의 거창한 전진에 크나큰 힘이 되고있는것이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위해 한몸 내대는 우리의 인민군대, 군대를 위함이라면 피도 생명도 주저없이 바치는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이 한가정임을 긍지높이 자랑하는 노래 《령넘어 오가는 정》이 온 나라에 울리는 우리 조국, 명중의 포성속에 인민의 기쁨이 있고 이삭의 설레임소리에서 수호자의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는 우리 병사들… 참으로 위대한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이런 군대, 이런 인민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며 한마음한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그 어디에 있으랴…

나는 끝없이 솟구치는 샘물을 바라보며 마음속 맹세를 다졌다.

(지심깊이에 원천을 두었기에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샘물처럼 내 영원히 인민의 수호자로,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의 물을 마시고 자란 전사답게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한생을 인민을 위해 싸워가리라)고!

우리 나라 역사유적 소개

부벽루

부벽루는 고구려시기에 처음 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지은 루정이다.

부벽루는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에 있다.

부벽루의 원래 이름은 영명루로서 393년에 세운 영명사의 부속건물로 지은 루정이었다고 한다.

이 루정은 12세기초부터 맑고 푸른 대동강물이 감돌아흐

르는 청류벽우에 등실 떠있는 듯한 루정이라는 뜻에서 부벽루라고 고쳐부르게 되었다. 12세기초에 고쳐지은 부벽루는 임진조국전쟁때 왜적에 의하여 불타고 현재의 건물은 1614년에 다시 세운것이다.

부벽루는 앞면 3칸(14.58 m), 옆면 3칸(7.68m)에 2익 공두공을 엮은 날씬한 흘림기둥이 합각지붕을 떠받들고있는 경쾌

한 루정이다.

부벽루는 우리 나라 루정 가운데서 이채를 띠는 대표적인 건물의 하나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파괴된것을 전후 원상대로 복구하였다. 오늘 부벽루는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시조

세월도 이 아픔 가실수 없다

진춘근

나의 시

나는 두손을 못쓴다

아픔에 소리치고픈

이 울분이

나의 시다

행복할수록 더해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해지는

이 아픈 마음이

나의 시다

철들면서 힘도 뿔내고

거리에 나설 때면 어머니 다정히 잡아주시던

그 손을 잃었다, 미제에 의하여

50년 그 여름에,

오, 이 땅우에

미제원쑤를 그냥 두고선

이 아픔 가실수 없어

이 붓을 총창마냥 비껴들었나니

세월은 상처를 아물려주어도

나는 그 상처 헤집어

우정 아픔을 느끼나니

가시지 않을 아픔이

내 복수의 시행이다

아픔에 대한 호소

이것이 내 시가의 격조다!

첫 그림

전쟁승리는 우리들을

반토굴교실과 영원히 작별하게 했다

공습경보의 찢지는 소리 없는 하늘아래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게 하였다

도화시간이었다

나는 두팔을 못쓰는탓에

선생은 그림그리라고 하지 않았다

허나 나는 그림을 그렸다

어린 수난자 나의 눈에 비낀

철천지 원쑤 미제의 낮찍을

우리 학교 불태우고 동무를 죽인

원쑤 미제에 대한 고발장을

그림선생은 나의 그림을

철판에 붙여놓고 1등을 주었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에 하고싶은 말이였다

나의 원쑤를 온 세상에 보여준것이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의 3년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지각없이
어머니는 나를 업고 다니셨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머나먼 10리길
폭격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시한탄이 생명을 노리는
밤길은 또한 얼마였습니까

전쟁은 아이들도
때이르게 철이 들게 하는 법
내 어머니 수고에 목매여
어머니 목에, 어깨에 눈물을 떨구면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날은 맑은데
무슨 비가 이렇게 오누...

하면서도 우신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찌다 노전방에서 몇발자국 떼면
제일 기뻐하시던 어머니

어머니는 세상 떠나
다시는 볼수 없어도
어찌면 그런 어머니 또 계십니까
조금만 열이 나고 몸이 불편해하여도
내 머리맡을 지켜주는 자애로운 어머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미래의 운명까지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
그 품에 나의 어머니도 안겨
나도 안겨자란 품이었나니

내 오늘도 그 어머니의 잔등에
무거운 짐이 되어도
변함없는 어머니 목소리 울려옵니다
-꽃은 계속 피어야 한다
꽃은 계속 피어야 아름답다!

아파야 한다

상처는 가셔저도
마음속 상처만을 어찌 잊으랴
행복한 날 그런 순간일수록
나는 상처를 못잊는다

나는 상처를 못잊는다
그 상처 잊으면 나도 잊는것
이 행복한 생활도
나의 후대들도 잊는것

하여 무릎위에 손자들이
꽃잎같은 손으로 내 가슴 휘저어도
눈에 넣어도 쓰리지 않을
귀여운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오늘의 이 행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졌는지
순간도 잊어서는 안되리

순간도 잊을가봐
나는 상처를 꼬집으며
아픔을 느낀다
아파야 한다

그 아픔
천만배의 복수로 받아내야 할
산 목숨이기에
아파야 하지 않는가...

인풍루

김대성

예로부터 관서팔경의 하나로 이름높은 인풍루에 오르면 아름다운 산골도시를 한눈에 바라보게 된다.

천연성벽이런듯 랑림산맥의 높고 날카로운 메우리들이 어깨를 겨루고 이 도시를 사면팔방으로 빈틈없이 둘러싼 광경은 참으로 장관이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팔팔 솟구치는 맑은 물은 북천과 남천으로 갈라져 도시 변두리를 정성껏 쓰다듬으며 흘러내리다가 시내 한복판을 장쾌하게 꿰질러 유유히 굽이치는 유서깊은 장자강에 합류한다.

세면이 강으로 둘러막힌 고장이라 그 이름도 부르기 좋은 강계요, 보이느니 산이라 옛적엔 석주라고도 불리워온 내 고향이다.

변화한 도시의 사람들은 산촌의 맑은 공기와 푸른 숲에서 숨막힐듯 풍겨오는 향기, 새소리 물소리에 고요히 잠겨드는 꿈결같은 정적을 못내 바라마지 않는것이다. 반대로 한뼘 산촌에 묻혀 사는 이들은 초고층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드넓은 대로로엔 자동차들과 사람들의 물결이 소리치며 흘러가고 상점들과 식당들은 문을 열고서 다투어 손님들을 부르는 그 변화한 도시에도 쏠리는 마음을 견잡을수 없어한다. 그런즉 산골과 도시가 하나로 결합된다면 그야말로 둘도 없는 이상적인곳이리라.

강계가 바로 그러한곳이다.

이 산골도시의 아름다움은 북천과 장자강이 서로 열싸안고 춤을 추는 합수목에 시원히 발을 잠그고 창공높이 추녀를 번쩍 추켜든 인풍루로 하여 금강석브로치를 가슴팍에 반짝이는 너인처럼 더욱 매력있게 이채를 띠는것이다.

이 고장 사람들은 때없이 인풍루를 즐겨찾는다.

그것은 이 산골도시태생들의 고향에 대한 애착이 남달리 각별한때문이리라. 여기가 다름아닌 태어난곳이기에, 태어나 자라난곳이기에...

나 역시 홀로 사색에 잠기고싶어질 때면 의례히 인풍루로 발걸음을 옮기곤한다.

고색창연한 명승의 루정에 올라 아름답드리움을 부여잡고서 이 나라 반만년 역사를 향하여 소리쳐 부르면 삼천리강산의 그 어디나 있는 명승 고적들마다에서 화답해오는 메아리가 들리는것만 같다.

《영신가》로부터 시작하여 대성산성을 진감하던 고구려무사들의 우렁찬 함성이며 진주 축석루에 깃든 론개의 의로운 이야기며 한산도 달밝은 밤

에 충무공이 읊조리던 애국충정에 넘치는 시조며 제주도해녀들의 신바람난 물장구소리며...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노라면 흘러온 세월을 거슬러 어기여차 노를 저어가는듯이 마음 즐거워진다.

인풍루는 나에게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해주었을뿐아니라 오랜 세월 재능있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들이 옥돌처럼 다듬어놓은 민화며 가지가지 력사이야기들에도 관심을 돌리게 해주었으니 장차 팔도강산의 명승지마다에 깃들어있는 고적들을 다 찾아내어 두툼한 책을 써내려는 나의 꿈을 키워준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나는 인풍루와 이 산골도시를 사랑하고 있지만 나보다 더 정답게, 더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몇해전, 내가 그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곳은 여기 산골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수도 평양의 미술박물관이었다. 그때 미술박물관에서는 전국봄철풍경화전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었다.

당시 평양에서 대학공부를 하던 나는 우리 나라의 력사와 우리 민족의 재능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리해를 가지기 위해 민속박물관과 미술박물관에 자주 찾아가곤했었다.

그날도 나는 오랜 미술국보들이 전시되어있는 1층전람실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2층으로 올라가 새로 꾸린 풍경화전람회장에 들어섰다.

《야!》

나는 대뜸 탄성을 질렀다.

봄을 맞이한 내 조국의 아름다운 일만경치가 죄다 이 전람회장에 쏠려있는듯싶었다. 수도의 한복판에 옛모습 그대로 서있는 보통문이며 진달래꽃 만발한 약산동대, 금강산의 비로봉과 묘향산의 인호대를 비롯한 명승지들을 화폭에 방불히 옮긴 조선화들도 있었고 야금기지의 저녁노을이라든가 새로 개간된 간석지벌에 파릇파릇 움트는 모판들, 심산오지의 아담한 문화주택 추녀아래 깃을 트는 청제비를 그린 유화나 수채화들도 있었다.

혹시 내 고향 산골도시의 모습을 담은 그림도 있을수 있지 않을까.

기대어린 눈길로 개개의 작품들을 살펴나가던 나는 마침내 그 풍경화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인풍루의 봄》이라는 표제를 단 색채가 아주 선명한 조선화였다. 어찌도 기쁘지 가슴이 다 울

평거렸다. 방학차로 고향을 찾아간듯 그리도 반가웠다. 나는 얼싸안을듯 그 풍경화앞으로 다가섰다.

현데 이런 공교로운 일이라구야.

키가 큰 웬 손님이 그림앞에 우뚝 서서 좀처럼 비켜줄념을 하지 않는것이다. 그가 자리를 뜨기를 인내성있게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은근히 부아가 난 나는 두세번 기침소리까지 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세워놓은 조각상인듯 아니면 박아놓은 말뚝인듯 도무지 반응이 없었다. 모름지기 이름있는 미술가거나 적어도 상당한 미술애호가야 분명하리라고 짐작되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응당 그럴만한 권리가 있는 법이다.

아쉬운대로 나는 고개를 기웃하고 그 손님의 어깨너머로 그림을 엿보는수밖에 없었다.

풍경화에 그려진 인풍루는 내 고향에 있는 인풍루의 그 모습 그대로인데 왜서인지 더 화려하고 더 멋드러지게 안겨왔다. 화가는 인풍루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화폭의 중심에 박아놓고는 그것을 축으로 하여 주변경치를 낭만적인 필치로 현재의것과는 판 다르게 그린것이였다.

당시 인풍루절벽밑에는 유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폭이 좁아서 산보하기에는 맞춤했다. 게다가 낮기도 해서 조금만 강물이 불면 잠기기 일쑤였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그 유보도가 아니라 평양에서 만경대로 나가는 대동강반의 그 멋진 강안도로를 그대로 인풍루밑에 옮겨놓았다.

그뿐이 아니였다. 그 강안도로와 북천너머 경기장과 련결하는 다리도 없는것을 그려넣었는데 그 다리는 장자강을 가로지른 강계대교와 쌍을 이루면서 인풍루의 풍치를 한결 돋구는것이였다.

인풍루의 배경에는 초고층건물들이 키를 솟구었는데 당시는 그런 멋진 살림집들이 없었다. 고작 해서 7-8층짜리 살림집들뿐이었던것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허, 이거야말로 상상화로군.》

그러자 그 손님이 책 고개를 돌렸다. 마치 모욕이라도 당한듯한 노여운 표정이였다. 뭔가 뻔뻔하게 한마디 할듯 입을 감빰던 그는 다시 그림 쪽으로 돌아섰다.

나는 얼떨떨해졌다. 꼭 한방망이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혹시 저 풍경화를 그린 화가가 아닐까? 심분 그럴수 있었다.

《젊은인 강계에 가보고 하는 소린가?》

그는 점잖은 어조로 물었다.

나는 강계시가 바로 고향이라고 대답하고싶었으나 왜 그런지 선뜻 그런 말을 할수가 없었다.

《젊은이, 이 풍경화는 인풍루의 봄을 통하여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있는 산골도시 강계의 유구한 옛모습을 상기시키고 오늘보다 번영할 래일을

그러보게 해주는 아주 잘 형상한 작품이요, 인풍루로 말한다면 국보유적 제64호로써 1472년에 처음으로 세웠고 1680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고쳐 세웠소. 당시는 북방방위의 요새로 리용되어 왔기에 진변루라고도 불렀지.》

이처럼 인풍루가 국보유적 몇호요, 언제 세웠소 하고 그 년대까지 정확히 밝혀서 자상히 설명하는걸보니 그는 미술가가 아니라 력사가인듯싶었다.

계속하여 인풍루에 깃든 사화, 전설들을 펼쳐 할진 뻔한 일이다. 인풍루의 현판은 언제 누가 썼으며 인풍루안에 엉뚱하게 붙어있는 《학무정》이라는 현판은 어느해 홍수에 장자강 상류인 전천쪽에서 떠내려온것을 강계사람들이 건진거라는 것이며... 어쨌든 뻔히 아는 이야기를 또 듣는다는것은 따분할뿐더러 어지간히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어서 나는 젊은이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겸손치 못하게도 상대방의 친절한 설명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거야 력사에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있는거지요.》

그러자 상대방은 아량있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하긴 그렇소. 하지만 해방전에는 이 아름다운 명승고적이 집없는 불쌍한 사람들의 은신처로 리용됐다는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못할거요. 동무같은 젊은이들은 더욱 그렇지.》

나는 놀랐다가보다 아연해졌다. 서정적인 음악 선율에 침취되었다가 뜻밖에도 곡상에 맞지 않는 불협화음을 들은것만 같았다.

이거야말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게 아닌가?

명승고적이 집없는 사람들의 은신처였다구? 그런즉 인풍루에서 거지들이 살았다는것인데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표상이 오지 않았다.

인풍루와 거지, 이 두 말은 아무런 공통성도 없었으며 따라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풍루는 폭격에 허물어지고 강계시는 재더미가 됐댔소. 그러나 인풍루는 고색창연한 제 모습을 다시 찾았고 강계시는 청춘도시로 일떠섰소. 래일의 강계시는 이 풍경화처럼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곳으로 꽃피나게 될거요. 장자강반의 산골도시에서 일어나고있는 이 세기적인 전변의 증견자가 바로 인풍루란말이요.》

나는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얼마나 자기가 사는 교장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목소리인가.

《그럼 아바이 고향이 강계입니까?》

《그렇소. 거기서 살지.》

나는 발은 친척이라도 만난듯 반가웠다. 객지에서 한고향사람을 만난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

《아바이, 제 고향도 강계랍니다.》

아닐세라 상대방의 얼굴에도 대뜸 반가운 기색이 어리더니 기쁨의 미소가 불꽃처럼 확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첫인상에 여간만 엄하지 않을것 같던 그의 모습을 대번에 친근하게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정말 반갑군, 글썄 어쩐지 낮이 익다 했드랬어.》

객지에서 만난 한고향사람이라는 그 한가지 리유로 하여 우리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벌이 되는 엄청난 나이차이를 초월하여 즉시 막역지간처럼 가까와졌다. 통성을 해보니 그는 도시설계사업소 설계원인데 바로 그 풍경화에 그려진 인풍다리설계때문에 출장온것이였다. 이대로 헤어진다는것은 서운한 일이다. 나는 옥류관에 가자고 무작정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꽤히 웅하며 따라나서던 그는 인민대학습당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에 놀란듯 주춤 멈춰섰다.

《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자 그럼 공부를 잘하라우. 후날 강계에서 다시 만나세.》

몹시 미안해하며 서둘러 작별인사를 한 그는 전차정류소로 뚝달려갔다. 만포행 급행열차출발시간이 박두한것이다.

이렇게 되어 나는 아바이와 옥류관의 식탁에 마주앉아 유명한 평양랭면을 들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놓치고말았다.

아쉬웠다. 한것은 단지 그가 동향사람이기때문만이 아니였다. 모름지기 그는 돌이켜보기도 피로운 해방전 그 세월 저물녘이면 허기진 걸음으로 동남길에서 돌아와 인풍루의 키낮은 마루밑에 들어가 쪽잠을 자지 않으면 안되였던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었으리라. 집없는 설움에 사무쳤던 그였기에 수많은 직업들가운데서 부디 설계를 택했을는지도 모른다.

제작년여름 전승기념일을 맞으며 인풍루에서는 우리 창작실이 주최한 《시인의 밤》이 열렸다.

선조들이 왜적을 물리칠 무술을 연마하던 인풍루앞의 넓은 공지로 날이 저물기도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모여들기 시작했다. 준엄한 나날에 병사였던 남다른 궁지를 간직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로동청년들과 대학생들, 문학통신원들과 문학애호가들, 지어 조무래기들까지도 큰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법석 떠들며 야단이였다.

영예군인들을 초대한 앞자리에서 나는 뜻밖에도 낮익은 그 사람을 발견했다. 가족들과 함께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그의 가슴팍에는 훈장, 메달들과 함께 영예군인휘장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더한층 느끼면서 그에게로 급히 다가갔다.

《아바이, 그동안 몸건강하셨습니다까?》

나의 인사를 받은 그는 어정쩡한 눈길로 마주보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누군가? 난 처음 보는것 같은데...》

《우린 몇해전 평양에서 만났었지요? 미술박물관에서 말입니다. 풍경화 〈인풍루의 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는 두눈을 번쩍이더니 탄성을 올렸다.

《아! 생각나오. 생각나구말구. 우린 구면이었구만.》

《예, 오늘은 풍경화가 아닌 진짜 인풍루앞에서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래 대학을 졸업했소? 어디에 배치받았소? 희망대로 됐구만.》

그는 제일처럼 기뻐하며 곁에 있는 안해와 자식들,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손녀들을 일일이 나에게 소개해주는것이였다.

《아바이넌 대가정이군요.》

《암, 군대로 치면 한개 분대가 훨씬 넘을거요. 지금 두 아들이 군대에 나가있으니까. 마누라도 전쟁시기엔 군대병원 간호장이였소. 그래서 사위도 며느리도 다 제대군인들을 맞아들였지.》

《그러니 온 가족이 병사들인셈이군요.》

《아직은 그렇지 않소. 막내녀석까지 군복을 입히고싶는데 대학추천을 받았으니까.》

그러자 아버지를 찍어 닮아서 고등중학교 졸업반학생치고는 허우대가 크고 퍼그나 숙성해보이는 막내아들은 부끄러운듯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를 두둔해주듯 말했다.

《집안에 대학생도 한명 있어야지 자식들을 다 군대에 내보낼수야 없지 않습니까.》

아바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두 사내대장부가 군복을 입지 못하면 되나. 예로부터 국사중의 국사는 나라 지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대학이야 군사복무를 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갈수 있지 않소. 그러나 청춘시절에 병사로 살지 않으면 일생을 후회하게 될거요. 오늘 같은 날엔 더욱 그렇지. 전승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추억할만한 어제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글프겠소.》

새겨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이였다. 아마 나에도 젊음을 조국보위에 바쳤다는 궁지가 없었더라면 이 순간에 얼굴이 뜨거워졌을것이였다.

《정말 뜻깊은 밤이요. 이처럼 작가선생들이 〈시인의 밤〉을 마련했기에 전승기념일을 더 의있게 경축할수 있게 됐거든. 참, 선생도 시 한수 읊을 테지요?》

《전 출연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시인이 아니니까요.》

아바이는 몹시 서운해했다.

《소설가래도 출연할걸 그랬소. 〈시인의 밤〉이긴 하지만 뭐 꼭 시를 읊어야만 맛이겠소? 선생이 창작한 소설중에서 조국해방전쟁을 묘사한 감동적인 대목을 골라서 큰소리로 낭독하면 될텐데. 저 말이 났으니 말이지 종군기 〈남해가 보인

다!) 라든가 단편소설 〈불타는 섬〉과 같은 작품은 산문이라기보다 한편의 서사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전쟁시기 우린 전호숙에서 그런 작품들을 보풀이 일도록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오.》

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아바이앞에서 나는 자책을 느끼며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수 없었다.

《전 아직 그런 작품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선생이 그런 소설을 쓴다는게 어디 용이한 일이겠소. 하지만 써야 하오. 내 막내아들같은 젊은 세대를 위하여 그것은 더우거나 필요한 일이지.》

그때까지만 하여도 어릴적부터 꿈꾸어오던 큼직한 력사주제소설의 창작구상에 몰두해있던 나로서는 피로써 조국을 지킨 상대방의 이 조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새 세대들을 전화의 나날 불비속을 헤쳐온 영웅전사들처럼 살며 싸우게 하려고 애쓰는 아바이앞에서 작가적인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수도 없었다.

《그럼 아바이가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나에겐 창작에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습다. 어쨌든 도와드려야 할텐데...》

곰곰히 생각을 더듬어보던 그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던지 불쑥 물었다.

《참, 동림폭포에 가본적이 있소?》

《예, 전설수집차로 우리 나라의 명승지들은 죄다 편답을 했으니까요.》

그는 의아쩍은듯 캐물었다.

《죄다?》

《예, 어쨌든 거의 다...》

《남쪽땅에 있는 명승지들에도 가보았소?》

《?!》

나는 입이 열어붙었다.

사실 삼천리강산의 명승지들을 빠짐없이 돌아보려고 작정했던 나의 편답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개성의 박연폭포에서 중도반단된 것이었다. 더는 갈수 없게 철근콘크리트장벽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있었다. 때문에 나는 남조선에 있는 명승지들과 고적들은 사료연구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림폭포에서 시오리 떨어져있는 마을에 가면 강해옥이라고 부르는 80고령인 제주도해녀출신의 할머니를 만날수 있을거요.》

나는 귀맛이 부쩍 동했다.

내가 민화전설수집에서 제일 애로로 느끼고있는것은 남녘땅에 있는 명승지들에 직접 가볼수 없는 사정이였는데 그런 취재대상을 만난다는거야 실로 행운이 아닌가.

《꼭 찾아가보겠습니다. 제주도할머니와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우린 인천방어전투때 함께 싸웠소. 그때 강어

머니나이가 마흔이었지. 그런데도 담가를 들고 총포탄이 비발치는 싸움터에서 수많은 부상병들을 구출해냈소. 강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마 나도 살아나지 못했을거요. 난 후방병원에 후송된 후 여태

강어머니의 소식을 모르고있었소. 그러다가 몇해전 여름 평양에서 뜻밖의 상봉을 했지. 강어머니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전대협》의 대표 림수경학생에게 입히겠다고 조선치마저고리를 한벌 지어가지고 고려호텔에 찾아왔더구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군요.》

《강어머니에겐 그럴만한 사연이 있으니까. 해방직후 강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국적인 5.10단선을 반대하는 제주도인민들의 애국항쟁에 앞장서서 용감히 싸웠소. 그런데 제주도를 피바다에 잠근 놈들이 강어머니의 눈앞에서 남편을 때려죽이고 그를 서대문형무소로 끌고갔지. 젓먹이 어린 자식과 생리별을 당하고 옥중고초를 치르던 강어머니는 서울이 해방되자 의용군에 탄원했지.》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지금도 홀몸이겠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강어머니를 강계에 모셔오려고 했댔소. 그런데 자식들의 부양을 받고 있다더군.》

나는 흠칫 놀랐다.

《자식들이라니요?》

《강어머니 전후에 세명의 전재고아들을 데려다 키워냈더군. 친자식들인셈이지. 두 아들은 군대에 나가고 지금은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있다오.》

웅성거리던 장내가 삼시에 조용해졌다.

인풍루에 올라간 사회자가 《시인의 밤》 시작을 알린 것이었다.

아쉽게도 우리의 이야기는 중단됐다.

이미 쓰고있던 작품을 마무리하고난 나는 몇달 후에야 짬을 내어 신의주행 열차에 올랐다.

제주도해녀들에 대한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직접 만난다고 생각하니 그 어떤 이름못할 신비로운 감정이 은연중 나를 휩쌌다. 어린 시절 나를 치마폭에 앉히고서 재미나는 옛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가 생각나서 더우거나 그랬는지도 모른다.

제주도할머니네 집은 밤나무그늘에 파묻혀있었다.

쨍쨍 버그러진 밤송이들에서 윤택이 나는 기를진 밤알들이 탐스럽게 엮보였다. 마당가엔 잎이 떨어지기 시작한 해당화가 떨거져있는데 꽃은 이미전에 스러지고 발그래하게 익은 자그마한 열매들이 가지마다 맺혔다. 해당화를 바라보노라니 두고온 바다를 못잊어 그리워하는 제주도할머니

의 체취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40대에 들어선 현숙한 여인이 웬일인지 수심에 잠긴 울적한 기색으로 애써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보매 이 여인이 제주도할머니가 데려다 키웠다는 어제날의 전채고아가 분명한 것 같았다.

나는 그 여인에게 제주도할머니를 만나러 오게 된 사연을 말했다.

여인은 한순간 얼굴빛이 해쓱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것이었다.

《누굴... 만나러 오셨다구요?》

《이 집에 강해옥할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인은 입술을 살며시 깨물며 눈길을 떨구었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왜 그러니까?》

《늦었어요. 우리 어머님 만나시려거든 좀 더 일찍 오실게지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며칠전에 그만...》

여인의 가냘픈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차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이라구야. 이 여인의 말 마따나 내가 왜 좀 일찍 오지 못했는가? 제주도할머니 왜 벌써 돌아가셨단 말인가? 60이 청춘이고 90이 환갑인 이 좋은 세상에서야 얼마든지 더 살아계실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다리맥이 탁 풀려서 쓰러지듯 퇴마루에 주저앉았다.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런 변고가 생긴 줄은 모르고 나더러 여기에 가보라고 권고하던 부칠아바이를 생각하니 억이 막혔다.

《않다가 돌아가셨습니까?》

《뭘 별루...》

여인은 손수건으로 눈굽을 짖으며 부연했다.

《하긴 그렇다고 봐야지요.》

애매한 대답이었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북남합의서가 발표되자 어머니의 기대는 남달리 컸답니다. 그런데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이 그걸 리행하려 하지 않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자 어머니는 격분에 치를 떨면서 잠 못 이루곤 했으니까요.》

나는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하긴 젓먹이자식과 생리별을 한지도 반세기나 되었으니 제주도할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피로했겠습니까.》

여인은 또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갔다.

《정말 그래요. 어머니가 제주도에 있는 아들에게 주겠다고 레장감을 장만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요.》

나는 두눈이 둥그래졌다.

《레장감을 장만했다구요?》

여인은 방으로 나를 안내하더니 옷장에 깊숙이 간수해두었던 레장감을 꺼내주었다. 그것을 받아 펼쳐드니 안개라도 낀 듯 눈앞이 흐려졌다.

약산동태의 연분홍빛 진달래꽃무늬가 함참히 수놓아진 보드라운 비단필, 줄무늬가 간 고급양복지, 거기서 알릴 듯 말 듯 풍겨나는 나프탈린냄새...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것을 꺼내어 좀이라도 먹을세라 살펴보고 어루만지면서 제주도할머니는 정녕 무엇을 그러보았을까?

자꾸만 치밀어오르는 뜨거운 것을 삼키며 그 레장감을 바라보노라니 나는 이번 걸음이 늦어진 것을 다행이 아니었던가 싶이 여겨지는 것이었다.

여기로 오면서 나는 얼마나 천진란만한 동심에 사로잡혔던가. 제주도할머니와 무릎을 마주하고 옛말을 즐기는 어린애처럼 백록담의 사슴이야기며 진주조개를 캐고 향기로운 굴열매를 따는 해녀들의 특이한 바다생활이며 해질녘 모래불에서 파도소리와 어울려 울려 퍼지던 해녀들과 목동들의 노래소리며... 글썽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꿈꾸었던 것이다.

당사자는 두고온 고향생각, 생리별을 당한 자식들 생각에 남모르는 피눈물을 씹어삼키며 통일이 언제면 오려나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데,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치를 떨고 있는데 하마트면 립종의 순간에 이른 제주도할머니의 멍친 가슴이나 더 아프게 허벌번하지 않았는가.

한참만에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레장감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인은 생각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보관해두었다가 통일이 되면 제가 오빠에게 전해드려야지요.》

제주도에 있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이처럼 스스로없이 오빠라고 정답게 부르는 여인앞에서 나는 콩크리트장벽을 뚫고 굽이치는 혈육의 정을 새삼스레 사무치게 느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나는 허전하다하기엔 너무도 쓰린 가슴을 안고 되돌아섰다.

장시간 기세 좋게 내달리던 렬차는 해질무렵 강계역에 들어섰다. 먼 취재길에서 돌아올 때면 차창밖에 언뜻 고향도시의 불빛만 보여도 반가움과 기쁨에 마냥 가슴이 울렁거리곤 했지만 이날따라 고향에 들어서서는 나의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무거웠다.

고향을 떠난지 근 반세기가 되도록 고향에 가지도 못한채 숨을 거둔 제주도할머니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다.

어쩐지 곧장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다. 문만 열면 반기며 달려나올 사랑하는 안해며 귀여운 어린것들을 두팔 벌려 품에 껴안은 폐사로운 그 기쁨을 맛보기엔 내 가슴이 너무도 쓰리고 아

왔던것이다. 나는 역전거리에 있는 우리 집을 지나쳐 도시설계사업소로 향했다. 부칠아바이를 만나서 이 가슴에 멍울진것을 꼭 쏟아놓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수가 없었다. 도시설계사업소의 정문에 이르러서야 나는 퇴근시간이 지났다는것을 깨달았다. 검수원처녀에게서 부칠아바이의 집주소를 알아본 나는 스스로도 이해할수 없는 그 어떤 절박감에 뒤쫓기어 두주먹을 부르쥐고 내달렸다.

인풍루근처에 있는 탑식살림집 3층 3호집.

헐떡거리며 계단을 뛰어올라간 나는 무춤 그자리에 못박혔다. 활짝 열린진 나들문으로 무엇을 튀겨내는듯한 고소한 기름냄새가 풍겨나왔고 저쪽 안방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모습이 들여다보였다. 그 광경이 나에게는 그 무슨 판세상처럼 기이하게 여겨지는것이였다.

다른날도 아닌 오늘같은 날에 다른집도 아닌 부칠아바이네 집에서 어쩌면 이럴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애상에 너무나도 깊숙이 빠져든 자신을 뒤미처 발견하게 된 나는 황급히 돌아섰다.

부칠아바이는 래일 만나자. 이런 즐거운 좌석에서 하필이면 그런 가슴아픈 비보를 전해줄 필요가 있는가. 잔치집에 부고장을 던지다니?! 아니, 그래서선 안된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정신적인 허탈감이 나의 전신을 휩쓸었다. 비칠거리며 충계를 내려가는데 언제 나를 띄어뒀던지 부칠아바이가 소리쳐 부르며 복도로 달려나왔다.

《왜 가는거요? 어서 들어갑시다. 그러지 않아도 내 기다리던 참이었소.》

아바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내손을 잡아끌었다.

취기가 알맞춤하게 오른 그에게서는 내 고향의 특산물인 인풍술의 감미로운 향기가 유혹하듯 풍겼다. 하지만 나는 선뜻 따라들어가게 되지 않았다.

《먼 길에 수고했겠소. 그래 강어머니 잘 있습니까?》

나는 소스라쳐 놀라며 주춤 한걸음 물러섰다.

《제가 그곳에 갔다온걸 어떻게 아십니까?》

아바이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내 아까 창작실에 전화를 하니 제주도할머니를 만나러 갔다고 알려주더구만. 아니, 그런데 얼굴색이 왜 그렇소? 말이 아니로구만.》

나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오래간만에 렬차여행을 했더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전 그럼... 래일 찾아뵙겠습니다.》

아바이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미를 느꼈던지 정색해서 따져물었다.

《혹시 강어머니 신상에 무슨 번고라도 생긴게 아니요?》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충계를 달려내려갔다.

발가는줄 모르고 걸어가다가 멈춰서니 인풍루의 높은 추녀가 어둠속에서 나를 굽어보고있었다. 사색에 잠길 때면 의례히 이 명승고적을 찾곤하던 몸에 배인 습관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는가? 무거운 걸음으로 인풍루에 올라간 나는 란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인풍루에서 피우는 담배맛은 각별히도 구수하더니 오늘따라 소태처럼 쓰거웠다. 끝이 다 지끈지끈 쑤었다. 방금전 부칠아바이네 집에서 목격한 화기애애한 광경이 어지러운 환영처럼 눈앞에서 맴돌며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이 무슨 명절날이던가? 아무리 따져봐야 그저 평범한 하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명절분위기였지. 혹시 부칠아바이 생일일수도 있을테지, 모름지기 며칠전 여기 인풍루앞에서 만났던 아들 며느리네, 딸 사위네가 손자손녀들을 데리고 다들 모여들었으리라, 개중에는 물론 친척친우들도 있을테지. 그런즉 일가친척이 다들 한자리에 모였단말이지? 단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인가말이다.

나는 고향에서 검은 머리 희숙해진 그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은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심정을 아는지, 헤어져 수십년 생사조차 모르는 자식들의 운명을 두고 애타게 태우는 어머니의 심정을 아는지, 분열된 조국을 그리안고 몸부림을 치던 전우가 유산으로 남긴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는지...

두벅 두벅... 누군가 나처럼 무거운 생각에 잠긴채 인풍루로 올라오는 발걸음소리가 났다. 나는 그쪽을 바라보지 않고서도 누구인가를 알아차렸다.

내곁에 다가온 부칠아바이는 이윽도록 묵묵히 잠망령너머 저멀리 남쪽하늘가를 지켜보더니 힘겹게 입을 떼는것이였다.

《솔직히 말해주오.》

나는 더 이상 숨길수가 없었다. 가슴을 빠개젓히고 이 가슴에 멍울진것을 꼭 쏟아놓으면 다소나마 마음이 가벼워질줄 알았건만 더 무겁고 번거로워지는것이였다.

소연한 강물소리만이 높아졌다. 이밤따라 장자강도 그 무슨 절절한 사연을 끊임없이 읊조리는 것만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강반에 현란하게 반짝이던 불빛들도 달콤한 잠속에 이끌려들듯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남쪽하늘가를 바라보며 돌상처럼 서있던 그는 애석한 마음 진정할수 없었던지 통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강어머니가 그렇게 눈을 감으시다니... 통일의 날 우리 함께 고향으로 가자고 하시더니 종시...》

천만뜻밖의 그 말에 나는 대경실색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아바이의 고향도 남반부란말입니까?》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렇소.》

《아... 아니, 이럴수야 있겠습니까?》

《왜 그러오?》

나는 숨이 턱 막혀서 미처 말이 다 나가지 않았다.

《전... 전 아바이가 이고장 태생인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술박물관에서 만났을 때 아바인 강계가 고향이라고 했지요?》

《여기도 내 고향인셈이지. 정들면 다 고향이라지 않나.》

나는 이해할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직업적인 호기심을 다시금 느끼면서 서둘러 물었다.

《도대체 태어난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는 꿈속에 잠겨든 산골도시의 밤풍경을 새삼스레 둘러보고나서 대답했다.

《신통히도 이고장처럼 생긴곳일세, 둘레엔 험한 산밭이 병풍처럼 서있고 한복판엔 맑은 남강이 흘러내리고 그 기슭엔 명승고적 축석루가 우뚝 솟은 경치좋은 고장이지.》

그곳은 전라도 진주땅, 가지가지 사화의 이끼가 두텁게 깔린 유구한 고장이었다. 어느때 같으면 나는 그에게 축석루에 깃든 고담을 들려달라고 졸랐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경향이 못되었다. 본의 아니게도 공연히 아바이의 아물줄 모르는 상처를 허비게 된것만 같아서 나는 이렇게 마주앉은것을 은연중 두려워하고있었다. 제발 이 사람의 입에서는 내 가슴을 더 압박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한데 첫마디부터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있지 않는가.

《난 명승지로 이름난 진주땅에서 태어났지만 잔뼈도 굳히기전에 쫓겨난 사람ियो.》

추억이 피로왔던지 그는 나에게 담배를 청했다. 어느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숨과 함께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은 그는 띠엮띠엮 말을 이었다.

《오늘따라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삼삼하구만.

난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요. 스물여덟살 꽃나이에 청상과부로 된 어머니는 이미 네 남매를 거느리고있었소. 어머니는 그날부터 제비새끼들처럼 오롱조롱 치마폭에 매달려 입만 벌리는 어린것들을 굶겨죽이지 말자고 뻔뻔지게 일했소. 하지만 두 자식은 끝내... 하는수 없이 나머지 두 자식을 먼 친척들에게 맡기고 나중엔 어린 내 손목을 끌고서 류랑의 길에 올랐지.》

갑자기 눈앞이 뿌예졌다.

나라없는 그 세월 고향이란 자기 품속에서 고성을 터뜨린 사람들을 붙잡아들 힘조차 없었더

란 말인가. 그런곳을 가리켜 어떻게 고향이라는 친근하고도 정다운 말로 부를수 있으랴.

《...그렇게 정처없이 떠다니다가 주저앉은곳이 서울이었소, 나는 서울이 해방되자 의용군에 입대했지. 평생 사진이란것을 찍어본적이 없는 어머니라 헤어질 때 자그마한 손거울을 내 손에 꼭 쥐여주시더군.

〈부칠아, 예미가 생각날 땐 이 거울이라도 들여다보려무나. 전쟁이 끝나면 네 누이랑 형이랑 다 찾아가지고 다시 고향에 가서 살자구나.〉

간절한 소원이 비긴 어머니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는 말했다.

〈어머니, 기껏해서 한달만 기다려주세요. 가을이 되기전에 우린 미국놈들을 쳐부시고 해방된 고향으로 가게 될거예요.〉

한데 그 한달이 너무도 길어서 오늘까지 지속되고있소. 인젠 어머니도 팔손을 넘긴 몸이요. 그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그만 강어머니처럼 끝내...》

그는 종시 말끝을 맺지 못했다.

나는 얼른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수야 있겠습니까. 아직도 아바이를 기다리고계실겁니다.》

그는 말로나마 위로해주는 내가 고마운지 강인히 미소를 지어보이더니 나지막한 어조로 속삭이였다.

《나도 그렇게 믿고싶소. 믿어야 하구말구.》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지속될수록 숨조차 가빠지는 그 침묵을 조심스레 헤치며 아바인 어떻게 되어 여기에 와서 살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침울하던 그의 얼굴에 알릴듯말듯 희색이 어렸다.

《전쟁때 자기의 피를 뽑아서 내 생명을 구원해준 간호원이 강계쳐너였소. 해방전엔 바로 이 인풍루밑에서 거적때기를 뒤집어쓰고 쪽잠을 자던 불쌍한 고아였지. 해방과 함께 처지가 뒤집혀져서 그 처녀는 간호원양성소를 나오고 병원에서 일하다가 전쟁이 터지니 선참으로 군대에 입대했다고 하더군. 량어깨에 쌍태머리를 늘인 얼굴이 달덩이 같은 아름다운 처녀였소. 그래서인지 난 그 처녀의 얼굴만 쳐다봐도 아픔을 잊게 되더군.

그 처녀는 고향자랑을 즐겨하곤했었지.

예로부터 강계는 산세가 험해도 인심은 후하고 잠풍한데다가 경치 또한 아름다우며 특히 물맛이 기막히게 좋다나. 그 말을 들으며 상상해보니 꼭 내 고향 진주땅같이 안겨오더란말이요. 사정없이 마음이 끌리우더군.》

마음속 깊이엔 간직돼있던 이 추억은 하냥 아름다웠던지 그 사람의 두눈엔 생기가 어리고 목소리도 한결 즐겁게 울렸다.

《전쟁이 끝나자 나에겐 갈곳이 없었지. 북반부엔 고향도 없고 가까운 친척들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처녀를 따라 여기로 왔소. 정작 와보니 경치가 다 뭐요. 온통 재더미였소. 미제공중비적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이 인풍루도 지붕이 허물어져내리고 불에 그슬린 찌리기둥들만 남아있더군.

하지만 그 재더미우에서는 비애와 절망이 아니라 약동하는 숨결이 느껴졌소. 시민들은 남너로소 할것없이 모두 떨쳐나 북구건설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터전을 닦고있었지. 우리도 용약 그들속에 뛰어들었소. 재더미를 파헤치고 희망의 씨앗을 묻던 북구건설의 나날에 나는 생각했소.

락원으로 꾸린 이 행복의 보금자리에 어머니를 모셔올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요.》

그의 두눈은 희열에 넘쳐 별빛처럼 반짝이였다. 그는 벽차오르는 걱정을 도저히 진정할수 없었던지 별떡 일어나서 한손을 쳐들며 웨치듯이 목청을 돋구었다.

《자! 보오! 저기 독산기슭의 3-4층 살림집들은 전후북구건설시기에 지은것이고 대홍산기슭의 7-8층 살림집들은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지은것이고 장자강반에 우뚝우뚝 솟아난 고층살림집들은 최근에 일떠세운것ियो. 가까운 앞날에 저쪽 북천기슭엔 체육관을 크게 짓고 현대적인 극장도 새로 지을 계획ियो. 그리고 지금 한창 건설중에 있는 장자강하류의 중형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시내에 전기난방화를 실현하고 여기 인풍루아래로는 려객선이 다니게 될거요.》

자랑겨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노라니 보다 아름답게 변모될 내 고향이 금시 눈앞에 펼쳐지는것만 같았다.

《아바이, 그럼 그때 가서는 내가 상상화라고 했던 〈인풍루의 봄〉이 현실에 뒤떨어진 작품으로 되겠군요.》

《그렇구말구. 아마 미술가는 새로운 풍경을 그려야 할거요.》

그는 즐겁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처럼 인풍루에 오르면 내가 뿌린 땀방울이 어떻게 빗을 뿌리고있는가를 한눈에 굽어볼수가 있어 가슴이 뿌듯해지군하거든. 바로 이 산골도시에서 나는 그 처녀와 가정을 이루었고 자식들을 낳아키웠고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었소.

나는 그래서 이 도시를 사랑하오. 이 도시에 대하여 자랑하는것을 나의 의무로 여기고있단말ियो. 출장길에서 사귄 사람들은 강제자랑이 극성인 나에게 이렇게 묻군하지. 강제가 고향인가고. 그때마다 나는 자부심에 넘쳐 서슴없이 대답하군하오. 내고향은 강제라고. 정말이지 출장기일이 조금만 지체돼도 어머니품을 떠난 어린애마냥 이 산골도시가 그리워서 잠을 이룰수가 없단니까.》

어쩌면 그 감정이 내가 느끼는것과 신통히도 꼭 같은지. 그러기에 나는 그가 한고향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이나 서운함 대신에 더 친근한 감을, 정말이지 육친의 정조차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불이 꺼진지 오래된 담배에 성냥을 그어댔다. 천천히 몇모금 연기를 들이켰다가 길게 내뿜은 그는 란간에 걸터앉더니 저으기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헌데 이상하거든. 정말 이상한 일이야.》

나는 은근히 긴장하여 그를 주시했다.

《웬일인지 날이 갈수록 떠나온 고향생각이 자꾸 더해만진단말ियो. 책보를 메워야 할 나의 어린 어깨에 피나리보짐을 메워 류랑의 길로 내뿜은 고향이란것이. 그때 갈아서는 죽어도 다시는 찾아가고싶지 않던 몸쓸놈의 고장이 말ियो.》의 미심장한 그의 목소리는 즐거움이 물결치던 이 가슴을 다시금 압박하기 시작했다.

《작가선생처럼 고향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향이 무엇인지 다는 알수 없을거요. 생리별의 슬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육친의 정이란 어떤것인지 다는 알수 없을거란말ियो. 즐겁고 기쁠때에도 문득 가슴을 저리게 하는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향이고 헤어진 정든 사람들이지.》

이제보니 그는 가슴속에 너무도 큰 슬픔을 묻고있는 사람이였다. 고향이 싫고싫어 떠난 이 사람은 떠나면 타향에 와서 땀을 뿌리며 보금자리를 꾸려놓고 행복을 누리고있으나 그 슬픔만은 가셔낼수 없었다. 그것은 가고싶어도 갈수 없는 남의 땅아닌 남의 땅이었기때문이다. 비록 떠나온 고향이지만 서슬무른 칼로써도 끊을수 없는 인연이 거기에 있어 그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채 아쉽다 하기엔 너무도 절통하게 인생말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가슴에 손을 대고 심각히 자문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고있는 나는 과연 완전한 의미에서 행복한가 말이다. 콩크리트장벽너머 암흑의 땅에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이 없다하여 나는 정녕 분별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가. 아니다! 나 역시 가슴 쓰라린 그 고통을 수시로 체험하고있다. 어린 시절 바로 이 인풍루에서 움뚾은 희망을 꽃피우자고 취재차로 명승고적들을 찾아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을 다 편답하면서도 이 땅의 한지맥이 분명한 지리산, 태백산, 제주도에는 갈수 없었을 때의 그 아쉬운 심정이 그때 아쉬움만이었던가. 통일이 되기전엔 도저히 가볼수 없는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라도 듣자고 강해옥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유산으로 남기고 간 례장감앞에서 내 흘린 눈물은 정녕 무엇이란

말인가?

아! 나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것만 같은 그 아픔을 호소하자고 부칠아바이를 찾아왔으나 아속하게도 그 아픔을 배로 더해주는 이 안타까운 목소리를 듣고있다. 이제 당장 자리를 차고 일어나 땀다 달려가서 콘크리트장벽을 산산이 짓부시고싶었다. 강토의 허리를 아프게 졸라매고있는 분렬의 장벽을 활 무너뜨려야 숨을 쉴수 있을게 아닌가.

이대로 참고 또 참고... 그저 참기만 하다가는 이 땅에서 쫓아나는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숨이 가빠 견디여내지 못할것이다. 원한의 장벽은 이 나라 강토만이 아닌 우리 매 사람의 허리도 끊어지도록 졸라매고있기에...

《아바이,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도당을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언제가도 통일을 이룰수 없을겁니다!》

홍분하여 웨치는 나를 바라보며 그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옳은 말이요. 바라는 마음 절절하다고 저절로 이루어질 통일이 아니지. 지금 놈들의 책동이 아주 심상치 않거든. 피가 펄펄 끓어서 못견디겠소. 내 그때 부상만 당하지 않았어도 군복을 벗지 않았을텐데... 참, 몇달전에 여기서 전승기념일을 경축하는 <시인의 밤>이 열렸었지?》

《예.》

《그날 시인들이 읊는 격조높은 목소리를 듣고서 우리 막내녀석이 생각이 많았던모양이요. 대학추전을 받은 녀석이 인민군대에 입대하길 탄원했다니까.》

《그래요?》

부칠아바이는 대견한 미소를 지으며 궁지높은 목소리로 자랑하듯 말했다.

《오늘 군복을 입었소. 래일 아침차로 떠난다더군, 그 녀석을 축하해주자고 다들 모였지. 그애가 다니던 공장에서두 오고 동창친구들도 왔소.》

나는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전 그런줄은 모르고... 정말 안됐습니다.》

《자, 그만 들어가지요. 작가선생이 우리 막내녀석에게 초소에 나가서 두고두고 명심할 그런 말을 해주는거야 의의있는 일이 아니겠소.》

그래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가? 나의 병사시절을 돌이켜보며 군무생활에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준다? 내가 구태여 그런 조언을 주지 않아도 앞으로 지휘관들이 다 일깨워줄것이다.

작가인 나는 초소로 떠나는 새 세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제주도할머니와 부칠아바이네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것이다.

반세기가 되도록 지속되는 기나긴 분렬은 그들의 머리우에 무자비하게 흰서리를 내렸고 개중엔 그토록 바라던 통일을 보지 못한채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이 세대가 통일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은 허무한것이었던 말인가? 결국 우리가 물려받고있는 유산은 분렬된 조국이란 말인가?

아니다!

그것은 분렬된 조국이 아니라 통일로 한결 더 가까워진 조국이다. 바로 여기에 이 세대가 겪은 가슴 아픈 비극이 있고 피로써 이룩해놓은 공적이 있다. 그러니 정녕 통일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통일은 사실상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자고 한생을 깡그리 바쳐오는 그들자신을 위한것으로 되어야 할것이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있으며 새 세대로서의 의무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자. 하긴 그것을 스스로 자각했기에 부칠아바이네 막내아들도 언젠가 우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희망과 포부도 다 뒤로 미루고 초소로 떠나는것이 아닌가.

나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인풍루를 여겨보았다.

교묘한 달빛에 단청무늬가 두드러졌다. 제주도 할머니가 남기고 간 꽃문양 아릿다운 비단필이 이 루정에 감긴거나 아닌지, 두고온 고향의 축석루를 그려보며 여기에 쏘아부은 부칠아바이의 사색과 땀방울이 어려있어 이다지도 아름다운것인지.

아, 흘러온 역사를 더듬어보게 해주던 인풍루여!

고색창연한 네 모습에도 우리 인민의 통일념원이 깃들어있는줄 내 미처 몰랐구나. 어디 너뿐이라. 이 땅의 흙 한줌, 풀 한포기에도 통일을 위해 흘린 아버지, 어머니들의 후두운 땀과 붉은피가 속속들이 스며여있는줄 내 이제야 알았구나. 그럴진대 온 겨레가 얼싸안고 불을 비빌 환희의 그날이 어찌 앞당겨지지 않을수 있으랴!

풍상고초를 이겨낸 인풍루는 역사의 증견자답게 말없이 엄숙하게 우리 세대를 지켜보는것 같았다.